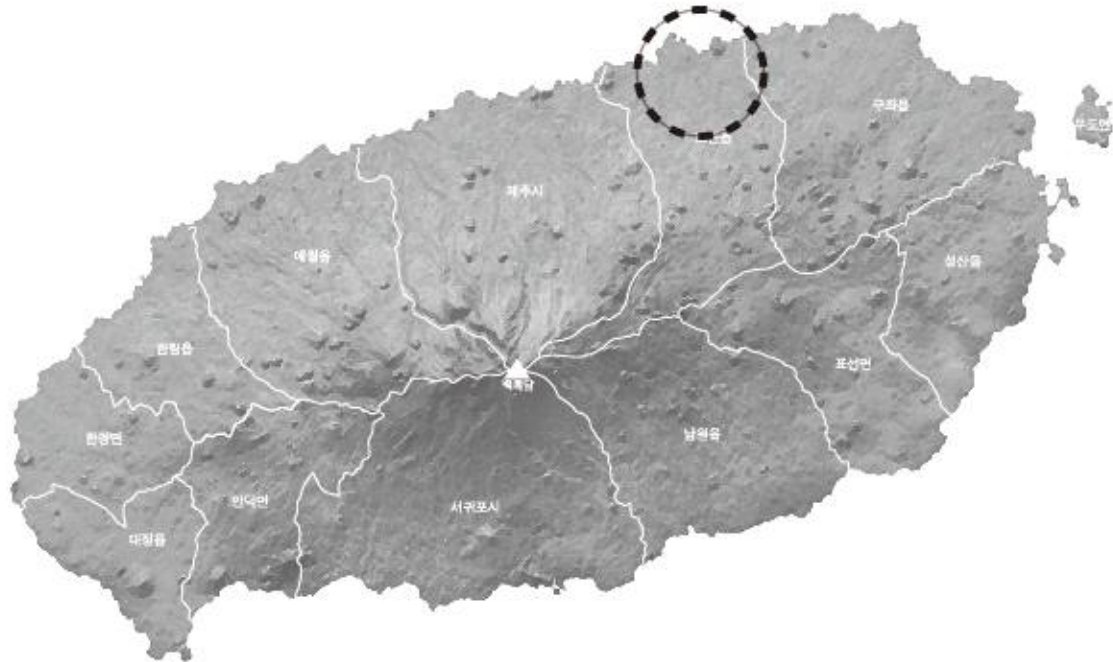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298-01

#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미진  
조사지점 조천읍 함덕리

#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14**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7
1.2. 사업 기간 .....	7
1.3. 조사 참여자 .....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	9
1.5. 기대 효과 .....	9
제2장 조천읍 함덕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	10
2.2. 조사 기간 .....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	10
2.4. 전사 .....	12
2.5. 장비 .....	12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	13
3. 밭일 .....	39
5. 바다일 .....	84
7. 식생활 .....	107
2. 제보자 일생 .....	23
4. 들일 .....	66
6. 의생활 .....	100
제2절 어휘	
1. 인체 .....	137
3. 친족 .....	150
5. 음식 .....	159
7. 생업 .....	173
9. 민속 .....	188
11. 자연 .....	191
13. 식물 .....	209
2. 육아 .....	144
4. 의복 .....	154
6. 가옥 .....	168
8. 수와 단위 .....	185
10. 신앙 .....	191
12. 동물 .....	199



# 제1장 사업 개요

##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제2장 조천읍 함덕리 조사 내용

### 2.1. 제보자

한아섭(여, 1930년생)  
이용진(남, 1929년생)  
한춘생(여, 1932년생)  
양은순(여, 1934년생)  
송문방(여, 1930년생)  
김문희(여, 1934년생)  
고기원(남, 1930년생)

2.2. 조사 기간: 2015. 5. 1.~12. 31.

###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함덕 구술 1	한아섭 이용진	01:56:44	○
2. 제보자 일생				
3. 밭일	함덕 구술 2	한아섭 이용진	00:23:33	○
4. 들일	함덕 구술 3	한아섭 이용진	01:56:27	○

5. 바다일				
6. 의생활	함덕 구술 4	한아섭	02:21:47	○
	함덕 구술 5	한아섭	00:21:24	×
7. 식생활	<함덕 구술 4> 함덕 구술 6	한아섭	00:04:33	×
	함덕 구술 7	한아섭	01:14:59	×
8. 주생활	함덕 구술 8	한아섭	01:07:42	×
9. 신앙				
10. 세시풍속	함덕 구술 9	한아섭	00:52:23	×
11. 놀이				
12. 통과의례				
13. 민간요법	함덕 구술 10	한아섭	2:14:33	×
14. 경험담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함덕 어휘 1	장보배	00:44:00	○
	함덕 어휘 2	김옥선	00:49:34	○
2. 육아				
3. 친족	함덕 어휘 3	양은순	00:56:45	○
4. 의복	함덕 어휘 4	양은순	00:28:54	○
5. 음식	함덕 어휘 5	한향섭	00:01:03	○
	함덕 어휘 6	한향섭	00:04:46	○
	함덕 어휘 7	한향섭	00:24:07	○
	함덕 어휘 8	한춘생	00:45:37	○
	함덕 어휘 9	한춘생	00:31:15	○
6. 가옥	함덕 어휘 10	한춘생	00:43:24	○
7. 생업	함덕 어휘 11	송문방	01:07:36	○
	함덕 어휘 12	고기원	00:51:13	○
	함덕 어휘 13	송문방	00:26:26	○
	함덕 어휘 14	김문희	00:51:56	○
8. 수와 단위	함덕 어휘 15	김문희	00:52:02	○

9. 민속				
10. 신앙	함덕 어휘 16	김문희	00:34:51	○
11. 자연	함덕 어휘17	한아섭	00:52:23	○
12. 동물	함덕 어휘18	한아섭	00:42:17	○
	함덕 어휘19	한아섭	00:52:23	○
13. 식물	함덕 어휘20	한아섭	02:27:02	○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 제3장 전사 자료

### 제1절 구술

(@ 김미진, #1 한아섭, #2 이용진)

#### 1. 조사 마을

101001 @ 이 함덕은 어떻게 만들어졌저 허는 말 잇수과?

101001 #1 그건 몰라.

101001 @ 이름은 어떻게 함덕이렌 지왔저 허는 거

101001 #1 우린 몰라.

101001 @ 그런 말 안들어판?

101001 #1 나난 그자 함덕이렌 허난 함덕서 사는 것만 함덕이주.

101001 #2 그런 문서는 전혀 모르고. 우리가 왜정 때는 함덕이렌 허민 미나수루 도꼬라고 해서 일본말은 우리가 침 알았주만은 이 우리말도 해방된 후에도 스삼이여 뭐여.

101001 #1 이 함덕은 벨로가 엇어. 북춘도 보민 이젠 북춘이엔 해도 옛날엔 뒷개엔 허고이.

101001 @ 거난 이딘 그런 이름 엇어?

101001 #1 그런 이름 엇어. 또 조천도 조천이엔 허는디 옛날 우리 클 때는 조천관. 신흥도 옛개, 신흥이엔 안행 옛개엔. 함덕은 그런 벨로가 엇다고.

101001 @ 그런 이름이 엇어.

101001 #2 함덕은 본래 본판.

101001 @ 옛날부터 함덕?

101001 #1 함덕이엔 현디 벨로 말이 엇언. 나이든 어른덜은, 옛날 어른덜은 이 서나신디사 우린 그런 말 안들어판.

101001 @ 함덕도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이름 이수게.

101001 #2 아 그런 동넨 잇주.

101001 @ 무신 동네, 무신 동네 이수과?

101001 #2 일이삼사오구까지 시니까 함덕이. 일이삼스오구까지 이시민 그 일구, 이구 삼구스구 오구.

101001 #1 것사 신식말이주만은 옛날은.

101001 @ 옛날 이름은 무신 동네, 무신 동네 엇수과?

101001 #1 웰망.

101001 #2 썩사동.

101001 @ 또?

101001 #1 저 이걸 일구엔은 그냥 일구로 그자 들어오는 디난 허고 이딴 이구  
렌.

101001 #2 이구에는 동네 하. 펄물 동네, 거룻굴 동네, 가시남 므루.

101001 @ 무신거 할아버지 다시 한번.

101001 #2 이구에 와서는 요디 허면 펄물동네, 펄물동네 김칩이라고.

101001 #1 이디는 거룻굴 동네.

101001 @ 무사 거룻굴동네?

101001 #1 논 쥬 온 물이 이서냇어이, 옛날. 이 노인당 지신 디가 물 메와되에.

101001 #1 2 물통, 물통. 소 먹이는 물통.

101001 #1 옛날은 거기서 빨래도 허곡 다해나신디 메와된.

101001 @ 거난 그 못 이름이

101001 #1 거룻굴, 거룻굴.

101001 @ 갹 이디가 거룻굴 동네.

101001 #2 응 거룻굴. 저 앞에는 펄못동네. 그디도 물통.

101001 @ 그디도 물통.

101001 #2 이구 안네도 거 펄못.

101001 @ 물통이름이 펄못?

101001 #2 펄못.

101001 #1 막 하. 다 몰르난 허주. 요 삼구엔 가민 숫두뭇가라 숫두뭇.

101001 @ 숫두뭇?

101001 #1 게도 이런 못이라난다 메완 이제 막 길덜.

101001 @ 바닷가 쪽에는?

101001 #1 바닷가 요디 물에 가민 세기 마레여 고냉이 성장이여.

101001 #2 올렛여.

101001 #1 드름이여, 올렛여여, 느릿질이여 경행 막 세여가지.

101001 #2 건 다 잇는 거. 찜.

101001 @ 그 동네 이름으로 예. 이 동네는 큰 오름이나 내창이나 이런 게.

101001 #2 이딴 옛고 저 앞이 서머봉.

101004 @ 무슨 오름?

101004 #2 서머봉.

101004 @ 서머봉?

101004 #2 함덕 저 거자 봐지는 거 해수욕장 저. 서머봉이 큰뫼. 그거 하나, 오  
름이란 건.

101004 @ 내창은?

101004 #1 내창 엇어.

101004 @ 내창은 엇고 나는 물은 이실거 아니꽈? 옛날엔 물 질레 어디레 가냇

수과?

101004 #1 스렛물.

101004 @ 스렛물은?

101004 #2 생수. 삼구에 그디 삼구에 강보민.

101004 #1 삼구에 그 막 운동기계 이신디 그것이 스레물.

101004 @ 예, 예,

101004 #2 거 생수 나와.

101004 @ 아, 거 나는 물이꽈?

101004 #2 어, 생수, 생수.

101004 #1 소문난 물.

101004 #2 고덧물에 가민 삼구 잇잖여게, 삼구에. 스구 해수욕장 내려가는데 그것도 여자물통 생수. 두군디가 있어. 남즈물통, 여즈물통. 그 물덜은 알아주고.

101004 #1 함덕물이 쨌 맛있넨 허지.

101004 @ 계난 예. 함덕이 물 좋텐.

101004 #1 스레물도 잘도 존 물.

101004 #2 그 물덜은 알아주고. 우리 어린 때.

101004 #1 수도덜 낭 혜부난 물이 우로 어떻 제스 받아신디 물이 죽어. 옛날ㄱ 추록 우리 두린 때 물 나듯 안 나.

101004 #2 요디 저 큰덥물 헨디 그디도 생수가 나오고 있어, 바당물.

101004 #1 이진 바당으로 나는 거. 바당 고양이로 다 납니다게. 생수사 다 나누게.

101004 #2 생수도 드문드문 잇고.

101004 @ 바당 고양이로 나는 물도 이름 잇수과?

101004 #2 큰덥물.

101004 #1 큰덥물. 들음.

101004 #2 큰덥물.

101004 @ 큰덥물, 함덕이 큰덥인가?

101004 #2 뭐 덕제사 부찌신디 몰라도 큰덥물이엔.

101004 @ 아 큰덥물이엔.

101004 #2 여즈물통잇고, 남즈물통.

101004 #1 큰덥물, 큰덥물 헛주. 요딘 남즈통, 요딘 여즈통.

101004 #2 여즈 나는 디 물 나고.

101004 #1 이디 담당 그자 옛날엔 밧디 강 와도 그디 강 모욕헤 오고. 물이 들면은 짱 아니가곡 물 썩 때는 그냥.

101004 #1 2 유명허지 첨.

101002 @ 기구나예. 이디 함덕은 무신 성씨가 합니까?

101002 #2 거는 이장덜 신디 들어봐시민 알주만은.

101002 #1 우리 생각으론 한씨가 함직해베.  
101002 @ 한씨 하마씨?  
101002 #2 이 이구는 아저, 함덕은 근래 와서 멧 십년은 각종 성이 집결돼난.  
101002 #1 전화 책에 보민 김씨가 하.  
101002 @ 어디가나 김씨가 하.  
101002 #2 게메 뵈이 잇잖여게 김이박이라고. 김이박. 건 한국 성 다 박아진 거.  
101002 @ 특히 함덕에 한씨가 그래도 많이 있구나예.  
101002 #1 한씨 하. 김녕도 가민 한씨가 하.  
101002 #2 쥔 하긴 아메도 김씨가 하. 전화번호책에 보민 훨씬 나타나는디. 이  
디.  
101002 #1 게메 김씨가 하.  
101002 @ 이 동네 옛날부터 무신 성씨가 하낫저 영허는 건 엇구나예?  
101002 #1 이진 엇고.  
101002 @ 경해도 혹시 특별히.  
101002 #2 특별헌 건 엇고.  
101002 @ 선홀은 가난 선홀 안침이가 유명허덴 허멍. 김침이도 많덴.  
101002 #2 그딘 훗수가 얼마 안뵈니까뵈 알아보는 거고. 교래리니 머 이섯자 멧  
집가오 안뵈니까. 함덕이 쥔. 건물도 막 헤노니까 인구가 늘어나불엇어.  
101003 @ 이디 함덕은 주로 무신거 허멍 살아낫수과?  
101003 #2 옛날 뵈 잡곡 농스주뵈.  
101003 #1 옛날에사게 잠데 메웁고, 소에 잠데 썩왕 밧 갈곡, 보리 갈곡, 조갈  
곡, 콩광 거 두 가지, 세 가지 베끼 엇어. 감저도 놓곡, 그거 그거.  
101003 #2 콩도 썩 허고, 야채도 썩 허고.  
101003 @ 할머니 헤난 탕근도 허고.  
101003 #2 아 거 옛날. 그 베추, 무수 아니헐 때. 아주 박헐 때.  
101003 #1 그때는이 놉무일덜도 엇인 때라. 탕근을 주로 주장 삼양 헐지. 겐디  
탕근 못허는 이도 하. 탕근 못허는 이가 못허민 막 두드려불멍 부모네가.  
101003 @ 주로 농사짓고예?  
101003 #1 저 산에 강 낭도 케레덜 강.  
101003 #2 농사도 엇고.  
101003 #1 이젠 과수원 나가난 그자 그런 거 저런 것덜 뵈.  
101003 #2 장사라는 것이 엇엇주. 사람이 곤란헤.  
101003 #1 못 못전디게 살안. 밥 먹기가 곤란헐 뵈 밥만, 보리밥만 먹어져도 좋  
주만은. 우리 그런 야식밥을 안 먹엇주만은 속밥이여, 툄밥이여  
101003 #2 옛날 왜정 때. 공출 막 헤가 부니까. 그때 말을 허민 눈물이 안 나와.  
101003 @ 예.  
101003 #1 그런 때는 우리 혼 열뵈 슬 뵈실거라.



101003 #2 그때가 켈 고비, 해방 직후, 해방 전. 말 못해. 피눈물 나주. 피눈물.  
 101003 #1 우리 열 서너술 난 때주.  
 101003 #2 아이고 아이고 사난 살았주.  
 101004 @ 이 마을 주변에 큰 바위나 굴도 잇수과?  
 101004 #2 함덕은 그런 거 었어.  
 101004 @ 그런 건 었어예  
 101004 #1 내도 었어. 내도 었어.  
 101004 #2 내창 이런 것도. 산으로 내려와야 내가 잇주. 었어.  
 101004 #1 시에레 가는데 베린내 ㄱ뜨디 그런 내덜이, 그 내덜은 어디 화북더레 빠진 내가 이시난 그런 내엔 허주만은 함덕은 그런 거 었어.  
 101004 @ 그런 것도 었고예?  
 101004 #1 함덕도 내가 잇다. 뱀 밧디서 오릿물 터정 저 북춘더레 터져. 그 물이 북춘더레 터져.  
 101004 #2 선홀서 내려오는 것이 뱀밧이라고 이서. 뱀밧. 글로 해서 해동으로 해서 막 나가는 거 그것뿐  
 101004 #1 함덕은 내가 었어 그 내가 해동더레 빠져.  
 101004 #2 것도 우리 조천 관리지만은 그런 내가 터져붙어. 함덕 마을엔 안 들어 오고.  
 101005 @ 이 마을 특별한 기관이나 이런 것이 잇는 게 이수과?  
 101005 #2 무신 기관?  
 101005 @ 옛날에 이서난 거나,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잇고예?  
 101005 #2 건 다 잇고. 고등학교 신흥 요 앞이 잇고, 중학교 잇고, 초등학교 잇고.  
 101005 #1 고등학교 옛날엔 었어났주.  
 101005 #2 조천읍에서 함덕이 어떻사 헤신디 몰라도.  
 101005 #1 신춘중학교 지선 신춘서. 함덕 중학교 이선 요 고두물 더레 이서나고.  
 101005 #2 함덕은 고등학교ㄱ지 다 이시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1005 #1 내 생각으로 함덕 마을이 보통으로 촌에서 켈 크지.  
 101005 #2 켈 크지. 범위가 커.  
 101005 @ 판딘 가민 1리 2리 나누는디  
 101005 #2 이딘 오구, 오구.  
 101005 @ 이딘 오구로 나눠가지고.  
 101005 #2 오개 구. 상당허주. 겨고 요즘 건물덜 막 중국사름덜 투자행 집덜 난디 었이 막 지서불언.  
 101005 @ 호텔도 지섬십디다.  
 101005 #2 아이고 말로 못해. 생각지 안헌 땅에 막덜 호텔덜. 아이고 이 함덕은

무신 승시가 이시디사.

101005 @ 마을이 살기가 좋안.

101005 #2 팽당 백만원이여 뭐여 허난 뭐. 이백만원 아이고.

101004 @ 함덕은 해수욕장이 쥔 유명허주예 아멩해도예.

101004 #2 응 아멩해도 유명허고. 그래서.

101004 #1 콘도 이서부난.

101004 #2 겨난 해수욕장에 건물이 고층 건물 팔층까지 막 지선 땅이 없어 이 쥔.

101004 @ 옛날도 함덕 해수욕장에서 많이 놀아났수과?

101004 #1 해수욕장이엔 안해서.

101004 @ 옛날에 어린 때.

101004 #1 어린 때 해수욕장이엔 현 말 엇어났어.

101004 #2 한모살. 이렇게.

101004 #1 그때는 줌줌행 이십서. 저 이제 해수욕장에 그막 차덜 차고 현 디가 차덜 현디가 종합, 국민학교 집이라 낮어. 집이라 나신디 해수욕장은 엇고 그디 민 짝현 모살 동산이라났어이. 모살동산인디 옛날도 그디 어느디서 전장을 함덕서 완 전장을 헛덴 허여이.

101004 @ 아 전쟁을?

101004 #1 응 전쟁을 함덕서.

101004 @ 몽고군?

101004 #1 몽골, 몽골. 우리가 두린 땐 그땐 함덕이 막 멜을 쳐 거리민 그냥 멜 돌리왕 모살위에 널영 거름허쥔 행 텡기당 보민이 요만씩 현 해골 바가지가 이서 이.

101004 #2 막 이서, 막 이서.

101004 #1 모살 불려가민 그 빼다귀덜이 다 나와 막 빼다귀 한 걸 우리가 봐난. 우리 두린 때니까이 그 빼다귀덜 어떤 거는이 바가지 닳은 것이 서. 조끄만 현 거 이. 거 막 우리가 심언 모살 담양 걸로 장난도 해난. 분시 몰르니까.

101004 @ 계난.

101004 #1 경허명 해난. 해수욕장이엔 현 건 엇어나신디 요 멧년 전에 부떠사 해수욕장 말도. 거기 마라 멜팻, 멜팻 헤여.

101004 @ 멜팻.

101004 #1 셋사심, 큰사심이렌 현 건 팽사동 오름 앞이가 큰사심. 이제 바로 해수욕장은 셋사심 헤영. 해수욕장으론 안해난. 이제는 그런 해수욕장이여 무시겨여 해도.

101004 @ 계난 해수욕장 이신디가 멜팻, 큰사슴은?

101004 #1 또 넘어강 그 모르 넘어 산 저디가 큰사슴.

101004 @ 죽은 사슴은?

101004 #2 건 잊고.

101004 #1 죽은 사슴은 잊어. 죽은 사슴이 영밭인 생이라. 영밭디.

101004 @ 큰사슴 허고 무신 사슴?

101004 #1 셋사슴.

101004 @ 셋사슴은 어디라 계난?

101004 #1 이디 해수욕장.

101004 @ 지금 해수욕장 허는 디가?

101004 #2 그디가 중심.

101004 @ 그디가 더 큰 디 셋사슴이라, 큰사슴 아니고?

101004 #2 응, 큰 사슴은 서모 앞이.

101004 @ 조끌락헌 해수욕장에. 호끔 죽은디?

101004 #2 썩사동 서모 앞이. 그디가 제라헌디.

101004 #1 셋사슴에 멜 그물 등겨왓저허민 막 자주. 그물 임제덜은 멜 타레. 경  
헤낫어 우리 두린 때.

101004 @ 서우봉은 옛날도 서우봉이라낫수과?

101004 #2 아, 옛날부터 저건.

101004 @ 옛날 이름 잊어?

101004 #2 없어, 없어. 저거 서무봉.

101004 #1 두린 때부터 듣는 말이 서무오름. 서무오름 허여. 서무봉이엔 안행  
서무오름.

101004 @ 서무오름?

101004 #2 응 서무오름.

101004 @ 이젠 서우봉 허는디.

101004 #1 서무봉. 서무오름 가자, 서무오름. 이 추석때 아이덜 그때는 옛날덜  
놀레 갈 때는 서무봉에 놀레 가자, 놀레 가자. 이제는 막 질도 좋앗는디 그때는 그  
냥 어레라 만딱 동산 굴렁헌디 허민 저 꼭대기 가민 잔디밭이 췌췌허여. 그디 강  
놀당와.

101004 @ 올라가젠 허민 무신거라?

101004 #1 어레라.

101004 @ 어레가 무신거?

101004 #1 돌팍구덜게.

101004 @ 돌팍덜?

101004 #1 질이 잊인 디라노난 그냥 몽쿨몽쿨 막 오름이니까 내로 만딱 씻어부  
난 이추륙헌딜로 웅통불통헌 딜로 그 일로 트다가고 절로 트다가명 그 질곰이 시난  
그레 올라가.

101004 @ 그계 어레엔 험니까?

101004 #1 것이 어레뵐 건가? 질이 굿이니까. 그 어레로 올라간 영.

101004 #2 질이 엇이니까 그냥 길 형체만 다 돌팍만

101004 #1 질이 엇어. 이 중간에는 그디가 질을 조금 멘드난에 어린아이 국민학생덜은 소풍을 그디만 가. 소풍을 그디만 그디또 산이로 나는 물 닥은 물이 서. 계민 글로 그 물이 이서부난 학생덜 그레 소풍을 가는 거라.

101006 @ 이 마을에 계나 접이나 축 짜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잇수과? 마을 계나 계모임 같은 거 마을에 잇수과?

101006 #1 계모임이 아니고 개인 것이 잇주. 줍, 줍 빠는 거. 두밧딜 거라. 함덕에도 지네끼리 기계로 지네집에.

101006 @ 함덕에 두밧디?

101006 #1 응 두밧디라.

101006 @ 그건 어뎡 허는 거마씨?

101006 #1 거 그냥 이 무신 칙, 칙뿌리라도 앓아가민 그디서 줍 짱 나오고, 이 양파라도 앓아가민 줍 짱 나오고, 염소라도 잡아강 줍 빠 도렌허민 그걸로 짜주멍 나오고

101006 @ 줍 짜는 거 말고 할머니 친목, 계 같은 거?

101006 #2 친목 계.

101006 #1 이제는 그런 친목, 옛날에는 막 하나신디.

101006 #2 상당히 많어나신디.

101006 @ 옛날에 막 하난마씨?

101006 #2 우리 혼 여남은 개 이서낫는다.

101006 #1 막 하낫어. 건디 이제는 헛자 소용 엇주만은 젊은 사름덜도 옛날그치 하지 안헌 거 닥아.

101006 @ 옛날엔 그런 계 허민 뭐헤?

101006 #1 큰 일침이도 막 모여들멍 해주고, 막 해줘. 부주덜토 허곡 막 친허게 생각헿 건디 이제는 그런 일이 드물어.

101006 @ 친촉들끼리 말고 그냥 동네 사름끼리예?

101006 #1 예를 들영 우리집이 잔칠 허쟁 허믄이 동네서가 막 쥘 모여노난. 이 녁 가가리가 다 잇어이. 그릇 씻는 구지, 밥허는 구지. 다 헤영 다 모다들영 돌아가멍 다 해줘.

101006 @ 그릇 씻는 무신거 구지?

101006 #1 구지게.

101006 #2 구미 구미, 조별.

101006 #1 그릇 씻는 구별허고 밥헤주는 던 밥허고. 옛날엔 물도 이런 수도 엇일 땐 물도 질어다 다 줘.

101006 @ 다 계로 헤근에, 계엔 안헿 다른 거엔 곶아낫수과?

101006 #1 친목이엔만 헤.

101006 @ 할머니넨 친목은 멧 개나 들어낫수과?

101006 #1 아이고 많헤낫주. 부모나 죽으믄이 정신이 엇어.  
 101006 @ 거민 한 집이서 친목을 여러개 들어?  
 101006 #1 구미가 으라군데 친목이지. 포 드는 디도 잇고, 포 드는 딴 이디 허  
 여난 디도 딴 고지로 부뜨민 이디도 또 부뜨고. 으라가지가 뉘지.  
 101006 @ 포 드는 건 무신거?  
 101006 #1 지허고 나허고 들어나신디 딴 고지에서 모집허영 일로 세여가민 또  
 나도 이고지에 강 부떠신디 이디 부떠부난 또 포 들어진 거지 들어가. 예를 들령  
 부줄 허젠 허른 이쪽에서도 나가 부주 내어주고 저쪽 고지에서도 부주 내어주고 허  
 난 포든 거지.  
 101006 @ 아 그게 포든 거짜?  
 101006 #2 겹쳐졌다는 거지, 겹쳐져.  
 101007 @ 함덕에 내려오는 풍습이나 다른 마을허고 다르게 허는 거 잇수과?  
 101007 #2 풍습 이런 건 벨다른 거 엇고. 이 함덕에 이렇게 어린 때부터 살앗는  
 디 함덕 마을은 상당히 인심이 좋아. 전라도 사람이 와도 시알이가 없어. 이 조천ㄱ  
 뜰 딴 상당히. 전라도 오민.  
 101007 #1 단체가 세여.  
 101007 @ 함덕이 크고 잘 사는 마을인데.  
 101007 #1 조천으로는 함덕이 유명허게 달벤이 뉘지. 조천 질은, 질도 강 보민  
 이 족아이. 함덕 질은 벨로 불편헌 디가 엇이 흰허지. 조천으론 함덕이 아주 좋지.  
 이녁 마을인엔사 허는 건지 몰라도.  
 101007 #2 아까 말헌 거 전라도 사람이 왔던 미국 사름이 와도 와신가 행 약염  
 을 안헤. 절대 시알을 안헤.  
 101007 @ 잘 살아지난 아니? 함덕 사름덜이 잘 사난.  
 101007 #2 성격 자체가 폐까롭지 안헤.  
 101007 #1 어딘 가든 잘사는 사름은 잘 살고 못사는 사름은 다, 그런대로 살아  
 도 어떤 마을이던지.  
 101007 #2 마음이 좀 여유롭고 순허게 지내어.  
 101007 @ 이디 마을제 같은 것도 지내주예?  
 101007 #1 마을제 지내주.  
 101007 @ 정월에?  
 101007 #2 정월에 서쪽이민 서쪽 ㄲ트머리. 동쪽이민 동쪽 ㄲ트머리. 이런디서  
 허주. 가운데 별로 안허여. 들어오는 동네.  
 101007 @ 거민 4구나 1구에서 헤마씨?  
 101007 #1 포제, 포제.  
 101007 #2 포제라고 헤서.  
 101007 @ 2구는 안헉니까?  
 101007 #1 안허여. 삼구도 안허고 이디도 안허여.

101007 @ 이던 시내구나계, 완전.

101007 #2 하얏튼, 마지막 챗번 이디서 포제를 허여. 그런거 우린 몰라. 말만 들  
엇주. 포제여 무시거여.

101007 @ 바다에 지내는 제나 이런 것도 엇고?

101007 #2 요즘말로 바다에서 해녀들이 단합행 단체가 이서노난 바당굿을 해녀  
덜이 주장행 해부니까 이디 사름은 그거에 관심도 엇고.

10108 @ 함덕에 특산물? 뭐가 많이 납니까, 함덕은?

10108 #1 미깡이 많이 나고.

10108 @ 미깡은 아멩해도 남군 아닌가? 서귀포 남군 이쪽이 하영 나지 안협니  
까?

10108 #1 남군 다음은 함덕에서 나는 거.

10108 @ 바닷고기나 뭐?

10108 #2 바닷고기도 뭐.

10108 #1 이젠 옛날ㄴ치 옛날은 성창이여 무시거여 허는디 이젠 저 방과제 흔  
곤데 가보난 그래도 잘 안가난 어땡 웬지 몰라.

10108 #2 옛날에 고냉이 성창이여 뭐 해서 낮베덜 해서 등 돌아메서 나끄레 텅  
기고 헛주만은 자유당 시절에까진 이섯는디 이젠 그런거 저런거 아무것도 엇어. 성  
창이고 뭐도 다 뭉덜 다 해.

10109 @ 이 마을에 자랑거리?

10109 #2 무시거 자랑거리.

10109 @ 함덕에 자랑거리 뭐가 잇수과? 다른 마을 보다 아까 시알을 안헌다 그  
런거라도.

10109 #2 그런 건 좋아. 차별 안허고 원 절대 없어. 어디 외국이 왔든 전라도가  
왔든간에.

10109 #1 자랑거리는 마을도 크고.

10109 @ 땅도 비옥헌가마씨? 농사도 잘뵈고?

10109 #1 이 북춘으로 갈랑 또 이거 저 진드르렌 땅이 좋거든. 북춘드레 가민  
땅이 죽아이. 이젠 때가 좋아서 포크레인으로 막 밀멍 그걸 밧을 멘드난 헛주. 이  
함덕 뽕밭이엔 헌디 넘어사믄 토지덜이 막 좋아. 크고.

10109 @ 널르고.

10109 #1 조천드렌 가민 땅이 너미 찼해, 춘흑이라서 세여.

10109 @ 그믂 농작물이 잘 안 자릅니까?

10109 #1 돼기 돼는디 세여. 일허기가.

10109 @ 일허기가 굿어.

10109 #1 돼긴 돼는디 일허기가 세여. 비 오라냥 이삼일만 시민 땅이 캉캉 해불  
민 검질 매기도 굿어. 그런 것이.

10109 @ 근디 함덕은 틀려?

10109 #1 함덕은 조천 바른 디만 그런 땅이 있지 이레 가민 뜬질 허꺼져부난  
검질이 매기가 좋아.

10109 @ 뜬질?

10109 #1 뜬 땅. 뜬 땅. 반질레기.

10109 @ 반질레기?

10109 #1 촌혹도 아니고 뜬 혹도 아니고 허난 반질레기 웨민 곡석이 잘 웨여.

10109 @ 아 거난 함덕이 반질레기라?

10109 #1 반질레기 땅이 하. 일로 서쪽더렌 함덕 지경이라도 서쪽 더렌 가민 흐  
꿈 땅이 세여이. 요 우트렌 가민 땅이 연허고 요만씩헌 잡티도 막 하고.

10109 @ 땅이 좋구나예?

10109 #1 김녕 더레도 가민 땅이 좋아.

10109 @ 김녕도 좋아마씨?

10109 #1 김녕도 땅이 좋아. 북춘, 동북더레가 땅이 빌레 끝에 웨연 빌렛드르도  
웨서 땅이 흐꿈 곳주, 김녕도 가민 땅이 좋아.

## 2 제보자 일생

102001 @ 할머니는 함덕에서 낳고 자란 거잖아예 할머니 어렸을 때 멧 남매파?

102001 #1 우리 성제. 언니허고 나뿐.

102001 @ 둘 뿐? 옛날인디 경 죽아?

102001 #1 아버지가 인척 돌아가셔불언.

102001 #2 이사름 임신된 때 돌아가불언.

102001 @ 아버지 얼굴도 못 본철?

102001 #2 뱃속에 잇는다.

102001 #1 불쌍허게 자랐지.

102001 @ 게메.

102001 #1 우리 찌시 동생이 하나 잇지. 큰 아버지 아덜이 우리 문딱 초상덜 다  
이장혜영 공동장 혜영 이장허는 디도 못가왔저. 병원에 간 살아부난. 꼭 보젠혜신  
디.

102001 #2 팔십육년 만이 일어난 아버지를 못뵈. 수술행 와부니까.

102001 @ 아 이장힐 때 강 아버지 보젠혜신디.

102001 #2 임신 웬 때 돌아가불어시니까. 그 하르방을 볼 건디 못뵈.

102001 @ 가도 관베끼 더 뵈니까?

102001 #2 아니 글썽 믋음이 어디라. 스춘 오레비가 양으로 들어사서 뭐 정정당  
당허게 잘 보니까.

102001 #1 혼뱃동기간 보단도 낮고.

102001 @ 스춘인디?  
102001 #2 아, 양으로 들어사니까.  
102001 #1 누님도 안 버리젠 허고 동생도 나도 안버리젠 허고 게 먹을 것도 시  
민 그레 줄줄 가정 가도 먹을 거 시민 누님 읍서허영 그냥 가고.  
102001 @ 언니는?  
102001 #1 언니는 돌아가고. 돌아간지 혼 십년 됐저.  
102001 @ 멧 살 차이파?  
102001 #1 두술 차이. 이제 살아시민 으든 으답.  
102001 @ 쌍둥이처럼 자라시켜예?  
102001 #1 언니도 잘 살아.  
102001 @ 함덕 살아났수과? 언니도?  
102001 #1 언니도 저 삼구에 살고.  
102001 @ 다 조곳디 살아났구나예?  
102001 #1 언니도 아기가 칠남매 나도 육남매. 성제 난 것이 어디 외하르방 식  
게 때민 잔칫집 닳아. 외손지가 기냥 말도 못허게 하. 외손지에 거려가고 가쟁이 끼  
꼭 허민 잔칫집 보단더. 아버지가 아기는 못나도.  
102001 @ 계난 두명 베끼 못나도 자손이예  
102001 #1 경헌디 오레비가이 아덜이 다섯개 딸이 세 개.  
102001 @ 어느 오레비?  
102001 #2 양으로 양으로 양자.  
102001 #1 큰 아버지 아덜. 우리 짝시 오레비가. 아덜 다섯개  
102001 @ 양자 온 거? 그디가 어땡?  
102001 #1 큰 아버지 아덜이 아시, 아시 짝시로 논 거라. 거난 그 아덜이 아덜이  
다섯 개 딸이 네 개.  
102001 @ 아.  
102001 #1 거난 우리도 나도 육남매, 언니도 칠남매 계난 말도 못헤. 하. 누게  
말적 옛날 어른 동네국이나. 우리 천지라.  
102001 #2 겐디 처아주망네도 경 돌아가고 우리도 처아주망도 계시주만은 남자  
부부잇영 가정 생활 허는 집인 우리 둘밖에 엇어. 현재.  
102001 @ 할아버지덜 돌아가션?  
102001 #1 이다 다 죽어불언. 언니덜이, 밑에 스춘 언니고 스춘 동생이고 다. 엇  
어 우리 둘이만 살아잇주.  
102001 @ 보통 남자들이 빨리 죽드라고 마씨.  
102001 #2 현재 이 시간 까지는. 육남매고 팔남매고 상관엇어.  
102001 @ 켈 어른이구나예? 할아버지가예?  
102001 #2 아직은 같이 밥을 먹고 살아오니까.  
102001 #1 동네서도 누게가 영 이녁말이 아메도 후회 반앙 산 일이 엇어이. 놈



안팎 저거 아이고 저 사름 저거 허여 보진 안헛주. 저사름 애기엔 한다, 저사름 애기덜 영 허엿젠 현 말이 엇어.

102001 #2 우리 노인당에서 할망 하르방네 꼳작 산 건.

102001 #1 저 어른네 그추룩 복 존 어른은 어디서? 복은 무신 복게, 나영 글명.

102001 #2 우리 고생은 많이 허고. 그자 삼시 먹고 살안.

102001 #1 육남매라도 그자 비방케 잘 살지도 못살지도 안허영 그자 이제까지 나가 팔십으섯 나도록 살앗자 어머니, 아버지는 앞이 돌아가시는 거 봤주이. 외손이고 이녀 손지고이.

102001 #2 아직은 짝 엇어.

102001 #1 짝이 엇은 게 아니고이 죽으는 걸 나눈에 붓 보여서 안죽. 경헌디 우리집 저 바끄레 아덜 말이 어머니네까지 어머니 하나로 외손이고 징손이고 거려논 게 오십두명이렌.

102001 @ 하하하

102001 #1 계난 수정이 안할 수가 이서? 잘도 세연.

102001 #2 마라도 뭐 차 대절행 가난 운전수가 노래어. 이거 혼 가지파. 혼 가지주. 허허허.

102001 #1 계난게 나 혼나 거린 것이 사우, 손지, 징손 끼와 가난에게 씀 두개엔 허난.

102001 #2 큰 사우만 못 왓주. 일혼 하난디. 아파부난.

102001 #1 나가 영 뉘도 사우덜이고 딸이고 하나 짝 글른 것도 하나토 엇어.

102002 @ 집이 펜안허연예. 할머니 옛날에 어머니는 주로 무신일 허명 살아났 수과?

102002 #1 그때도 그게 그거라, 그때도. 이 나 곧듯이 현 일이.

102002 @ 농사짓는 거?

102002 #1 농사 게, 당신 혼자 옛날은 그것 베끼 엇지. 글갱이질 허고 뎡기당 또 탕근 허민 그자 장, 오일장허난에 오일째에 또 탕근 헤영 그거 다 멘들양 장날에 풀레 갈 여산허곡.

102002 #2 상당히 박헌 거주.

102002 #1 박힘이나 마나. 그뎡 다. 것도 허난 헛주 못헌 사름이 천지라.

102002 #2 요즘 일당 오만원 머는 게 펜안헤.

102002 #1 그뎡 그런 것이 이서게? 탕근도 못허민 어멍네 안팎 육만 들영 살앗주.

102002 @ 어머니 혼자서 둘이 다 키운 거 아니, 힘들어서켜예?

102001 #1 무신 힘들어게. 그냥 그런대로 밥만 먹으면 살아지는 거난. 공불 시켜서, 무시겨 해서? 이제까지 무슨 중학풀 시켜서, 대학풀 시켜서, 국민학풀 시켜서? 어둑을 때. 우리도 어둑으난. 그때는 학교 강 입학증설 때 와사 나가 학교 들어갈 건디 입학 증서 떼오고렌 허난 돌아난 곱아불언. 쉼막 소곱에 강 곱아부난 그때

도 공불 헐 거주만은 못헌 거라. 시기 놓천.

102001 @ 할머니가 곱아불언? 무사?

102001 #1 곱아불언. 안허켄 두런 명칭헌 생각으로.

102001 @ 누게 가지 말렌 굴읍디가?

102001 #1 아니라. 아닌디 명칭허게시리. 학교 간 입학증설 떼레 간 떼오고렌 허난 그냥 도망간 곱안 노시 안나완 못허연. 이녁냥으로도 명칭헌 생각이나.

102001 @ 가민 어떻헌텐 누게가 근 거 아니?

102001 #1 몰라 어떻사 헤신디. 간세주게. 무시것도 옳이 그자 고망에덜만 살안 어디 탕겨나지 안허난 두루헌 생각으로사 아니사 헤신디.

102004 @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잊수과?

102004 #1 기억나는 거 잊주게.

102004 @ 주로 어렸을 때 뭐 해낫수과?

102004 #1 어명이영 들라아정 밧디 가는 거허고, 어멍 오즘허벅 저근앵이, 옛날 엔 오즘항 반앙이 큰 향아리에 오즘을 물러이. 거름이라 것이. 이제 물허벅 닳은 걸로 지어 앳앵 밧디 강. 들라아정 강. 그거베피 잊어.

102004 #2 도야지 인분 맥이멍 도야지 길르면서. 그런 시절을 다.

102004 @ 게믄 어므니 밧디 가민 집이서 무신거 헤?

102004 #1 할망 조름에 밧디 들랑 가지. 가근에 그냥 자파리 허지. 돌멩이도 주성 자파리 허고 검질도 하나씩.

102004 @ 어므니앵 밧디 강.

102004 #1 밧디 들랑 가.

102004 @ 밧디 강 무신거 허여?

102004 #1 게메 그거 베피 잊어. 돌멩이 주서당 소꿉장난 ㄱ추룩 그거 앳앙.

102004 @ 언니앵 돌리?

102004 #1 언니는 일 허고. 두나 차이니까.

102004 @ 친구들이앵은 안 놀아?

102004 #1 아이고 친구가 어디 서?

102004 #2 아이고 한글허앵 먹어져사 친구가 잇주.

102004 #1 맞아, 우리는 그런 생활을.

102004 #2 옛날말은 피납, 피납. 한탄헐 정도주.

102004 #1 우리뿐 아니. 더 느나 잊이.

102004 @ 어렸을 때 할머니 아이덜이앵 곱을락도 공기놀이도 허고 이런 것도 허지 안헐?

102004 #1 땅뵈기도 허곡 베틀레기도 허곡 그런거 헛주게.

102004 @ 어떤 거 어떤 거 해낫수과?

102004 #1 영 네모나게 영 기러 낱 땅뵈아먹을라기 허고, 무신 그릇 벌러진 거 곱닥허게 동글락허게 돈ㄱ짜 멘들앙 돈치기ㄱ추룩도 허고. 다헤낫지. 베틀레기도 허

고. 원 그릇 벌러진 거 봉가당 소꿉장난 어디 세간살이 행 영 막 솟 앓정 무신거 멘드는 척 다허고, 벗들이영.

102004 @ 소꿉장난?

102004 #1 그거 이제 것덜은 정 멋진 걸로 허는디 그뎨 그릇 벌러진 거 봉가당 다허여.

102005 @ 일본 시대에는 켈 힘든 게 공출인가?

102005 #2 닥쳐 본거니까.

102005 #1 공출허는 것도 우리도 시원하게 몰라. 헤가는 거 우리 육은 후제 보리 막 털어가부난 이디 함덕 막 부랑헌 사름이, 중식이, 문딱 앓당 곱져도 무시거 곱진 거 훗아냉산디 신아징이엔 헤네이 먹으로 영.

102005 #2 장재문이주.

102005 #1 장재문이파? 요 뒷어멍네 살아난 집이 중식이. 중식이주. 영 신아징이엔 행 시엄을.

102005 #2 먹으로게.

102005 #1 경 몽니 부리멍, 질랑 늙으 거 다 털어 먹으멍 그 못웬 짓거리헌 사름이 이서. 해방웨난에 자연적으로 그냥 이추룩헌 몽덩이에 못 박앙 그놈을 막 때려 죽어붙어세.

102005 #2 유명허주.

102005 @ 공출은 주로 뭐 험니까?

102005 #1 보리.

102005 #2 가마니에 무경 시경.

102005 #1 감저도 농앙 썰영 물령 빼떼기 멘들앙 막 이 함덕 국민학교 신 뎨 그냥 오름만씩 막 큰 저 오름만씩 데미고. 경헤난. 이제 ㄱ찌 더끌 거 가빠덜이라도 조민 허주만은 막 헤다낱 기낱 쟈기멍 걸 경 못전디게.

102005 #2 공출이란 거 말 못헤, 에이구 덜루와.

102005 @ 함덕 이구에서 얼마만이 바찌라 허민 다 모여근에 내는 거?

102005 #2 아니 아니, 그 집이 농산물 다 조사허멍. 가마니가 멧 가마니 잇다는 거 다 조사허여.

102005 @ 그민 우리 보리헤네 열가마니 농사헤네 헛다 허민?

102005 #2 다 바찌.

102005 @ 우리 먹을 건?

102005 #1 거 털어가부난에게 하간 거이 양식이. 거 곱져 탕기당.

102005 @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엇인게.

102005 #1 엇주만은 헤야주. 경허당도 어떻 이녁 먹을 것도 어떻 어드레. 경허멍 살앗주.

102005 @ 일본 시대 때 다른 거 기억 나는 거 엇수과?

102005 #1 엇어. 우리 두려부난 몰라. 들은 말 우리, 저 조천 선두엔 현디 군대

완완 댓저 무시거 현말 베끼 몰라. 일본 배 텅길 때 것도 짐녕 내사 간덴 헤네 일본도 가났주.

102005 @ 일본말도 배우고 헤냏주예?

102005 #1 아니 학교 안 간.

102005 #2 학교 안헛주게.

102005 @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 영 허는 건.

102005 #1 그때도 바꾸라헌 일 엇엇어.

102005 #2 나가 일본 글 다 배완 졸업헛주.

102005 #1 몰라, 일본 글도 몰라.

102005 #2 나가 함덕 국민학교 졸업헛, 이훤디.

102005 @ 함덕 국민학교 2회?

102005 #2 이회. 열여섯에 졸업헛연.

@ 아 늦게 졸업헛구나. 어뜨난 2회가 헛수다.

102005 #2 열설에 들어간, 열설에.

102005 @ 열설에 들어간.

102005 #2 육년허니까 뒷헤 열일곱설에 헤방웁. 소화 4년 일인디 천황폐하가 우리보다 같은 연수겜. 이 일본에, 천황폐하 이마까미 덴노, 다 배운 거. 육년 배운 거 다 나무아미타불.

102005 @ 할머니 야학 같은 디도 텅겨판?

102005 #1 텅기당 그자 실평 간세헛 안헛 돌아텅기멍 장난 허는 디만.

102005 @ 무신 장난?

102005 #1 이제도 장난허렌 허민 잘 허크라.

102005 @ 계난 무신 장난?

102005 #1 그때도 무신 장난 셋주게. 곱을레기도 허레 돌아텅기고, 막 무시거 것 ㄱ라 무신거엔, 단수께도 허고 무시것도 허고.

102005 @ 단수겐 뭐파?

102005 #1 막 곱을락헛 돌아 텅기는 거.

102005 #2 손 잡아심서.

102005 @ 아, 그계 단수께. 일본말 담다예?

102005 #2 일본말게 단수께. 다수겐 살려도렌 말이고 단수겐 손을 잡으라 허는 말. 단수께. 옛날 말 다 나오네. 말허민 다 알아먹어. 건디 이제 그것이 잊어불언. 일본책을 보고 잇는디 글 베왔다고 말 못헤, 가다까나 히라까나도 다 못 써.

102005 @ 오래뒀수게게, 몇년이파게?

102005 #2 칠십년.

102005 @ 칠십년 계난 어떻 안 잊어불니까, 칠십년이 지나신디 계속 써야 안 잊어불주.

102005 #1 이젠 여녕이 잊어불때가 뒀주. 저 하르방 곱앙 놔두민 편편.

102005 #2 뇌 약을 먹어도 안들어. 금방 가당도 멍 허영 샷당.  
 102005 #1 영 말 곧 때 만이주, 저 하르방 말 못 들어.  
 102006 @ 계민 사삼사건 뎨?  
 102006 #2 이 사름덜은 잘 몰라.  
 102006 #1 우린 여즈니까. 여즈니까 그때는이 이 사름이 보춤막이 서이. 그거는  
 열아홉 뎨 때니까 골목골목 마다 영 보춤막 이신디 보추 서렐 가.  
 102006 @ 여자들도?  
 102006 #1 응, 보추 사례 가민 증거가 뭐엔 허문이 대차, 그 대 까깁 영 칼꺾  
 영헌 거. 그걸 하나씩 주고 보추 사례 가렌 허여. 계민 붉으민 오고.  
 102006 @ 보춤막에 가근에 상 이서야 뎨여?  
 102006 #1 그디 가도 그 초숫막에 멧 시민 가와리허멍. 그 가름 가운데 무신 폭  
 도가 들어오카부덴사 헤신디사 그뎨 경헤서.  
 102006 @ 다른 동네 사름덜도 이디 헤벤이란 옷드르 사름덜도 왓주예?  
 102006 #1 응, 우리 그때 당시는 조천서라이. 임시 조천 간 때니까 스삼사건 끝  
 나갈 무렵에 해방된 무시거헌 때. 그때는 우리 측은 다 가름 가운데 골목 골목마다  
 초숫막은 지서나난 그걸 다 지켜사. 경 무시거 허게는 안 헤도.  
 102006 @ 그뎨 할아버지영 결혼 안헌 때?  
 102006 #1 응, 남즈덜은 이제 성다운 바우에 초숫막에 남즈덜은 하르방덜은 다  
 직허고. 우린 가름안네서. 이상헌 세월 다.  
 102006 @ 계난예. 사름덜 죽고 헌 것도 봐납디가?  
 102006 #1 그런 건 안 봐보고.  
 102006 #2 난 다 봐신디.  
 102006 @ 어떻 꺾든 동네 안 살았수과?  
 102006 #2 동네 살아도 말 안허여.  
 102006 #1 말을 헐 리가 서게.  
 102007 @ 계난 할아버지영 할머니영 어떻헿 결혼헿디가?  
 102007 #1 중진허난.  
 102007 @ 누계가 중진 사수과?  
 102007 #1 동네사름이  
 102007 #2 아니, 처부님허고 우리 아부지허고 사둔, 사둔 동네서 농담이 진담뎨  
 여.  
 102007 #1 딸 줍서, 사우 줍서 허멍.  
 102007 @ 계난 결혼허기 전이도 알아났수과?  
 102007 #2 알긴 다 알주.  
 102007 @ 얼굴은 알고?  
 102007 #1 이디서민 노인당 거리만이 살아시난.  
 102007 @ 집이 가까운 집. 계도 말은 안헤보고?

102007 #1 말 혈일이 엇주게.  
 102007 #2 절대 말 안허여.  
 102007 #1 그때까지 이 그때도 옛날이라서 경 해변지게 탕기지 안힐 때주. 놀레 영 막 부수탱겨도.  
 102007 @ 남저덜은 고치 안 탕겨?  
 102007 #1 다른 남즈덜은 탕겨도 이 남즈는 우리 노는 디 아니 와났어.  
 102007 @ 이 남자는 우리 논는 디 안 완난?  
 102007 #2 난 안 탕겨난.  
 102007 @ 무사 할아버지 키도 크고 멋져나실거 님은디  
 102007 #2 견디 여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가 물러. 여성이 대화 말을 못해.  
 102007 @ 할머니 막 요막져나실거 님은디.  
 102007 #2 에~에~ 똑 님아.  
 102007 #1 놈헌다 허는 것은 축삭거렁.  
 102007 #2 농담해 봤주. 어디 동네서 말 혼마디 안헤봐신고 헤근에. 그런 말을 나가 해반.  
 102007 #1 심심헌디 어디 가젠 허민 이 할망을 문여 첫자 봐. 어디 가는 디라도  
 102007 @ 할머니가 잘허난게.  
 102007 #1 잘허고 못허고 몰라도 그냥 문여 아정 꺾어아정 가.  
 102007 #2 아무튼간에 이구에서는 이할망이 같은 여녕에서는 귀도 뚫고, 동작도 빠르고.  
 102007 #1 질 빠르고 아직은 이 다리도 안 아프고.  
 102007 #2 수술만 안 헤시민 더 썩썩헤실 견디.  
 102007 #1 정월로 이레 계속 병원생활만.  
 102007 #2 게도 약 먹으난 살암서. 약으로 살아. 명 길주.  
 102007 #1 이디 영해도 글렌만 허는 거라.  
 102007 @ 할머니가 잘 허난. 성격도 좋으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네.  
 102007 #1 노인 모임 허는디 저 한라 체육관 ㄱ뜨디 강 들을락도 헨 북군에서 일등. 상 타완.  
 102007 #2 북군서 일등헐어. 상 이서.  
 102007 @ 달리기 잘 허는구나, 할머니가.  
 102007 #2 북군서 일등. 그건 자랑힐 만허여. 북군서 일등헤시니까.  
 102007 #1 에에.  
 102008 @ 중진살 때는 사주 뺑 허는 거주예?  
 102008 #1 봐야지.  
 102008 #2 장인어른이나 우리 아버지는 친한 성 아시 허는 철이라부난 그것이 농담 비슷이 허다가 것이 성취가 뻬는디. 중진 볼 정신이 엇엇주.

102008 @ 사주 같은 거 안 봐?  
 102008 #1 무사 안 봐.  
 102008 #2 보기사 보는 체 헛주만은. 구두계약이 웬 거. 동네, 불과 오십메다도 안웬 디 살아시난  
 102008 #1 구두계약 댜텐 뵤니까? 게도 어느 정도 맞이난 뵤주. 그만 곱읍서. 구두계약 뵤텐 게민 다 사둔 헛니까? 대충을 맞추난 뵤주. 말 허지 맙서게. 하르방 말 곱아부난 더 말이 하.  
 102008 @ 어떻 안헛니다. 옛날 말 곱명 재미나지 안헛니까?  
 102008 #2 비우가 엇어노니까 남펜신의 공격헛 땀 요망진디.  
 102008 @ 다른 디도 완전 요망질 거 님아 할머니 말 곱는 거 보니까예  
 102008 #2 남안피 물리진 안허여. 나가 뵤 할망 칭찬 허는 것이 아니고. 들음박 질도 북군서 일등헌 건 사실이고.  
 102008 @ 할머니 요기 아파신디도 들음박질 해저?  
 102008 #2 이십년.  
 102008 @ 수술허기 전이.  
 102008 #2 이십년 전.  
 102008 #1 계속 가. 그냥 게이트볼치레도 일 년에 두 번씩 체육관에 가곡.  
 102008 #2 널도 못해도 글렌 허는 거 봐.  
 102008 #1 안 가켄 해도 글렌만 헛시난게. 심어간, 노인당에 심어간.  
 102009 @ 할머니 시집올 때 무신거 헛 옹디가?  
 102009 #2 없어.  
 102009 @ 아무것도 안 가정 와십디가? 그래도 이불은 헛 와실거 아니?  
 102009 #1 이불 두 개허고, 요 두 개허고, 베개허고. 옛날은 궤.  
 102009 @ 아, 궤도?  
 102009 #1 저런 거울.  
 102009 @ 경대?  
 102009 #1 경대, 제그만 헌 거. 저추룩 크지 안헌 거.  
 102009 @ 할머니 경해도 부제칩이네, 궤도 헛 오고.  
 102009 #1 부자명 말명 다 그때는 다.  
 102009 #2 우리 장모님이 홀로 살명 정말 좋은 어르신이주.  
 102009 @ 할머니가 처녀 때 벌어근에 헌거?  
 102009 #2 무시거 벌어?  
 102009 #1 어떻 번 것이 뵤 번 거고 뵤 번 것이 어떻 번 거지, 그때는. 그때는 시집 안 가니까 어제식으로 탕근허명 다른, 이제 그추룩 늙의 일도 안허고 헛 일이 엇주. 느나 헛 거 엇이. 그거 헌 사름은 돈을 문직아서. 늙 꾸아도 주고. 돈 모뵤다 근에 밧도 사고. 밧이 두 개나 샳주. 조천도 하나 잇고, 함덕도 큰밧 저 해수욕장 즈끗디.

겨난 어머니가 또 우리를 밧을 사준 거라. 시집간 살아가사 또 생각행. 언니도 밧 사주고 나도 또로 밧사주고.

102003 @ 계난 친정 어머니닌 고향이 어디?

102003 #1 조천계, 조천.

102003 @ 아 친정 어머니가 조천. 응 겨난 조천 왔다 갖다 허고 함덕도 완 살고 영 헨거구나예. 계난 할아버지안틴 뭐 받아수과? 시집을 때.

102009 #1 무시거 받아. 아무것도 받은 거 엇지.

102009 @ 뭐 헤줬주예, 할아버지. 안헤줘수과?

102009 #1 뭐 헤줘, 무시거 이서? 아무것도 엇주.

102009 @ 가락지도 안 헤줍디가?

102009 #2 가락지.

102009 #1 그런 거 엇어 그땐.

102009 @ 옷은 한벌 헤 줘실거 아니파?

102009 #1 응 옷은 다 죽은시어명이고 예를 들렁 다 난 안 받았지만. 시누이도 밧에라부난 안 받고 죽은시어명, 셋시어명덜은 다 헤줘. 그런 거.

102009 @ 옷은예.

102009 #1 옷은 다 헤줘.

102009 #2 우린 그런거 무관심헤부난 모르크라.

102009 @ 무신 천으로된 옷 헤줍니까?

102009 #1 양단에 아래는 유동치메.

102009 @ 아 유동치메, 유동치멘 무슨 색이파?

102009 #1 잉꼬 색깔.

102009 @ 거멍헌 거?

102009 #1 잉꼬 색깔이니까 저 색, 저 색보다 더 진헌 거.

102009 @ 진헌 퍼런 색.

102009 #1 그것에 우이 분홍예. 분홍 양단.

102009 @ 우엔 양단, 밑에는

102009 #1 잉꼬 색 치마, 양단, 저.

102009 @ 유동치메.

102009 #1 유동치메.

102009 @ 거 혼블허고 다른 건, 다른 옷은?

102009 #1 신발허고.

102009 @ 신발은 어떤 신발? 고무신?

102009 #1 고무신인가 몰르키여. 신발허고 보선허고 이디 아래 바지 이제ㄴ찌 무시거시 아니라. 그냥 옛날 바지, 영.

102009 @ 속바지?

102009 #1 응 속바지 그런 바지. 또 선사옷 받는 거는 치마저고리만 받고 시어



멍 해주는 거는 속내의 깎지 다.

102009 #2 아이고 옛날말 헤보민 무시거.

102010 @ 아. 결혼식은 어디서 헨마씨?

102010 #1 결혼식? 집에서, 집에서. 시집이 오고 사진 찍으는 것도 엇어.

102010 @ 사진 찍으는 것도 엇어. 무사 옛날 마당에서 찍고 헨 게 만든?

102010 #1 옛날에 그 땐 사진이 벨로 엇어. 어둡언.

102010 #2 가메도 아니고 그자 걸어갔다.

102010 #1 보더부난 가메도 안타고.

102010 @ 가메도 안 타고.

102010 #2 십메다 거런데, 십메다.

102010 #1 게도 멘사폰 이서서.

102010 @ 멘사폰 헤수과?

102010 #1 멘사포 썬에 그냥 이집이서 이집이 온 뿐.

102010 #2 결언, 결언. 결음으로 끝. 그것이 기념.

102010 @ 신부 들레도?

102010 #1 들렌 갖지게. 요쪽에서도 사름이 가고 저쪽에서도 사름이.

102010 @ 우시도 헤근에 가긴 헨?

102010 #2 형식은 헨. 결언.

102010 #1 형식이 아니고 건 그때는 옛날은 예를 잘, 예를 막 출린 거라. 이쪽에서도 우시 가고 들러리 가고 저쪽에서도 또 문 출령 가고.

102010 @ 계난 신흔 살림은 어디서 헤수과?

102010 #1 기냥, 기냥 군인 가불어서.

102011 @ 아, 할머니가 할아버지네 집으로 시집완. 그 할아버지네 집이 살안?

102011 #1 바끄레.

102011 @ 바끄레, 그디가 이딘 아니고?

102011 #2 아니, 아니.

102011 @ 살아신디. 바끄리 사는디.

102011 #1 살단 군인 간 완.

102011 @ 멧살에 결혼헙디가?

102011 #1 스물 혼 살에.

102011 @ 할머니 스물한 살, 할아버지 스물두 살에 결혼헤신디. 얼마만이 군대 가불언?

102011 #1 그냥 얼마 엇영 가불언.

102011 #2 육이오 일어나불언.

102011 @ 육이오 일어나불언.

102011 #1 일년 전이 군인 가실 결, 일년 전이 갖지.

102011 @ 일년 돼기 전이?

102011 #2 육이오 일어나부난 방위 소집헐. 말을 못헤.  
102011 @ 그른 할머니 혼자 시집이 살안?  
102011 #1 시집이도 살고 친정에도 갖다오고. 갖다 왔다, 갖다 왔다 허당 살단 바끄리서 시집생활, 시집간 살던지가 딱 십일 년 만이 시집 베끗되 나와서.  
102011 @ 집 지선에?  
102011 #1 집 산. 이제난 집 짓기가 쉽주, 그때는 집 짓기도 어려와. 목은집 살 단디덜 요디, 요디덜 집 지신디 그디 산완 살단. 이젠 또 그 때는 요집도 큰집이라 서. 그집 풀아뒀에 이디 산완 살단 이젠 또 멜란 데껴뒀 이젠 이집 지선.  
102011 #2 이디 온디가 근 오십년 뵈나?  
102011 @ 아,  
102011 #1 스십팔 년.  
102011 @ 이집 지성 온 지가?  
102011 #1 아니, 짓기 전이 이 땅에, 이 터에 온 게.  
102011 @ 이 터에 온게.  
102011 #2 계난 아주 아득허주.  
102012 #1 이집이 완에 난 것이 마흔 으답.  
102012 #2 막내 아덜이 이제 마흔 으답인가?  
102012 #1 스십팔.  
102012 @ 큰 아인 멧 설이파?  
102012 #1 저거 쉰 다섯.  
102012 @ 딸은?  
102012 #2 딸은 예순 넷,  
102012 @ 큰딸이 예순 넷.  
102012 #2 셋딸은 예순, 죽은 딸은 마흔 다섯, 막내.  
102012 @ 마흔 다섯. 막내영 동갑이구나예.  
102012 #1 막둥이가 마흔 다섯.  
102012 @ 이디 앞이 사는 게 큰 아덜?  
102012 #2 응, 큰 아덜이 쉰 젊어.  
102012 #1 딸 두 개 나뵈 거 난거.  
102012 @ 아 우에 딸 두개 나뵈 아덜.  
102012 #2 아덜 안 나부난 막 구속 받안, 피눈물 난.  
102012 @ 아덜 안났덴 뤼렌 글읍디가?  
102012 #1 딸 두개 낳단 아들은 세 겐 나난 할망이 므슴이 노릇헐주.  
102012 @ 아, 딸 둘에, 그다음 아들 셋에.  
102012 #1 응, 말째도 또 딸.  
102012 #2 딸 하나.  
102012 @ 딸 하나. 아 그른 딸 셋, 아덜 셋이네예? 딱 좋네예. 55:18

102012 #1 딱 졸 거 무시거게? 아니 허긴 좋아. 일로도 읍서, 이레도 그릅서 저레도 그릅서허난에. 이제 난 경해도 아덜 두 개만 낫주, 두 개 낡 더 나지 말렌해도, 최소한도 세 갠 나사주. 난 아기 하영 나는 것만 좋아베난 두개 더 낡게 허주 세 개 이상 낡게 허주. 세 개 이상 나서 이제 손지덜도.

102012 @ 계난 여섯 오누이에 아이덜이 다 세 명씩 난? 세 개 이상씩?

102012 #1 바끄레만이 것도 아덜 못 나부난이 딸 세 개에 아덜 하나. 경해부난.

102012 @ 이던 네 개?

102012 #2 네 개. 막둥이 이제 군대 갓다와서. 막둥이도 스물두 설 제대허영 와서, 해병대.

102012 @ 어제 학생 보연게 만은?

102012 #1 손지가 네 개. 학생은 죽은아덜 군인 가온 거. 이디 아덜. 학생 봐저렌 현 건, 군인 간 온거 이제 스물 둘

102012 @ 경 나이든 아이라낫수과? 난 어디 고등학생인가 헤신디.

102012 #2 오고 나와서.

102012 @ 어제 자전거 타근에 오길래 난.

102012 #2 오고 나완 바로 해병대 지원헨.

102012 #1 해병대 간 완 올 스월덜에 완.

102012 @ 큰 아덜에 손지, 큰 아덜에 아덜.

102012 #2 아덜 막둥이. 막둥이가 스물둘.

102012 #1 계난 저 아덜이 손지가이, 외손지가 네 개라.

102012 @ 젊은 할아버지네.

102012 #1 응 아덜 손지가 세 개. 딸 하나. 손지가 네 개.

102012 #2 아덜은 흥나씩베피 엇어. 다 막둥이. 큰 거, 셋 거 헐 거 엇어.

102012 @ 아덜 나지난 좋주마씨게, 딸만 이신 집도 한다.

102012 #2 게메 우리 셋메누리 멧 설에 봐신디 모르크라.

102012 #1 마흔셋에 죽은딸이 중학교 일학년 뉘사 그 새에 똑 것이 나완. 경헌 것이 이제 으덜설. 막 켌. 막 착허여. 이제 흥뽀 이시민 학교 갓당 할망 신디 와서. 지네 어멍아망이 집이 엇어부난.

102012 #2 겐디 일학년덜이 한문 시험덜을 다보니.

102012 @ 이제 마씨?

102012 #2 방 와. 어떻헨.

102012 #1 시에까지 강 방 와.

102012 #2 하나 틀린 거 닻덴, 한문. 거 시험본거 다 적어 와서라. 지 아방이. 와 일학년이 이런 걸 다 보나. 첨 벨놈으 세상 다 나왔저. 계난 그 손지가 허는 말이 하나 틀령 이점 감점 뉘젠. 구십팔점 나올 겨우덴. 거 어떻사 헨디 요즘 아이덜 막 벨라저.

102012 #1 지냥으로 잘 알암신게.

102012 @ 할아버지 이수다만은 옛날에 시어머니 시아버진 어떻 헤낫수과?  
 102013 #2 아덜 못 나부난 구속 받안.  
 102013 @ 시집살이 하영 힘들게 헨?  
 102013 #1 힘들어.  
 102013 #2 힘들엇주. 눈물 찰찰 나. 아덜 못나부난.  
 102013 #1 아덜 못난 것이 아니고 할망이 착허여 재고. 게난 눈에 맞질 안허여.  
 102013 @ 무사 할머니만만 허민 돼주.  
 102013 #1 할망이 곱을 말 아니고 흐뎡 놉으 정신을 가져서이. 애기도 영 침도  
 쥐주고, 빌어도 주고, 더러 놉으 정신 가져부난이 당신에 맞지 않허믄이.  
 102013 @ 할머니가 많이 힘들엇겠구나.  
 102013 #1 그것을 맞츰지 못헨 나가 힘들어.  
 102013 @ 십 년을 ㄴ치 살안. 시어므니영.  
 102013 #1 십일 년이주.  
 102013 @ 할아버지가 게도 알아줍수다예  
 102013 #2 알고 말고. 아덜 못난 나 각시도 헤 얻어낫저.  
 102013 #1 험드난이 아기를 할망이 각실 엇져주켄, 각실 엇전. 어떻 뎡기당도  
 그 메뉴린 눈에 들리가 이서? 그냥 나가 동네라부난 할망 이젠 나신디레만 오는 거  
 라. 그 메뉴리 놔뎡도. 내불렌 아멩도 허고대고 살지 안헨 이제 가불 거여, 가불 거  
 여 허멍 서너번 집이. 그냥 가불언.  
 102014 @ 여섯 오누인 다 시집 장게 갓주예?  
 102014 #1 이다 이집이서 풀안. 다 이집이서. 일레 옛새씩 잔치허연.  
 102014 @ 위로 딸 들은 다 제주시 살암수과?  
 102014 #2 아니 김녕 살고, 도련 살고.  
 102014 @ 아 김녕 하나 살고, 도련 한 명 살고.  
 102014 #1 시에 하나.  
 102014 #1 막내 딸은 시에.  
 102014 @ 셋아덜은?  
 102014 #2 셋아덜은 삼구.  
 102014 #1 죽은 아덜도 여기 살고.  
 102014 @ 죽은아덜도 함덕 살고?  
 102014 #1 사구에 살암서.  
 102014 @ 그른 아덜 셋이 다 함덕 살암구나.  
 102014 #1 집을 상 가젠 헛자 함덕을 떠나구정을 안허덴 허는 거라.  
 102014 #2 우리 셋메누리가 삼구에서만 살아노난 그동네 떠나기가 싫덴. 시에도  
 강 빌라 봐 아정 와도 ㅁ오에 안 들덴. 공무원 생활 혼 이삼십년 허는디 지금. 함덕  
 고 나왕 지금 마흔 아홉인가 여덜인가.  
 102014 @ 아덜이영 딸이영 자랑 헤 봅서.

102014 #2 자량은. 다 잘해.

102015 #1 착혀여. 동세가 세 개랏자이 눈도 힐끈 안 허여.

102015 #2 아이 좋아.

102015 @ 메뉴리덜이 좋구나, 착혀고예.

102015 #1 그럴듯 해 뵈여. 나 막 그냥은 침 입으로 아니 내울 말로 곤구정해도 나 경은 안 곤는다. 아이고 저렇게도 사이를 조카? 세 개가 코짱이. 어제도 와시난 에 죽은동세 와시난 시아주방 와시난 이디서 밥 행 먹게 허난 이젠 그 가분 때 바끄레 간덜 밥 행 먹언 간게. 겐디 셋메누리는 지가 직장이 바쁘니까 경 못해. 오민 이디왕 밥은 먹어도 지가 왕 밥행 먹겐은 못해, 바빠.

102015 @ 도청 다닌덴 현 메뉴리?

102015 #2 시청이나 도청 근무가 경 박해.

102015 #1 막 박헌 거 답아.

102015 #2 함덕 종고 나완 들어갓젠 헨 게 이거 멧 십년이라.

102012 @ 아덜덜은 무신 거 행 먹영 살암수과? 미깡?

102012 #1 미깡도 허고.

102012 #2 우리집이 큰아덜도 대우중공업에 잇단 십년 허단 이디 제주도완 마도로스 생활도 허고 벨 지랄 다해서.

102012 @ 배타낫구나예?

102012 #2 대우중공업에 십년 해도 볼 것이 없어.

102012 #1 육지 살당 할머니 돌아가셨저,

102012 #2 자꾸 와.

102012 #1 동생 풀암저.

102012 @ 큰아덜이라부난.

102012 #1 아니오민 그디 강 벌영 산다 첫자 갓다왔다 일년에 제사 먹으레 오지, 소상 먹으레 오지. 그때는 뭐 대소상을 삼 년을 다 헐 때난 왔다갓다 왔다갓다 허민 남아볼 거 엇고. 오민 이딘 육지서 친구덜을 막 큰 멀리 뵈고, 그냥 무시거 헐 거난 제주 들어와분덴 허영 제주 들어완.

102012 @ 언제 들어와수과?

102012 #2 오랬주. 하튼 대우서 십년 헨 들어와불언. 대우 중공업에.

102012 #1 장개 가고 간 혼 이 년 살단 그냥 와불엇주. 경 완에 이나이 뵈고. 이젠 큰 덤프트럭 것덜 몰암주. 죽은것도 그냥 그런 차 몰민 그자 지네 삶은 막 펜 안허여. 아이덜이 스지해노난이 그런 차에도 무신 구진일이 엇어.

102012 @ 아까 무신거 소지해부난? 소지가 뭐?

102012 #1 아이덜이 얌전허게 믱음이 잔잔허게 해부난 그런 큰 차를 몰아도, 집만이 헨 차를 몰아도 구진 일덜이 엇어.

102012 @ 성격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영 지켜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살안에 펜안허게 해주니까 아이덜이.

102012 #2 경헌텐 뉘여?  
102012 @ 아이고 아이덜은 다 어머니 아버지 보멍 자라는 거 아니꽈?  
102012 #2 주의 주젠은 허주. 다른 거에 욕심 부렸당은 사고난다. 몸조심허라.  
102012 @ 예, 어렸을 때부터, 딱 배웁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어머니 아버지 허는 거 보멍 크는 거주게.  
102012 #1 우리가 사주질 안헤도 지네대로 다 집을 허멍 살아.  
102012 @ 요즘에  
102012 #2 셋아덜만 아직 집을.  
102012 #1 아 그런 차는 나감만 허민게 돈칠팔십씩은 벌영 나오난.  
102012 @ 요즘엔예 아덜 장개 보내젠 허민 집도 사줘야 뉘텐 허고예  
102012 #1 그렇지. 집도 사주지 못허민 전세집이라도 체라허게 빌어줘야지.  
102012 #2 겐디 할 말은 아난디 우리 셋아덜 경남대 경영학과 나와도 회사허민 사장 죽어불어, 부도나.  
102012 #1 운 안 테와부난. 수석으로만 뉘 나와도 안 뉘.  
102012 #2 또 학원 출령 십년 헛어. 경 헤빤자 아이덜 들어온 거, 그때부턴 농사 막. 만 썩 처남 때부 막 크게 헤.  
102012 #1 고사리 사천 평 싱그고.  
102012 @ 고사리? 고사리 싱급니까, 이제?  
102012 #2 고사리 우리 한 삼천 오백평.  
102012 @ 고사린 드르에 강 캐지 안허영 밧디서 자라는구나예?  
102012 #1 미깡 밧을 돈 안주니까 혼 십년 전에 막 메어불엇거든. 돈 그때 이십만원인가 이천만원 보주받안 폐원 헤뉘, 보리 갈아봐도 벨로 이익이 엇어이. 허난 이제 아덜이 어머니 고사리 싱급서, 고사리. 나 몰르켜 난 용시도 안허고 나 몰르켜 험 내부난. 고사리 헤단 싱그난 고사리도 잡용시 현 것보단 낮아이. 경행 그거 싱그고 이젠 또 미깡 밧 허고 셋거는, 다른 것덜은 다 직장 베크레 뎡기당이라도 베크레 가는 거고. 건 과수원에 고사리에 그냥 헤가는 거라. 이런 용시 닭지 안행 그자 검질도 안 메고.  
102012 #2 아이덜은 얌전은 허여. 이것도 허고 저것도 허여주는 성의는 고맙고. 마음대로 안 뉘어. 관록도 안뉘. 배왓다고 뉘는 건 아니. 절대 배왓다고, 대학 나왔다고 무신. 절대. 우리 셋아덜 두번 당해보니까 사장죽어, 부도 나부난. 사름 험 것 아니.  
102012 @ 그게 사름 테우는 게예.  
102012 #1 테와야 허주. 배왓덴. 경영학과 수석으로 나와도 거기선 막 심젠 헤도 예에, 아무것도 안 뉘서. 예 배설은 독허고.  
102012 @ 누게 닭양 독허꽈? 할아버지 닭안?  
102012 #2 성격이 불게.  
102012 @ 할아버지 성격 흐뎡 닭앗구나?

102012 #2 비슷비슷은 허주. 우리도 영행 말은 순해도 골난 땀 급해, 급해져. 나  
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해. 와닥탁 헐 땀 뒹 어땡 앞뒤가 이서?

### 3. 밭일

103001 @ 옛날에 용시혜난 얘기 흐뎀 곱아줍서예  
103001 #2 보리농사, 조농사.

####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는 어땡행 지으는 거짜? 보리 농사 준비허젠 허민.

103002 #1 걸름 막 빠렁, 옛날에 통시 서낫어이. 뒹야지 질루는 디 그디 것덜  
잇당 막 물리왕 이젠 저런 쉼막이엔 헌디 창고에 강 데몇당 이젠 시월 구월 나가면  
은 구르마에 시경 문 밧디 강 앓당놔. 농앗당 이제 문 밧을 그걸 뿌려. 뿌리민 고랑  
을 영 쳐. 보리 갈 고랑을. 쳐가민 이젠 그레 보리씨를 막 빼는 거라. 빼어노민 이  
제 무신거 꼬실퀴엔 헌 거 이서이. 그걸로 지룽지룽 끓영 보리 더경 내불민 이제  
이젠 검질 자게 나, 그냥 이젠 정월만 나가민 밧디 검질 메레 멩기는 거라. 검질 메  
사 보리

가 뒹는 따른. 경행 놔두민 오월 나가민 보리 비는 거라. 그 비어나민 이제 또 혼  
보름 놀다가 이젠또 조 불리, 밧 갈앗당은에 조는 검질 안해도 뒹고.

103002 @ 보리부터 차근차근예. 보리 뿌리젠 허민 씨가 이서얏 거 아니파예

103002 #1 이녁냥으로 다 허영 놔뒹. 열연이

103002 @ 어땡 보관허여?

103002 #1 아니 아무디라도 놔뒹도 뒹여.

103002 @ 짝 나불지 안해?

103002 #1 아니 안 나. 멩 년이 가도 짝은 안나.

103003 @ 걸름은 돛걸름?

103002 #1 돛걸름, 소걸름. 다 그런거 이서. 비료도 흐뎀 밧비료라고 행 비료도  
흐뎀 주고.

103005 @ 비료 나기 전이예, 보린 멩 월에 뿌리는 거짜?

103005 #1 시월들 구월들에.

103005 @ 음력 구월, 시월?

103005 #1 응 파중이.

103005 @ 게문 아까 밧을 갈지 앓고 먼저 걸름을 뿌려?

103005 #1 아니 갈아놓민 요만씩 갈아놓민 이 고랑더레 걸음을.

103005 #2 잠대로.

103005 #1 잠대로.

103005 @ 보리씨는?

103005 #1 보리씨 거 걸름 다 쥐놓민 그냥 땡기멍 잘락잘락 빼어불면은 이런 ㄸ실퀴로 영영 갖다왔다 꺾어불민 씨가 고랑더레 다 기어들어.

103005 @ 아 게난 고랑 팡 그디 걸름을 먼저 뿌려. 그 다음에 씨를 아무케나 뿌렁 ㄸ슬퀴로 영 ㄸ스는 거.

103005 #1 그 씨가 다 고랑더레 들어가. 경허민 오월 스월 나가민 그 보리가 익어.

103005 @ 보리씨는 아멩이나 뿌려도 웨여?

103005 #1 아무나 뿌렁도 안웨주. 우린 보리썰 못 뿌려봘어.

103005 @ 게민 누가 뿌려?

103005 #1 하르방. 골루루 뿌려줘사 그 씨가 골루루 가지. 정안 허민은이 서툰 사름 빼민 가는 딴 쥘락쥘락 강 막 좇이고 안웨거난 그자 것도 빼는 사름이.

103005 @ 잘 빼는 사름이? 할아버지가 잘빼어났구나예?

103005 #1 여자도 빼어도 우린 믿음성 이서부난 빼어보진 안허고.

103004 @ 먼저 밧 갈앙 허는 거주예, 밧도 할아버지가 다 갈고.

103004 #1 소 이시니까. 농사허젠 손 질루는거.

103006 @ 보리 종류가 여러개 잇수과?

103006 #2 걸보리, 슬오리.

103006 #1 걸보리, 슬오리 헛자 우리 헛 때는 걸보리를 잘 안 갈아. 요 중간에 사 맥주맥이여 슬오리여. 맥주맥을 줄로 갈암주. 이제도 슬오리도 하영 가는 딴 엇어. 맥주로 하영 갈지.

103006 @ 이젠 맥주맥을 하영 갈아예, 옛날에는?

103006 #1 옛날에는 슬오리가 많이. 옛날에는이 그 꺾데기가 두꺼우니까 거 까 ㄸ는 것이 힘들지게. 슬오리는 물고랑잇지, 물고랑은 물를 걸. 영 멧돌로 빙빙 돌아 가는.

103006 @ 연자매, 물고랑.

103006 #1 응 물고랑. 그런 디 강 곶앗다근에 물류멍 허는 디 맥주맥은 꺾데기 두터워부난 뱃기는 힘이 힘들어부난 건 잘 안 갈지. 슬오리로만 주목 갈아. 이 지금은 받아 가불고 농협으로 받아불고 헤부난 맥주맥을 하영 갈안 이런 거를 족게 갈안 여점 흐뭇 먹젠 허는 것만 갈지.

103006 @ 옛날에는 슬오리를 하영예?

103006 #1 그걸 주목 갈앗지. 이제는 개역이나 행 먹젠 그것들 험주 경 안허민 안허주.

103007 @ 보리밭은 블라줘야 됩니까?

103007 #1 아니, 뜬 땅에이. 흐뭇 좋은 땅에 간딘 허고 흐뭇 뜬 질에 가면은 봄 나면 눈 오라나민 땅이 북삭허게 들러지지, 퀘영. 그러기 때문에 고랑으로 그냥 영 영영영 블라줘, 사름으로라도. 또 정 안허민 정운기론가 구루마로라도 블라줘. 경허



민 땅이 든든허민 보릿밭이 든든허여.

103008 @ 보리밭에 검질 매는 건 멧 번이나 맵니까?

103008 #1 두불. 초불, 두불.

103008 @ 정월에 초불 메고.

103008 #1 응 이월 나가민 메고, 또 도라앗앙 또 그거 하영 갈민 또 뎡기당 또  
놉덜 빌영강 메고 이집이 거 메민 수눌영도 메주곡 행 허멍.

103008 @ 그때 막 추울 때 아니예?

103008 #1 추워.

103008 @ 보리밭 검질 메젠 허민예?

103008 #1 추워, 추워.

103008 @ 옛날에 검질 맬 땀 장갑도 엇고.

103008 #1 아이고, 장갑이 어디 서?

103008 @ 막 추운디 어떻 험디가?

103008 #1 장갑이 서? 그냥 손 실루와도 허멍 어떻 이런 구석에 가민, 불괵 낡  
뎡기당 라이타도 아니, 불괵낡 뎡기당 검질 흐뎡 행 불 살랑 추왕. 아침인 춥고 낮  
뉘가민 안 춥주. 이디 허민 막 그냥 보리밭디 가젠 막 목수건 헌 옷덜 행 문 야계  
감아아지고 행 가주.

103008 @ 추우난예?

103008 #1 이제는 좋은 기상 나부난.

103008 @ 보리밭던 겨울에 검질 무슨 종류 검질이 하영 낱니까?

103008 #1 소시락풀, 콩풀 경 그것이 대목 나.

103008 @ 그게 보리밭디는?

103008 #1 응.

103010 @ 그믐 보리가 다 자란예, 오월 뉘가민 익읍니께, 익어가민 어떻 험니  
까?

103010 #1 호미로.

103010 @ 호미로 강 비어?

103010 #1 비어.

103010 @ 비영 어떻?

103010 #1 영 다 모아. 문허게 이디 저까지 비어가는양 조름에 동고랑이 달라두  
서 비멍 놔. 요만이 심영 영 영 비영 요디 놔뉘 영 영.

103010 @ 경혜근예?

103010 #1 경행 흔 사흘 물리민 무꺼가. 무경 이젠 모두왓당 그디 늘어.

103010 @ 밧디?

103010 #1 응, 늘엇당은엔에 경운기로나.

103010 @ 경운기 나기 전이.

103010 #1 구루마로나 헤영, 구루마도 하나 두 개만도 안행 서너 개 빌영 그디

것덜 문딱 집이 시꺼다 놔. 집이 시꺼왕도 또 문 놓어. 놀민 이제 또 남저놉이라도 어디 그뻐 서구포 사름덜 와. 빌영, 흘테, 흘테로 문 우리 마당에 이만이 보리 흘타 노민 이젠 기계 빌어당 정운기 빌어당 보리 올리는 걸로 집이서 막 두둘어.

103011 @ 기계나기 전인 어땡 해수과?

103011 #1 두둘어. 도께로.

103011 @ 밑에 무신거 깥앙?

103011 #1 아무것도 아니. 마당이 이추룩 마당이 막 도께질 헤나민 이추룩 고와. 게민 마당일 허젠 허민 이디 검질을 깥앙 막 누루떠 뒤. 경헛다근앵에 들리리와 근에 이제도께질 허민 더 좋아. 마당이 꼭 이추룩 허여. 게민 요런디 민짜허게 튀어나카부텐이 덕석덜이고 무시거고 이 바우덜에 빙허게 돌아. 이 보리덜 어디레 튀영 돌아나카부텐 영 영 두드러 가민 튀어나카부텐. 깥아근앵이 헛당 장만행 거 건으멍 이제 또 맥, 맥이 이서이. 맥에 이제 거 다 담양 낫당 어느날 브름 존 날은 또 불려. 아이고, 징그럽다.

103012 @ 불리는 건 어땡힙니까?

103012 #1 좁박헤근에 영 불리곡. 불린 것도 저디 얼멩이도 선게, 얼멩이로 영 영 치명 우이 건 데껴불고.

103010 @ 아까 보리 비어근에 영 흘 못 두 못 무끄주예, 건 무신걸로 무릅니까?

103010 #1 그 보리, 이것이 보리면은 영여 심영,

103010 @ 보리낭땡이?

103010 #1 아니, 이것이 보리면은 영영 심영 요영행 데와당 영 노민 요거 영 갈르민 영허민 보리가 똑 무껴져.

103010 @ 따로 만들영 허는 게 아니고 그냥 보리낭으로?

103010 #1 발면은 보리가 이것이 영 허당보민 고고리가 똑똑 다 꺾어지면은 무시거 산뒤낭이라도 행이 나룩짹이라도 행 깨 데왕 다 허리에 차둡서 다 무끄고. 정안허민 촉촉헌 때는 이 보리로 그냥 요영 데와다낭 영 갈르민 영 허민 무껴져. 가리쳐낭 꺾 찢러불어.

103010 @ 옛날에 경운기 옛일 때 구루마도 나기 전인 쉼로도 행 날랐지예?

103010 #1 쉼로도 시꺼오고 등짐으로 많이 젓지. 우리 두린 땡 쪼끔 짐지는 거 쪼끔베끼 안 봐서. 그뻐 구르마로 대게. 소 신 집인 소로 시꺼오고. 에이고 복잡허여.

103011 @집이서 흘테로 영 다

103011 #1 흘타.

103011 @ 보리흘테?

103011 #2 보리클이엔도 허고.

103011 @ 보리클이엔도 허고 흘테엔도허고?

103011 #1 보리흘테.

103011 @ 도깨질은 멧 사름이나 상 험니까?

103011 #1 옛이민 이녀 혼자만도 허고. 수정이 하민 재미나게.

103011 @ 노래도 불르멍?

103011 #1 응, 이야홍 허멍 저디 둘, 이디 둘허민 이디 둘 상 ㄴ찌 이디여 두둘  
민 저디도 영 이디 영 들르고. 이디 두둘민 저디 영 들르곡 허멍.

103011 @ 노래도 막 불르고 이야홍 이야홍 허멍?

103011 #1 거 저 어디 노래 허는디 강 그거 그 소리엔 행 허주. 그거 지치고 그  
소리 허미랑 말앙.

103011 @ 가운데서 영 데싸주는 사름도 이수과?

103011 #1 응 이서.

103011 @ 그 사름은 혹시 뤼엔 곤는 거 잇수과?

103011 #1 옛어. 그냥 아이덜이라도 시민 그 ㄴ슬 흐뎡 거되주라게. 비치락행이  
영 문 튀어냥 벌겨진 거. 그 비치락으로 ㄴ 흐뎡 걸으라게, 거똥 뱅뱅행 굽닥허게  
허민 그것이 또 두르려가민 또 튀어나민 또 거되주곡, 거되주곡. 공들게 살아왔주.  
우리 살 때도 공 안 들언, 더 옛날에가 공 들어실테주.

103012 @ 보리 도깨질도 다 허연. 보리쌀 행 밥행 먹젠허민 들고랑에 강 갈아  
와살 거 아니예?

103012 #1 꺾테기 뱃겨사.

103012 @ 그건 어뎡 허는 거과?

103012 #1 들 ㄴ랑에 강 곱아당 물 적져근엔에 들고랑에 강 곱아오민 그 꺾테기  
뱃어지민 이젠 꺾테기 뱃어진 건 이레 퍼가멍 또 물 적진 건 요 들고랑 행 이레 놔  
가민 또 둘, 멧돌로 영영허민 내려온 건 또 담아불멍 헛당 집이 왕 널어. 축축헌  
거.

103012 @ 물 적진 거난.

103012 #1 응 축축헌 거허민 그걸 불려, 그 꺾테기를. 불령 이젠 널엇당 이젠  
멧돌로 집이서.

103012 @ 멧돌이엔 곱읍니까?

103012 #1 옛날 ㄴ레. ㄴ레로 이젠 불불불불 불르멍 이젠 또 채가 이서이, 그  
체가 대체, 대체 아랫 거는 보리쌀이 뤼고 또 대체 우이 거는 또 혼불 불불 불러근  
엔에 또 허영 그 아래 또 그 아래 채는 또 줌쓸 처 앓아냥 또 보리 ㄴ르 청 데껴불  
어똥 그거 떡어강.

103012 @ 보리밥 혼번 허젠 허민 멧번이나 같아야 뤼는 거과?

103012 #1 두들지, 홀트지, 이젠 또 들고랑에 강 곱지, 물리와 놓민 이젠 돌 ㄴ레  
에 벌르지 벌러나민 이젠 솟디 들어갈 거주. 거 다 장만허영. 돌 ㄴ레 아니 물방에  
강 ㄴ레에 강 곱아오지 못헌 사름은이 그냥 보리 까끄지 안헌 것도 임시 먹젠 허믄  
약석이 떨어지민 그냥 돌 ㄴ레에 벌령 밥허민이 뽕뽕뽕뽕뽕 질겨. 이젠 중간 나가  
난 이젠 기계가 존 거 나완에 보리 까끈다허연에 보리 까끄난 우리도 보리 까까단

먹젠 허난 까끌까끌헌 밥 먹으난, 까끈 보리쌀로 밥을 허난 멘질멘질 그냥 내려가 부는 거라.

103012 @ 이딴 들고랑이 마을에 하나씩 이서낫수과?

103012 #1 하. 들고랑 신디 막 하. 다 굳지 못허지.

103012 @ 할머니넨 어디 가근에 행 읍디가?

103012 #1 요디 셔낫어, 요디.

103012 @ 그딴 이름이?

103012 #1 멀믄 동네엔 행. 그디도 들고랑 두개 아니파?

103012 #2 아, 서펜이 집안에 거 옛날.

103012 #1 옛날이주게.

103012 @ 여러 사람이 쓰젠 허민.

103012 #1 하, 함덕은 막 하. 들고랑.

103012 #2 뜰에도 메왕 굴곡, 쉼에도 메왕 굴곡.

103012 #1 뜰로도 굴고.

103012 @ 사름으로도 허여?

103012 #1 사름으로 으라이. 절로 밀리고 일로 밀리고 허민. 쉼물 이신 사름이 경 쉬와?

103012 @ 들고랑 갈 뎨 무신 거 앳앙 갑니까?

103012 #1 비치락 아지고 물 질어다 낵. 저 돌로 도고리 닳은 걸 파이. 그레 물 낵 보리 들이청 구덕, 구덕으로 건지민 담아놓민 물 빠져. 물 빠진 거는 이제 그레 판더레 놓는 거라. 정허멍.

103012 @ 들고랑에 밑에 큰 돌 이십니께? 그건 이름 뭐고 돌리는 건 이름 뭐 파?

103012 #1 몰라. 거는.

103012 @ 들고랑에 무신거, 들고랑에 채경 이런 말 이수과?

103012 #1 채경 말은 이실 거라. 들어나도 몰르크라.

103012 @ 밀리는 딴 무신 거, 잡는 디 이름이 다 잇지 안허파?

103012 #1 잇긴 이실거라. 건 몰르크라. 들어나질 안헤서. 곶아가민 알아지주만 은 채경 말은 무시거엔 헌 걸 몰라. 판데기에 둥그렁헌 판데기에 그 곡석을 헉지 못허게 이거 판데기민 요 높인 뺑허게 세텐으로 멘들앙 넘어나지 못허게. 그건 헛저. 건디 채경, 채경. 이 밀려주는 거 채경. ‘들고레 채경 이레 앳당 찢르라, 영 밀려가게.’

103012 @ 아 밀리는 게.

103012 #1 원즈락도 잇고 요딜로 고망 뜰랑 또 요만헌 낭데기 앳앙 강 찢렁 채경 앳앙 오라 저 채경으로 밀리게. 영 헨. 곶아가난.

103013 @ 보리쌀은 주로 밥 행 먹는 거지예?

103013 #1 밥이지. 주로 밥. ㄱ실 들민 이제 조 곶아당 이젠 좁쌀에 보리쌀에

허경 밥허고.

103013 @ 보리로 개역도? 개역행 먹을 보리도 잇긴 잇어?

103013 #1 그때? 보리허민 막 그냥 낭도 엇인디 그냥 유채낭 해당 와닥와닥 숨으멍 땀 찰찰허멍 그때는 솟뚜쟁이가 이만이 헨 솟뚜쟁이서. 그레 낱 비치락 모지락지게 막 몽그라진 걸로 영 영 저시멍 보까지민 솔박 받앙 영 영 썰어놓민 두 말로 보끄곡 혼 말도 보끄곡 허민 이제 중간엔 기계에 강 굴아왔주만은 돌크레로 굴앙 이젠 또 훑게 나민 줌진채로 청 후에 난 거는 또 굴멍 헤 낫저.

103013 @ 경행 개역 멘들아?

103013 #1 이제ㄴ치 든 거 놓고 무신거 허여. 어뎡 허당 사카린이나 싸근앵에 어뎡 어뎡헿 헿주. 이젠 사카린이랑 말앙 무신 제라헿 든 걸 봐도 너미 든 거 낫젠.

103013 @ 개역은 간식인가?

103013 #1 간식이멍 말멍 기자 밋디 간 때도 더우민 물에 확 카근에 확 드리싸고 집이서도 식은 밥 이신 때도 식은밥에 버물영 폭삭폭삭 먹고. 여름 나민 이 오월 장마 저가민이 개역헿 여산 베피 안허여. 간식이멍 말멍 기자 먹기도 좋고 시원헿이지. 그뎨 시원헿 물이 어디서? 저 스투물이엔 헿디나 강 질어오지나 안허민 어디 시원헿 물이 질어당 싸두민, 이젠 냉장고 놓민 시원헿 물이 나는 거주.

103014 @ 보리대는 뭐에 쓰는 거짜?

103014 #1 거 대도 다 보리 홀테로 무꺼나민 또꼬냥에서 다 무꺼. 경행 이젠 놀굽에 놀어. 놀엇당 저 걸름내는 통시에 앳당 다 담으멍 걸로 거름으로, 거름으로.

103014 @ 통시에.

103014 #1 걸름 내불민 또 그거 깎앙 그거 서근중 알민 또 내영.

103014 @ 걸름허는 거 말곤 다른 디 쓰는 거 엇수과?

103014 #1 다른 디 쓰게 누게 도렌헤도, 도렌도 안허고 줄 것이 엇어. 이녀 걸름 허젠허민.

103014 @ 마당에도 깎곡 안헤?

103014 #1 마당에 깎아놔도 또 화장실에 가. 벤소에 가. 마당 곱게 허젠 깎아놔다근앵에 또 통시에 들어가.

103014 @ 주로 보리낭은 걸름으로.

103014 #1 불도 못 숨아.

103014 @ 불도 못 숨아?

103014 #1 불도 숨으는디 걸름헿 욕심으로, 딱딱딱딱 소리나곡 불도 잘 안 나.

103014 @ 아 불이 잘 안 나.

103014 #1 걸름헿 욕심으로, 불이야 가기야 가지만은 걸름헿 욕심으로 탄 거 해당 불 짓주 걸로 불 안 지더.

103014 @ 보리첸 무신 거 헿니까?

103014 #1 도새기. 도새기 먹을 거.

103014 @ 도새기 것?

- 103014 #1 도새기채.
- 103014 @ 보리채엔 안허고?
- 103014 #1 보리채엔도 허고, 도새기채엔도 허고.
- 103014 @ 도깨질 헤나민 보리 고고리에 거 털어집니께. 그든 그 낭대기 님은 거는?
- 103014 #1 곡메기?
- 103014 @ 곡메긴 잘 안헛 거?
- 103014 #1 이다 털어 앓아나민 이만씩 흘타나민 곡메기. 것도 다 건 굴묵 지들 더레 가이.
- 103014 @ 건 굴묵 지들 더레.
- 103014 #1 헤나민 보리 두들어 나민 불리민 이디 다 나간 ㄹ시락은 다 굴묵 지들걸로 새로 멘들아근에.
- 103014 @ ㄹ시락은 굴묵 지들걸로. ㄹ시락 놔두는 디가 이수과?
- 103014 #1 통도 잇고이, 잘 비 안 들게 잘 헐 수도 있고 베끗디 영 어디 고랑챙 이 ㄹ뜨디 놔도 비 안들영 썩지 안허게 헐 수도. 거 썩으면 굴묵도 못 지들거난 어 명헐 거라.
- 103014 @ 통에 담양 놔?
- 103014 #1 쉼막이엔 헛디가 이신디 쉼막 속에 또 영 혼 구석에 놔. ㄹ시락통, ㄹ시락통 옛날엔 ㄹ시락통을 트로 허여놔. 집 널른딘. 쉼막 가운디 영 반 벌렁 요건 ㄹ시락통. 경헛당 저실 들어가민 굴채 잇지. 굴채로 담야당 굴묵에 님당 거 지더.
- 103014 @ 굴묵 지들 걸로.
- 103014 #1 낭도 안 내불고 ㄹ시락도 안 내불어.
- 103014 @ 계난예 보린 허민예.
- 103014 #1 이젠 보린 허민 밧디서 두들민 밧디 빼영 내불민 밧디서 불 와르르 허게 부찌불민 마는디. 옛날은 헐 일이 많아.
- 103014 @ 보리로예?
- 103014 #1 ㄹ시락도 썬 거, 보리낭도 쓰멍 걸름 만들어야 뵈 거.
- 103015 @ ㄹ레에 보리 갈민 보리 가루도 나옵니께. 건 무신 거엔 곱읍니까?
- 103015 #1 보릿ㄹ루, 줌썰. 대체 아랫 건이 먹을 보리썰이 뵈고이 또 대체 아래 걸명체에 거는 무신거 줌썰이 나와. 막 줌질게 벌러진 거. 줌썰 방울 님은 것이 나와.
- 103015 @ 건 무신 거 해?
- 103015 #1 이건 줌썰, 또 그 아래 나온 건 보릿ㄹ루.
- 103015 @ 밥 먹는 보리썰이 잇고, 줌썰이 잇고, ㄹ루가 잇고.
- 103015 #1 보릿ㄹ루가 잇고.
- 103015 @ 보릿ㄹ루 뵈 헛니까?
- 103015 #1 데껴불어. 도새기 것덜에 놔불어. 줌썰은이 보리밥 허당이 물이 흐끔

이신 중 알민이 좁쌀 농듯이 영영 허끄민 것더래 들어불민 밥도 포실포실하고 좋아.

103015 @ 아 따로 모아놨다가?

103015 #1 응 따로 낫다가. 보리밥이 보리밥만 행 물이 맞앙 좋암직헌 때는 허는디 물이 흐끔 익엄직헌 때는 좁쌀 아상 강 영영 낱 확 저서불민 그 물이 좁쌀러래 먹어불민 물이 좋아.

103015 @ 보리 농사를 켈 하영 지엇주예?

103015 #1 그때사 느나 헐 거 엇어. 조고 보리고 느나 헐 거 엇어. 다 마찬가지로. 우리 연세는 다 그런 거.

103015 @ 특별히 보리 농사 지을 때 다른 농사와 다르거나 기억나는 거 엇수과?

103015 #1 그런거 허단도 배추도 같고이 무도 같고 허영 풀안. 맛이 워낙 좋은 밭덜이난. 것 베긴 헐 일이 엇주게.

103015 @ 게민 그 보리 농사 해 나민 다음에 또 보리 해야 돼니까 씨를?

103015 #1 놔 뒤야지.

103015 @ 어디 저 맥에 담양 놔둬?

103015 #1 향아리, 고팡이엔 현 디 가민 향아리가 막 하. 우리 향아리 나도 요작이도 낫단 두 개에 십오만 원 받앙 풀앗는디. 향아리가이 혼 섬이엔 허민 열닷말이 혼 말이라이. 석 섬 드는 향아리가 이서이. 고팡 문으로 들어가지 못허민 이런 축 트덩 담야. 이집은 허젠 허난이 그냥 문딱 멜란 뵈아불어신디. 고팡 속에 향아리가 막 하. 고팡에 향 강 보민 부젯칩이다 현 것이 알아져. 향덜이 좋으면은. 그런 것에 다 놓민 보리졸도 장만허민 팔렐 나가민 저실 먹을 양식을 문딱 장만허멍 다 고팡에 가. 향아리 더끄멍 다 놔둬. 게민 씨헐 거 향아리 하나가 탁 놔두지. 경행 보관뵈다근에 저실이 뵈면 거 끄집어 내는 거지.

### 조농사

103016 @ 게민 보리 농사 다 끝났고예 조농사는 어떻 험니까?

103016 #1 조농사는게 이 보리 낫앙 흐끔 쉬엇다근엔에 그 보리 갈아난 그를 또 그냥 갈아. 갈앙 내불엇당 혼 보름 서가민 또 검질 날 것도 다 나불곡 허민 또 조 불릴 시기 뵈민 유월절 가까와 가민 아이고 유월절이 메칠이다. 메칠날 조 불리게.

103019 @ 조 씨는 언제 뿌립니까?

103019 #1 게메 유월절 중심 잡앙 허여이. 유월절이 널 모리다 허민 오늘 조 불릴 수도 잇고 유월절 넘어 삼일 이성 조 불리기도 허고. 그 순간 절기 맞창 씨를 뿌려.

103019 @ 유월절은 언제마씨?

103019 #1 유월절 드는 거 어디, 브러불어실 거라.

103019 @ 음력으로 메칠?

103019 #1 음력은 오월, 오월들에도 댜는 때가 싣고 유월들에도 댜는 디가 셔.

103019 @ 아, 유월절은 마씨?

103019 #1 응, 거민 유월절 중심 잡앙 조를 불러.

103019 @ 메칠 전이 허는 거라?

103019 #1 유월절이 널 모리다 허민 오늘 불릴 수도 잇고이 유월절 녀영 삼일 후제도 허고. 삼일 녀어 가민 초복이여 말복이여 헤가민 조가 늦어.

103019 @ 유월절 지낭 삼일 지나기 전까진 씨를 뿌려야 댜는 구나.

103019 #1 초복에 씨 그르쳐근에. 이 씨를 행 놔두민 그르칠 수가 이서이. 물 굴라불민이. 그리치민 초복에 강 굽어도이 시원안해, 그 용신. 즐고, ㄴ늘고. 게민 그자 비만 안왕 밧이 존딘 허민 제케로 댜어가지게, 그것이.

103019 @ 건 씨 어떻 뺨니까?

103019 #1 이건 것도 씨 막 줌질이 곱게 빼어. 건 무데기로 막 빼어. 그냥 여름 용시는 부넘도 엇고 거름도 엇어. 이제는 허는 수도 이실 거라만은 그때는 엇어. 것도 막 빌영 저디 씨맹탱이에 막 쟁일 빌어당 굴루루 이걸 막 빼어.

103019 @ 씨 잘 빼는 사름을 빌어당? 씨 잘 빼는 사름은 댜엔 굴읍니까?

103019 #1 댜엔 굴아? 그자 이녁 친헌 사름이라도 누게 씨 흐뎡 빼어취 허민 왕 빼어주곡 허는 거주.

103019 @ 혹시 씨와치엔은 안 굴읍니까?

103019 #1 씨와치엔도 근기야 근주만은 거 장난 비스름이나 근주. 아무라도 친 허민 굴아취. 거민 그 씨 비어나민 이젠 누게네 물테 왁저이, 물테 왁저허민 물테로 그자 와릉와릉 담아냥 그 조를 막 불르명 밧 니 구석을 빙빙 막 소리 걸치명 물블리는 소리허지이? 그추룩 허명 서너 불 불려놓민 다 불린 거라. 땅이나 축축허민은 삼일만 댜가민 뺨족뺨족 나.

103021 @ 싣이?

103021 #1 싣이 낭. 삼사일 댜가민 이제 영 풀어져 가명 허민 요만싣 헤가민, 요만이만 허민 이제 조를 방수 놈으로이. 막 즈진 것도 영 과싣 헤불민 문딱 메명 뺨아불어. 보리는 아니 뺨아도 댜는디 조는 손을 봐야댜. 요만이 막 영 좃앙 영 나도 씨를 요만 거리만 놔이. 이 사이에 거는 다 매불어. 이 사이 것도 다 매고.

103021 @ 매는 게 더 하키여.

103021 #1 매는 게 더 해주게. 씨를 얼만이 잘 들어사고 안 들어산 걸 몰라서 씨를 하영 빼어불민 씨 매기가 힘들어. 씨가 정씨로 강은 흐뎡 검질 메기도 쉽고 재기 멩 나가는디 씨를 흐뎡 빼어지지 안헌디 잇게 잘 빼젠 허민 씨를 좃게 빼어불민은 그 매는 시간도 많이 걸려.

103017 @ 게메예. 조팃디도 걸름힙니까?

103017 #1 걸름은 안 헤밧어. 조가 요만큼 높으민이 부넘은 흐뎡 해당 흐나싣 데껴불어. 고고리 훑게, 조코고리 훑게.



103017 @ 비료?

103017 #1 응, 비료. 흠뻑씩 행 빼어.

103017 @ 비료나기 전인?

103017 #1 비료나기 전인 몰라. 우리 난 후제는. 비료 나기 전인 안헤실 거라, 할망덜.

103017 @ 걸름 안허영.

103017 #1 우리 헐 때는 경 헤낫어. 검질 다 메두고 조가 요만큼 행 막 입 올릴 때는 흠뻑씩 하영 안행 흠뻑씩.

103017 @ 경허민 조코고리가 훑어?

103017 #1 굵게, 굵게.

103021 @ 조팏디 검질은 멧 번이나 뻤니까?

103021 #1 두불. 아무 것도 두불 매지.

103021 @ 아까 슈으는 거 말고도 두 불?

103021 #1 그거까지 두 불.

103021 @ 그거까지 두 불만 허민 웨여?

103021 #1 두 불 메민 말제민 그자 텡기당 무신 마라지엔 현 것도 메꼭 그냥 저냥 내불엇당.

103022 @ 조팏디 많이 나는 검질은 마라지파?

103022 #1 복쿨, 쉐비눔, 물풀.

103022 @ 조팏디예?

103022 #1 복쿨, 물풀, 쉐비눔.

103022 @ 복쿨, 물풀, 쉐비눔. 그제 하영 나예. 아까 가라지는?

103022 #1 마라지는 그 이 조 닳은 것이 이성 몰랑 못 멧 내불어. 조 닳은 건디 방울이 틀려. 게민 그거 나면은 마라지는 알아져. 조코고린 영 슈으는디 마라지는 거칠거칠 영 꼬짜허민 텡기멍 메불어사 씨가 털어지지 안허여. 마라지 털어지민 후년도 할 거고 씨덜 털어지민. 그거 끝나면은 조팏은 끝난 거지. 게민 마을 들어가민 비영 녹젓당 현 사흘씩 물리민 이젠 영 모되당 호미 영 창 마고릴 다 트다.

103023 @ 밧되서 다 트다?

103023 #1 응 밧되서. 영 안아다냥 이런 덕석 닳은 디서 안아당 낱도 트들 수 잇고, 경 안허민 그 이디 비어논 조름에서 호미로 트드멍.

103023 @ 호미로 영 트다? 경행 어디레 답아.

103023 #1 이레 다 모다놔.

103023 @ 것이 무신거라?

103023 #1 덕석이나 가빠나 깔아논 디. 말제민 맥에 답아. 맥에 담양 이젠 구르 마로라도 시꺼와.

103024 @ 집이 시꺼와?

103024 #1 시꺼왕 도깨로 두들던지, 도깨로 두들엇지. 기계가 잘 엇인 때니까.

103024 @ 마당에서 보리허듯이 도깨로 두들영.

103024 #1 거 두들으민 끝난 거지 장만허영 물리왕.

103025 @ 좁쌀도 물고랑에 가?

103025 #1 이제는 기계시난 안허는디 그때는 물고랑에 가야 돼. 초불 곁아놓면 은 이제 푸는 체로 저디 푸는 체도 이선게. 푸는 체로 퍼똥 이젠 아니 곁아진 좁쌀, 조가 이서부난 그거 또 두 불 낱 또 곁민 그 허나씩 이신 조 다 곁아지게시리 두 불을 ㄴ는 거라.

103025 @ 물고랑 강 곁앙,

103025 #1 체 퍼똥

103025 @ 체 퍼똥

103025 #1 또 두 불도

103025 @ 또 물고랑에 두불차 곁아?

103025 #1 경허민 꾀, 것도. 경헤영 체로 청 쌀 멘들앙. 소레기 잇고. 좁쌀 소레기.

103025 @ 소레기? 소레긴 무신거.

103025 #1 좁쌀 소레기. 벌러진 거. 조 아니 웬 것도 물명헌 건 좁쌀ㄴ치 훑지 안허영 족게 나오지게.

103025 @ 그게 소레기.

103025 #1 좁쌀이엔 나 인척 곁앗지. 좁쌀ㄴ추룩.

103025 @ 보리는 좁쌀.

103025 #1 소레기가 그 식이라.

103025 @ 좁쌀은 소레기.

103025 #1 응, 소레기. 벌러진 거 나온 것이. 그 밋에 건 데껴불고. 도새기 주나.

103024 @ 좁쌀헐 때 덩드렁 마께로 두드릅니까?

103024 #1 덩드렁 마께로 할망덜 일엇이 앗앙이 무신 ㄴ레 곁아단 동골랑헌거 이시민 독독독독 뭇으멍 털어지와.

103024 @ 도깨질 헤난 거?

103024 #1 아니아니, 안헤난 것덜. 도깨질 안헐 예를 들러 이거 덕석이면은 ㄴ레판 요레 앗다놓고 요거 마께민 이거 심영 독독독독 뭇으멍 또 앗다낱 뭇이곡 허민 허당보면 맥으로 하나도 헐 수 이서.

103024 @ 도깨질허는 거 대신에 허는 거파?

103024 #1 할망덜 일 엇영 그런 것도 못허민 어디 안 가지민 이런 덕석우이 앗당 독독독독 파삭 들르민 것도 쉬와. 벳이나 잘 난 날은 것도 털기 쉬와.

103025 @ 마당에 날레 너는 거는?

103025 #1 그거 헤나민게 재기 양석을 만들젠 허민 널엇덩 거는 기계방에도 강, 이제 중간엔 기계방에 강, 어둑어가민 이 시간 똤민 담앙 지어아정 가민 그냥 곁앙

오지.

103025 @ 물고랑 가기전이 말령 가정 가는 거지예?

103025 #1 응, 물려사 물려사, 아무것도 물려사. 공장에 가는 것도 물리지 안허민 막 글아져불영 소리기가 많아. 오골오골 잘 몰라사 오골오골.

103025 @ 할아버진 날레 잘 들어 줘니까?

103025 #1 들어줘야주게. 버친거 들러도 주곡.

103025 @ 남자덜 집이 시명 날레도 안 들이고 헌텐 허명.

103025 #1 거 멩텅헌 하르방. 꼭ㄴ치 나상 늣뜨는디 진 안 먹엄서? 지도 먹으니 까 해야지. 나만 먹엄서?

103026 @ 좁쌀론 뭐 행 먹읍니까?

103026 #1 보리밥에 부짱 내비영 틈 재왓당 또 이젠 그 밥을 빨루젠 허민 예를 들령 사발로 하나민 사발로 하나 앗앙강 술술술술 허경 알로 불 습아 가민 ㄴ냥이 뽕골뽕골 나. 게민 밥이 눈 거 닭으민 불 꺄당 흐끔 뜸 들이면은 남죽으로 것이 남죽으라 영 꺄어부는 것이. 경행 꺄엇당 밥 퍼당 먹어, 것이 끝나는 거.

103026 @ 좁쌀로만 밥은 안 허고?

103026 #1 좁쌀로만도 허여.

103026 @ 좁쌀로만도 허고 보리쌀 서경도 먹고.

103026 #1 주로 보리쌀 서경 먹는 것이 좋주. 좁쌀만은 캡캡행 곳고.

103026 @ 캡캡해. 좁쌀도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

103026 #1 흐린 좁쌀, 모원 좁쌀. 조이름도 하 쉼시리여 무신, 쉼시리여. ㄴ사 글아지크라라 만은.

103026 @ 강돌와리 그런 거 있지 안허파?

103026 #1 그거, 그런 거 이서. 강돌와리 쫄이여 무신 쫄이여 다 글아. 터럭조여. 강돌와리 무신거 이름 하.

103026 @ 모원 좁쌀로는 무신거 행 먹읍니까?

103026 #1 밥에 허경. 사락사락 보리쌀에 밥을 허끄면 포실포실 맛있어. 복삭복삭.

103026 @ 흐린 조는?

103026 #1 흐린조로는 예를 들영 흐린조는이 보리쌀 습는디 풋 농곡이 흐린 좁쌀 낱 밥을 허영 놈두민이 밥이 더 맛이 좋아. 풋 농곡행 밥을 허민. 이제민 나가 혼 사발은 먹어지켜, 그 밥.

103026 @ 보리쌀허고 풋 허고 좁쌀허고, 흐린 좁쌀허고 낱 밥을 허민.

103026 #1 풋 습양 밥을 허영. 이제라도 주민 막 맛 좋게 먹을 거여. 아무라도. 이시민 나 맛 좋게 밥 해주켜만은.

103026 @ 조로 또 떡도 험니까?

103026 #1 시리떡. 제사해 먹젠 허민 예를 들령, 혼 말이건 두말이건 썩 이젠, 이젠 기계방이 시난이주. 저 물고랑에 강 막 글앙 사름덜 빌영강 글앙, 채로 치멍

훙은 건 또 골곡 경헛당 집이왕 이젠 물 깨왕 솔솔 막 밀영 시리에 청, 시리에 징  
징이 낱 흔 도리 놓민 숨메낱, 또 좁쌀 ㄱ루 흔 도리 놓민 또 징 낱. 게민 멧 징 놓  
민 이젠 시리차 들릉 솟디 강 영 낱이. 솟디 강 영 놓민은, 이 시리가 영 놓민 요  
바우 이젠 밀ㄱ루든 무시겔로든 요 바울 짐 못나게 문 막아. 일론 불 습고 게민 이  
디 짐 올라가민 솟두까리 툽 더꺼블민 그 안에서 막. 어떻허당 옛날은 승보면은 좁  
쌀떡 치당 승보면은 그냥 일로 터정 팡팡 절로 터정 짐이 팡팡허민 그놈으 떡이 안  
뒤여. 설어. 요작은 익고 요작은 설고. 게민 떡이 안뒤여. 게민 떡 맛도 엇어.

103026 @ 밀가루로 영 막는 건 무신거엔 글아?

103026 #1 이거 솟이면은 이거 시리 떡을 논 거난 영 놓면은 이거 막아사 솟  
안에서 물 들러키는 것이 공기가 안 나가사 떡드레만 올 거 아니? 겐디 그놈으 것  
이 어떻 허당 승을 보민 일로도 터정 막당 보민 일로 터지고 절로 터지고 허민 그  
놈으 떡이 안뒤여. 맛도 엇어.

103026 @ 친떡 말고 또 다른 떡도 허주예?

103026 #1 오메기, 흐린 좁쌀로 헤영 오메기.

103026 @ 오메긴 술 허는 거 아니?

103026 #1 아니 아니, 이제 저 시에도 강 보민 오메기떡, 오메기떡 허지 안헤게.  
오메기떡이 아니고 건 그냥 찻, 그냥 쓸헤네 쑥 낱 오메기떡이엔 햅선게만은. 그냥  
오메기떡이 잇주.

103026 @ 건 어떻 허는 거파?

103026 #1 영 허영 그디 양꼬 담아근에 영 허민 그거 오메기떡 허영 풋 습양  
습메 멘들양 이젠 그 오메기떡 요만씩헌 거를 푹푹 누르뜨민 풋 무쳐지민 것이 오  
메기, 오메기 햅지.

103026 @ 그건 이제 허는 거영 푹 ㄱ파? 옛날도 지금 모양으로 햅니까?

103026 #1 옛날 거나 이제 오메기엔 이름 지영. 재료만 틀려. 좁쌀 흐린 것이  
어디 서? 기냥 저 좁쌀이라도 헨 쑥에 낱 프리롱허게 헨에 좁쌀색, 흐린 좁쌀 색깔  
멘들양 오메기 오메기 햅주. 요작이도 오메기 먹어신디 그 오메기 속엔이 풋으로만  
중국산 풋덜이난 싸난 산디. 오메기 소곱에도 습메 많이 놓고 이 꺾데기에도 흐랑  
허게 낱 꺾꺾꺾꺾 물어노난 멘딱 습메 천지. 게난 우리는 못 먹으크라고, 습메가 너  
미 한.

103026 @ 옛날은 어떻 헤낱수과?

103026 #1 옛날은 그자락 안헛지. 원 식으로만 이젠 재를 부려서 그냥 문 습메  
로만 문 누루명 푹푹 헤부난 허고. 우리 헤난 오메기는 동골락 허민 요디 양꼬 흐  
꿈 낱 영영허여근에 쳐 내영 습메덜이나 푹꺾꺾꺾 누르뜨민 그자 요만큼은 오메기  
뿐이 뒤지. 이제거덜은 가짜베기야, 멘드는 거, 옛날 멘드는 겔로 허민

103026 @ 옛날은 커수과? 지금 거보다.

103026 #1 크지. 요만씩 허민, 그자 풋 미쳐가민 흐꿈 납지롱은 허지.

103026 @ 냅작허여, 동고랑 안허고?

103026 #1 동고락허고 납지룩허지. 이제 꺼는 몽콜락허지 안허나?  
 103026 @ 예 동골랑허게 사탕추룩. 옛날 거는 납작허게.  
 103026 #1 동골락허게 멘들아도 풋을 영 영 미쳐가난 납작헌게 웬 거지.  
 103026 @ 오메기떡은 언제 행 먹는 거짜?  
 103026 #1 아무 때라도 행 먹지. 옛날은 멩질 때 웨민 정월멩질 웨민 오메기떡도 허지, 골미떡도 허지.  
 103026 @ 골미떡은 무신거?  
 103026 #1 골미떡은 곤썰 ㄱ루로 행이 이제 떡 빠는 것이 골미떡이라. 집이서 손으로 만들어. 기계 엇인 때니까.  
 103026 @ 떡국 허는 떡?  
 103026 #1 응, 그것이 옛날에 골미떡.  
 103026 @ 그게 골미떡?  
 103026 #1 그게 옛날은 골미떡. 반죽을 만들앙이 요만이 끈으민 영영영영, 요만 지레기 허민 다 멘들아이. 것이 골미떡. 게민 옛날에는 얼어놓니까 구들에 불화리 놓면은이 불화리 재가 듯아이. 그놈으 것이 땅땅허여. 놔두민, 오래 놔두민. 그 불화리 옆이 재 파뒤근앵에 그놈으 떡을 묻으면 폭삭허게 익영이 물랑물랑.  
 103026 @ 재 안묻어?  
 103026 #1 물어도 그디 더우에 물라불민 푸푸푸푸 할망덜 영혜영 종이로라도 상빠로라도 썰어불민 벗어져. 깨끗인 안 벗어도. 그것이 경행 먹어. 정월 나민 골미떡이여, 오메기떡이여 그것이 경행. 게민 이 골미떡은 낫다가이 옛날은 메밀묵, 메밀ㄱ루가 항 메밀묵으로 이젠 국수 썰어놓민 이제 떡국 허는 식으로 요만씩 썰영 메밀국수에 것도 썰영 놓곡 헤. 이제는 신식으로 잘 나와부난덜 햄주. 옛날은 영영 멘들아근에 그자 요것보다 흐뎡 ㄱ늘게 영영혜가지고 멘들민 요 지레기씩은 행 다 멘들아. 멘들앙 이제 솟디 강 첫당 다 먹지 못허지. 식으면은 팡팡헤 갈거민 이젠 구들에덜 심심혜영 놀레덜 왕 앓이면은 불화리 영영 밀워뵤 혼 ㄱ더레 밀어뵤 영 무드곡, 또 이레 지쳐비어뵤 옳더레도 하나 묻곡 허면 두개 묻어져. 그 속에서 흐랑허여. 재로 익어, 더운 집에.  
 103026 @ 감주도 줍쌀로 허는 거짜?  
 103026 #1 감주 골 굴아냥. 줍쌀로 헤도 좋주. 보리로도 허고 줍쌀로도 헤, 감주.  
 103026 @ 술도 담가? 줍쌀로?  
 103026 #1 줍쌀로 술 허지. 보리로도 술 허고 다 할 수 있어. 다.  
 103026 @ 보통 많이 하는 건?  
 103026 #1 옛날에는이 이제 술이 안 낭이 집이서만 술장시덜 행 막 저 도시에 서 나와근에 술조사 왓젠행 곱지레 술주시 곱지레 다허는디. 거 허젠허민 걸보리 굴앙이 그 첫망 들라진 것에 그 ㄱ 거를 물에 경 속에 다 담아. 담으민 이제 등그렁헌 속에 담앙 막 듯이게 행 강 옛날은 가뎡이 시니까 가뎡이탱이에 묻영 꼭 누르

땡 나민 이노믄 것이 터. 트민 것이 누룩이라이. 이것이 원료가 돼. 게민 그놈으 걸이 뱃디 낵 막 물리와. 그 동고랑헌 쳇망엿 걸 물리왓당 이젠 술은 담젠 허민 이걸 누룩을 막 뺏아이. 좁쌀 솥앙이 바우 막 하영 헤여. 도고리에덜 뺏인 거 이젠 허경 놓민 향아리 속에 담으민 향아리서 부끌락 부끌락 막 헤여. 경허민 또 메칠 시면은 또 좁쌀 솥앙 그레 향아리레 또 담아, 하계. 게민 것이 누룩 들어부난에 흐르르하게 만딱 녹아 빠저이. 청 앓아. 청주가 돼여, 우이 것이. 청주가 돼민 이젠 술 다끝 혼 뿔젠 헤여. 술 다끝 혼 뿔젠 헤영 이제 옛날은 외말치 솟이 이서. 고소리 앓지는 솟. 고소리 앓정 꺄사식으로 막 이추룩 현 옷 닳은 거 누벼당 이 솟 바우를 빙허게 고소리를 영 싸. 베로 경헤노민 베로 빙빙빙 무끄곡 헤영 고소리 앓지민 고소리코로 술이 졸졸 졸졸 나오민 그것이 술 돼영 막 독주로 나와. 게민 불도 부떠. 물 아 니 탕 허민. 그것이 술 뿔 옛날은 집이서 뺏 술이, 이추룩 빠는, 공장에서 나오는 술이 엇엇지.

103026 @ 고소리도 그 이름이 다 이수과? 웃통, 알통 헤여?

103026 #1 웃통 잇고, 알통 잇주. 건 물 곶아 놓는, 물이 자꾸 곶아줘야 돼. 영 앓지민 웃통에 물이 놉.

103026 @ 물은 얼만이 곶아줘야 해?

103026 #1 그 우린 두린 때라부난 잘 몰르는데 이 혼 노민 물이 좃아불엄신디 곱어된 또새 물사 놉 험신디사 경헤가민 고소리코로 펑 바트민 술이 졸졸졸졸 느려. 술이 술가락으로 영 받앙 어른덜 맛보는 거 영 허민이 그냥 불부뜰거 닳아, 독해.

103026 @ 술 졸졸 나오는 건 고소리코?

103026 #1 응 코.

103026 @ 밑에 뭘 받아야주예?

103026 #1 쪼끌락, 그땐 그것에 들른 펑이 이서 또이. 주둥이 이만큼은 너브고 이딘 요만큼은 현 것이 이서. 고소리코에 영 대민 물이 요레 그 단지레 졸졸 빠저. 다 쳐지면은 그걸 빠부는 거 닳아.

103026 @ 어머니허는 거 뽉디가 할머니도 헤납디가?

103026 #1 안헤낫어, 우리. 어머니 허는 거 본 거지.

103026 @ 할머니네 때도 안 헤낫구나예? 옛날에는 잔치허젠 허민 술 빠저 뭘 예?

103026 #1 옛날이주, 우리는. 우리 잔치헐 땐 신식나부난 문딱 사단 헛주. 박스로 사단 다 헛주.

103026 @ 할머니네 결혼헐 때. 아덜 풀 때 말고.

103026 #1 몰라, 어떻사 헤신디. 어떻네덜이 헤부난에. 아, 그땐 빠단 헤실거라. 뺏 헤실 거라, 그때는. 그땐 이제꺄치 왕창 허도 안허고 그자 소소허게덜 허난 뺏헤서. 우리 군셉이네 풀 때가 오레비네 풀 때가 어머니가 술 헤영 땡기단 들런. 과료 내멍 헤낫어. 아덜 프는데 술 헤영 허젠 허단에 도청에서 나완에 막 곱지단 봐

도 ㄱ시락 속에 묻은 것도 다 흠과내명. 옛날은 정혜여. 그 술다까난 주시논이 도새기 주젠이 듯항 이서 저디.

103026 @ 듯항?

103026 #1 듯항 이서. 굿인 물 놓는 거. 도새기 굿인물 놓는 거. 케른이 그런디 강 그런 사름들도 다 조사허영 이것가 얼로 나온 거넨 허민 발표가 다 나는 거라.

103026 #2 돈 벌젠허민 벨지랄 다해.

103026 #1 돈 벌젠 헐 아니고 줄레가 그추룩 헛주.

103027 @ 조찍 조 털어나민 그 낭뎡이.

103027 #1 조칩.

103027 @ 조칩은 무신거에 씩니까?

103027 #1 소 먹이지.

103027 @ 건 쉼 맥여?

103027 #1 물도 먹고, 쉼도 먹고. 케나민 그 대가리 남은 것도 그 조름더레 끌 아불민 거름이 돼는 거고. 쉼 거름 물 거름.

103027 @ 조는 꺾데기 엿수과?

103027 #1 조 무사 꺾데기 엿어? 조 두드려나민 조봉뎡이엔 행, 조봉뎡이엔 행 도새기 건 토로 헛당 도새기 맥여. 도새기 맥여도 건 거칠어. 거칠어도 건 도새기 맥여, 큰 도새기덜.

103027 @ 조 꺾데기는 풍뎡이.

103027 #1 봉뎡이

103027 @ 봉뎡이. 조채는?

103027 #1 채가 또 잇주, 건.

103027 @ 채허고 봉뎡인 트난 거짜?

103027 #1 조채는 그냥이제 영 도깨로 두드려나민 나온 거가 조채고 무시거 낫사.

103027 @ 봉뎡이.

103027 #1 봉뎡이고 조채는 기계 강 골아난 것이 조채.

103027 @ 물고랑에 강 골양 나온 것이 조채.

103027 #1 응, 조채.

103027 @ 그건 무시거에 씩니까?

103027 #1 거 도새기 것도.

103027 @ 것도 도새기.

103027 #1 이것에 허꺼 이제. 이 봉뎡이에 ㄱ찌 허꺼. 공장에서 나온 거는 조채 가 줌질고 이디서 나온 거는 조꺾데기를 뺏겨진 거니까 훑어, 거칠어. 게도 채로 청 줌질게, 얼뎡이 선게. 얼뎡이로 청 아래 거.

103027 @ 경행 도새기안티 주고. 조 낭뎡인, 조찍은?

103027 #1 물 소, 쉼물.

103027 @ 것도 버리는 게 엇구나예?  
 103027 #1 버림을 어디 강 버려? 정 안허민 소 안 질루는 사름은 불도 습양 밥도 행 먹고. 놈의 조침도 강 사당 이녁 출허젠 사움도 허고 경안헌 사름은 지들커 못 헤오는 사름은 밥행 먹젠 허민 조침으로라도 불습양 밥 헐 거난 불도 습고.  
 103027 @ 응. 쉬엇당 허카마씨?  
 103027 #1 무시거 아이고 다 곱앗저.  
 103048 @ 할머니 보리허고 조베끼 안헤수다. 콩도 헤사돼고 산뒤도 헤사돼고.  
 103048 #1 산뒤 우리 안헤난.  
 103048 @ 이동넌 산뒤 안헉니까?  
 103048 #1 허는 사름은 헤도 우린 안헤반.  
 103049 @ 감저도 헤야돼고.  
 103049 #1 감전 헤 낫어.  
 103067 @ 메밀도 헤사고.  
 103067 #1 메밀도 흔 헤 갈아 낫주만은 메밀 헨 그냥 풀아부난.  
 103067 @ 농사짓는 거만 곤젠헤도 메칠을 곱아살 거 닥아.  
 103067 #1 아이고 나 곱치아과.  
 103067 #2 선택을 잘 헛고. 우리 할망 콤콤헌 사름이로고. 나도 ㄹ치 살아도 육 십 년 이상 살아도 이추룩 헌 줄 몰라서.  
 103067 #1 이제 이층에 빵집은 삼춘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양 이모님 나이에 간 수술헤오난양 수술허여오는 즉시로 노실헤릅디다, 이몬 어떻 허코?’ 허곤데 ‘어떻허 느니 죽지 안허민 노실허나 어떻허나 허주, 어떻 허느니?’ ‘삼춘은 노실헐 거 안 닥 아.’ 요 이층집이 어명이 스춘이라. ‘이몬양 우리 어머니 수술헤오난 그냥 즉시로 노 실헤릅디다.’ 나이가 한에 수술헤부난 마추 기간이 오래 살아부난에. ‘수술헤부난 어 명은양 그냥 노실헤릅디다. 이몬 노실헉직 안허우다.’허곤데 ‘이모엔 안헐 리가 시 냐?’허멍 헤신디.  
 103067 @ 아직 정정허우다. 기억도 잘하시고 말도 잘허고. 옛날 것도 잘 생각해 내고.  
 103067 #1 생각은 무신거 입으로 나오는 대로 동더레 서더레 허경 곱암주.

### 콩농사

103029 @ 이번엔 콩 농사를 지어보게예. 콩농사를 할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 니까?  
 103029 #1 전이논이 콩밭디 비료를 안허는디 이제는 비료를 허여이.  
 103029 @ 비료허는 건 소용 엇고 옛날 거절기 좇앙.  
 103029 @ 그냥 콩만 갈아.  
 103029 #1 절기 좇앙.  
 103030 @ 언제 갑니까?



103030 #1 것이 어느제짜? 하지가 어느들에 갑니까?

103030 #2 월력 다 찢어부난.

103030 #1 유월 그믐 어디 텔 거우다.

103030 @ 유월 이십이일 하지.

103030 #1 유월 무시거엔 허난 짐작 허쿠다. 하지가이 조 불리는 식으로이 오널  
 넬 하지면은이 오늘부터 갈 수도 있고 하지 념영 삼일까지 갈 수 있고이 하지 념영  
 오래가면이 콩낭 이만이 날 거민 요만베끼 안나. 쫄라.

103030 @ 하지 전후해 가지고.

103030 #1 하지를 중심 잡앙 콩을 갈아.

103030 @ 조는 유월절.

103030 #1 유월절 전삼일, 후삼일.

103030 @ 유월절은 언제 마씨?

103030 #2 월력 엇어부난 알아지크라. 다 찢어부난.

103030 #1 음력 오월들일 거라. 콩은 하지를 중심 삼앙, 조는 유월절을 중심 잡  
 앙 전 삼일 후삼일.

103030 #2 조허고 그런 건 콩 허고는 전삼일 후삼일 허고. 보리는 상관 엇고.

103030 #1 보리는 아무때 갈아도 돼여.

103031 @ 콩밭디도 걸름을 험니까?

103031 #1 옛날은 엇어났어. 콩 곁아나민 밧이 건다허영 듯해 보리갈젠 콩갈아,  
 역불로.

103031 @ 아 역불로.

103031 #1 걸로 콩 그르에 갈민 보리도 좋곡 허난 그걸 욱심으로 갈았어. 옛날  
 은 콩을 주로 아니 갈았어.

103031 @ 아 콩을 안 갈았어.

103031 #1 이제는 콩을 대목 가는디 공판해볼곡 무시거 헤부난 현디. 옛날은 정  
 안해서. 메주콩덜 허고 무시거행 허주.

103031 @ 영 옆이 에염에만 흐뎡 갈아 먹을 걸로?

103031 #1 갈아도 타당이 두부도 허곡 두부칩이도 가곡 허주게. 저 두부도 허곡  
 이 우리 아이 풀젠 허민 콩 열말은 헤야돼여. 집이서 두부 허젠 허민. 두불 허젠 허  
 민 콩을 열 말씩 아홉 말씩 솥양 두불 허젠허민 사름이 집이 하나라. 그 두부허젠  
 허민 짜곡 손으로 다 주머니로 다 짜곡 헐 거라부난. 경허먼 헤나난. 그뎨 콩을 주  
 로 하영 안 갈아. 이제 ㄴ추록. 이제 콩은 두부 잘 안돼여이. 옛날 팔월베는 콩이 두  
 부도 하곡 맛도 싯는디 이제 준자리엔 현 콩은 우리 집이서는 두불 못헤여.

103031 @ 아까 팔월베가 콩 종류짜?

103031 #1 응, 그때 우리 두린 때 듣는 말이 팔월베, 팔월베 헤났어.

103032 @ 콩 씨는 어떻 뿌립니까?

103032 #1 콩 씨도 마찬가지로. 뿌리는 거.

103032 @ 그냥 빼어?

103032 #1 빼영이 이런디 뽕뽕헌 디 빼영 갈아불민 다 물어져불민 갈앙 나와불민 끝.

103032 @ 먼저 갈앙 빼는 게 아니고 뽕 다음에 갈아?

103032 #1 콩 씨가 묻어지주. 묻어지민, 다갈민 그냥 집이 와부는 거.

103033 @ 계민 콩 밧디 검질은 몇 번 맵니까?

103033 #1 신 대로 메어. 두 번 메메. 메기는 두 번, 엇이민 혼 번 메영 내불고.

103033 @ 콩밧 매는 게 힘듭니까?

103033 #1 쉬와. 다른 검질 맴보단 쉬와. 다른 단이 모종덜이 좇으니까 그 새에 거 뽑젠 허민 곳는다 콩밧은 드물어부난 콩밧 메기는 쉬와. 겨고 콩이 높아불민 검질이 재기 크지 못허민 검질도 더러 죽어부는 수도 셔. 계난 콩밧 검질은 쉬와. 하영도 메고.

103033 @ 보통 콩밧 검질은 여름에 더울 때 맬 거 아니파예?

103033 #1 응, 더운 때. 마찬가지로. 조허고 콩은 마찬가지로, 더운 때.

103034 @ 콩밧디는 무신 검질이 하영 납니까?

103034 #1 그거라 여름 검질로이. 감낭풀허고이 복풀허고.

103034 @ 복풀?

103034 #1 응, 복풀허고 감낭풀허고 곡제기풀이엔 헌 것도 셔. 조팍디도 곡제기풀이 잘 나주만은.

103034 @ 곡제기풀, 감낭풀 또 하나 뭐?

103034 #1 쉼비눔.

103034 @ 이디도 쉼비눔 하영 나?

103034 #1 여름엔

103034 @ 쉼비눔 또.

103034 #1 감낭풀.

103034 @ 감낭풀, 곡제기풀, 쉼비눔 또? 아까 뭐?

103034 #1 복풀, 복풀. 복풀은이 잘도 곳어.

103034 @ 어떤 풀이 쉼 매기 곳입니까?

103034 #1 곡제기풀이, 요건 매기 곳어.

103034 @ 복풀이 매기 곳어?

103034 #1 그냥 영 매당 보민 복기 모지려 저불민 글로 그놈으 풀이나. 그 굽을 안 매면은이 또 검질이 나. 나 야개기 못영 너네 집 지등굽 보켄 헌덴 허여. 할망덜, 엇날 할망덜.

103034 @ 무신 거 혼번 더 곱아봅서.

103034 #1 영 검질 매당 보민 글로 툫 툫다져 불어. 두이파리 새로 툫아져불민 검질 매당 나 야개기 끊어불민 느네집 지등굽 보켄헌덴 할망덜 곁는 말 우린 들은 말이라 이거이. 올로 메져시민 아니 날 건디 올로 메져부난 일로 또 거렁 부수나부

난텐 너네집 지동굽 보켄 헌텐 할망덜 정 곤는 거 들어난.

103034 @ 지동굽 보켜?

103034 #1 너네집이 망허게 굴켜. 날 못살게 굴어부난. 그 말이라. 검질 하영 맨다 허는 말이주. 그때 메어붙어시민 아니 날건디 모지려부난 또 강 또 맬 거라부난 너네집 지동굽 보켄 허는 말이. 굽으로 나와붙어시면은 지동굽을 안 볼 건디 또 메레 가젠허민 놉을 빌어사, 놉을 비나 어떻 헤사 갈 거난 그말로 그말일 거라.

103035 @ 콩은 어떻 수확합니까?

103035 #1 콩도이 섯파리가 덤방헛잖아이.

103035 @ 섯파리가 뭐?

103035 #1 이파리. 이파리가 덤방헛당 이제 ㄹ실 들어가민 그때 튀가면은 섯파리가 다 저붙어, 하늬 브름 터져 가민. 그때민 콩깍지허고 콩만 쉼그랑이 그때는 호미로도 그냥 딱딱딱딱 팔면은 이제는 장갑 찌부난 그냥 영영영역 딱딱 꺼꺼지고이.

103035 @ 호미로 안행 손으로도 꺾어져?

103035 #1 이제 콩은 경행. 옛날도 경허는디 호미로 안 거경 검질 때는 골갱이로 푹푹 거꺼났어. 호미무킨텐. 호미 그 콩 거꺼나민 호미 못전디어근에 늘 잘 아나산텐. 검질 때는 골갱이로 거꺼났어. 이제는 그런 거 엇어.

103035 @ 그걸로 꺾영.

103035 #1 거경. 기계가 그때도 엇일 때라이. 요것만씩이 무경. 칙 걷어당이 구르마도 벨로 엇일 때난 칙 걷어당 이만씩허영 수랑허게 무끄민 두개 낱 지어와 집이. 지어오민 이젠 마당에 인척식으로 영 가운데 에염에덜 영 두드려가민 튀어나지 안허게 시리. 도깨로 두드려, 짓도.

103035 @ 콩깍지를 거끄는 게 아니고 콩 낱을 가정 오는 거파?

103037 #1 요거 기면은 요만이 허면 울로 푹푹 거경 집이왕 두들면 콩대는 소도 주고 불도 습고 경허는 거.

103037 @ 콩대는 쉼주고

103037 #1 불도 습고

103037 @ 불도 습고, 콩 안에 있는.

103037 #1 강메기.

103037 @ 강메긴 뭐파?

103037 #1 콩 들어앗아난, 여물 들어난 집.

103037 @ 콩 잘 안웬게 강메기?

103037 #1 아니 아니, 튀여도 요 소굽에 잇는 게 강메기.

103037 @ 소굽에 잇는게 강메기.

103037 #1 콩 들어앗아난 꺾테기가 강메기.

103037 @ 콩깍진 무신거라.

103037 #1 그게 콩깍테기.

103037 @ 그게 콩꺾테기. 콩강메기가 잇고 콩대가 잇고.

103037 #1 콩대허고 콩강매기 허고 매기, 두 가지 매기. 요 소곱에 콩 들어 있는거.

103036 @ 콩으로는 뭐 험니까?

103036 #1 메주허곡, 두부허곡 것 베피 헐 것이 엇지.

103036 @ 콩나물도 키우고.

103036 #1 응.

103036 @ 콩나물이엔 안험 제주도말은 무신거파?

103036 #1 콩나물, 콩주름, 콩주름.

103036 @ 옛날에 콩주름 놓고. 주로 콩주름 놓고, 두부허고, 메주허고.

103036 #1 응.

103036 @ 콩가루도 갈아근에 뭐.

103036 #1 국도 끌렁 먹고, 죽도 썰 먹고.

103036 @ 아 콩가루로 죽도 썰 먹고?

103036 #1 콩죽 썰, 콩죽 썬바바. 맛이 얼마나 좋나.

103036 @ 콩죽은 흔 번도 안 먹어났수다. 팟죽은 하영 먹어봐신디.

103036 #1 콩죽이 쿠성 더 좋아. 콩죽 식영, 오늘 썰 먹당 널랑 데왕 먹으민 콩죽이 더 맛좋아.

103036 @ 콩국은 하영 먹어났수다만은.

103036 #1 그거 콩국도 허고 것도 허고계. 콩 글민 콩가루도 튀고 콩죽도 썬먹고 콩국도 끌렁 먹고 글아당 두부도 만들 수 잇고 다헌 거 건. 그 용베피 안돼지. 이제는 몰라 준자리 콩은 어디레사 가는 건지. 우리 해난 거는 팔렐베.

103036 @ 팔렐베, 응. 콩 농사는 밭 하나 다 안 갈고 옆에 먹을 것만 갈기도 험니까?

103036 #1 경허주계, 이녀 먹을 만이게. 요쪽엔 다른 용시고 요쪽엔 나 먹을 만이 예를 들영 메주헐 콩만 요레 갈주 헐 수도 이서.

103037 @ 콩대엔 험니까?

103037 #1 콩낭, 콩낭.

103037 @ 콩낭? 옛날 제주도 말은?

103037 #1 콩고질.

103037 @ 콩고질, 콩고질은 뭐에 씩니까?

103037 #1 게메, 소도 멕이고 소 안멕이는 사름은 불도 때영 밥도 험 먹고.

103038 @ 콩농사 지으면서 어렵거나 기억나는 거 이서마씨?

103038 #1 엇어. 콩 용서가 허는 중에 쥬 쉬와.

103038 @ 콩이 쥬 쉬운 거? 검질도.

103038 #1 검질도게 두 번 맬 거. 쉬와, 검질 맬도.

103038 @ 검질 맬도 험고.

### 밭벼 농사

103048 @ 산뒤는 안헤낫수과?

103048 #1 산뒤 우리 안헤봤어.

103048 @ 계민 다 사당 먹엇수과? 곤솔 허젠 허민.

103048 #1 제사 행 먹젠허민, 옛날은 산뒤 쓸이라이 이제는 나룩쓸이라도. 어디 저 손당 어디 가민 쓸덜이 장시가 오일장에 장시가 와. 쓸이 ㄴ는ㄴ는 현 게 밭강 허여, 산뒤쓸은. 밭도 허민 말이 옛날은 곤밥이엔 허여이. 그 곤밥이 살락살락허여. 제주쓸이.

103048 @ 직접 산뒤 안해나고?

103048 #1 반안만 먹언.

103048 @ 사당 먹언, 반앙 먹언.

103048 #1 옛날도 산뒤 안헤환.

103048 @ 산뒤 허는 게 어려운가?

103048 #1 어려운 건 엇어.

103048 @ 손이 많이 가?

103048 #1 손 많이 간 여기도 엇어. 저 드리손당더레 가야, 저 서촌더레가 많이 헤실 거라. 서촌인가. 저 동더레도 어디 바른 디가.

103048 #2 가당 오당 밧으로 하나씩 가는 사름도 이서.

103048 #1 잇긴 이서.

### 고구마 농사

103049 @ 감전 어떻 허는 거파?

103049 #1 감전 우리도 놔 낫지.

103051 @ 어떻 놓는 거파?

103051 #1 고랑을 영, 불치 시면 불치라도 영 놔이.

103051 @ 그게 걸름이라?

103051 #1 응, 엇이민 엇인 대로 허고. 감저골을 영 쳐, 영 치민. 감저골 유월절 전이

103050 @ 이것도 유월절 전이.

103050 #1 유월절 전이만 싱거지민 감저가 더 잘 들어. 더 잘 드는디 유월절 넘 어가민 유월절 넘영 혼 메칠 돼가민 감저줄, 땅이 너무 더우니까 영 땅에 싱경 놔 두민 골아불어. 죽어불영 잘 안돼어. 사는 건 살아도 골아불영 잘 안돼어.

103052 @ 감저를 싱그는 거라예, 놔뒗당예 작년에 현거 놔뒗당.

103052 #1 응, 이디 집 안 트든 때는 백장이엔 현 디가 이서낫어. 백에라도 무시거 조 두들영 곡메기 허영이 새에 놓멍이 거 구강 놓젠. 감저를 씨 놀 거 놓아 두젠.

103052 @ 그것이 구강놓는덴 허는구나예.

103052 #1 그것이 구강이라이. 그디 영 낫당 이젠 삼월 나가민 또 요 구들만이 만 예를 들리서 요 구들만이만 놓아, 씨를. 씨를 놓면 것이 키와가민 그때도 오줌도 주곡이 무시거 흥뽀 주어. 재기 크렌. 경허민 크면은 유월절, 유월절 아니 겨꺼도 저 땅만 마르지 안허면은이 줄도 질곡 허면은 그냥 끈영 강 고랑 칭 낫당 심어.

103052 @ 줄을 잘랑 강 그 줄을 심어예?

103052 #1 응 줄을 심어. 게민 줄이 쫓라시민 밧이 하영 남고 줄 쫓르민 그 줄을 또 키와. 또 끈영 강 또 그테 강 또 싱거가. 밧 남으민.

103052 @ 그냥 잘랑 영 끼우민 돼여?

103052 #1 이것이 낫사 식으로 구강 논 거민 문여는 진 걸로 끈어와 놔부난 죽은 거 흥뽀 메칠 더 키왕 허젠 허민 또 끼우민 이젠 안헤난 딜로 또 놓고놓고 허여.

103052 @ 그냥 잘랑 강 끼우민 뿌리 나?

103052 #1 것이 감저가 되는 거지. 요만큼만 줄이 난 거 끈으민 요거 둘이 끈영 강 요디 심고 요디 심고.

103052 @ 감저줄 놓는 건 경 허는 거구나예? 감저밧디 검질은 어떻 험니까?

103052 #1 것도 마찬가지로. 여름 검질이난. 하진 안허민 씨엇인 검질 씨가 아니진 밧은 검질 하지 안허여. 감저줄로 더꺼져불민 날 검질도 잘 못 나. 게민 우이난 것만 텅기명.

103053 @ 감저밧디 검질은 몇 번이나 햅니까?

103053 #1 것도 마찬가지로. 시민 매고 엇이민 말고. 흥철이는 매 줘야돼.

103053 @ 한 번은 매고.

103053 #1 응 한 번은 매 줘야돼.

103053 @ 두 번째는 매도 되고 안 매도 되고.

#1 응 시민 매고 엇이민 말고.

103054 @ 고구마밭에 특별히 나는 검질은 엇고예.

103054 #1 그 검질이 그 검질이라. 여름 검질이난.

103055 @ 이제 고구마 다예

103055 #1 수확할 거?

103055 @ 예, 허젠 허민 어떻허여?

103055 #1 어떻허여. 줄을, 막 이만씩 줄이 벗어가. 게민 호미 앓양강 그 줄은 만딱 둥그리명 저 테레비만씩 둥그리명 문 비어놔 이젠 고랑만 둥그렁이 나지 안허나. 그때는 파는 거라. 파근앵이 이레 파명 놓고, 파명 놓고.

103055 @ 무신 거에 놔?

103055 #1 그때는 뒤에, 푸대도 놓고, 맥, 맥에 어떻어떻행 모뎡 내불엇당 밧디도 흑이나 아니 일어난직 현 딘이 밧디서 감저는 기계가 있어. 요거 님은 거. 영영 감저 놓민 착착착착 굴아지명 너풀너풀 썰어정 나와.

103057 @ 빼떼기?

103057 #1 응 빼떼기가. 빼떼기로 풀아. 그냥 받음도 허여 그때는.

103057 @ 바로 그냥 밧되서 빼떼기를 만들어?

103057 #1 응 기계 빌어만 지민 밧되서 요것이 조 같아난디면은이 요딘 감저농 곡 조 같아난디민 흑이 딱 누르떠정 곱닥허지 안헤서. 그때는 그레 감저를 빼떼기를 널어도 벨로 곳지 안허여. 감저 파난 딴 널면은 감저공메기 흑을 다 부뜨는다. 요디가 조 블러난디면은 그디서 그자 영 기계 저만이 현거 갓다냥 영 감자 드리쳐 가민 착착착착 굴아지명 요만씩도 끈어지고 요만씩도 끈어져.

103056 @ 감저는 어떻 보관헙니까?

103056 #1 옛날은이 메탁기 안 현 때는 이 요만인 현 구텡일 파이. 구텡이 파면은 조칩이, 좇대이 빙허게 영 흑더레 영 세와. 빙허게 막 듯이게. 세우민 아래도 북삭허게 산뒤집이라도 깎앙 그레 감절 팡팡 놓민 가운딘 영현 굴뚝 ㄱ추룩 영 세와.

103056 @ 무신걸 세와?

103056 #1 무시걸 만들양이 공기 나가게 영 행 세우민 이 주위덜은 감절 팡팡 비와. 비왕 이젠 말젠 검질을 영 어우싸. 놀 거 다 놔 놓민. 경허민 느람지엔 현 거 몰라?

103056 @ 알아.

103056 #1 비 안들게 더끄는 거. 빙허게 더끄곡, 더끄는 주지, 주지 툽 더껏당. 날 존 날이민 올라주고.

103056 @ 주지만 열어?

103056 #1 응, 공기 나가게.

103056 @ 느람진 그냥 놔두고?

103056 #1 주지만 허민 일로 공기가 나지게, 굴뚝은 세와시니까. 글로 나가고. 또 비왈직허민 이거 또 더끄고. 경허민 또 먹구정 현 땀 또 영 흐뎡 헤쳐뎡 글로 빠멍덜 먹고, 저실나가민.

103056 @ 가운데 굴뚝 세우는 건 무신 걸로 세웁니까? 나무?

103056 #1 아니, 아니. 그냥 아무 검질이라도이 이만큼은 뱅뱅뱅뱅 무꺼이. 이만큼은 허게 무경. 그 땅 지레기광 저디ㄱ지 ㄱ뜨게시리 헤가민 글로 숨이 나가게 허는 거라, 옛날도.

103056 @ 검질로?

103056 #1 응 검질로 검질로, 검질로행 영 글로 나가게. 그것이 감저늘.

103056 @ 감저늘이 그거?

103056 #1 감저늘에 도둑 드믄이. 도둑 들카부덴 허는 거 보믄이 범주리 가시엔 현 것이 몯씬 가시라이. 케민 노람지 더끄기 전이 그 닥닥 놔불민 그 감저 홈과당 도둑질덜 장난으로 행 먹젠허믄 가시 찢러불영 그디 들어가지, 못 들어강 못 파와.

103056 @ 아, 범주리 가시로 그디 덮어놔.

103056 #1 오죽 범주리 가시가 독헌 거라. 그 노람지 속에 감저 우트레 놔불민 감절 파내지 못허주게. 그추룩 헤낫어.

103057 @ 아까 감저 빼떼기엔 곱습니까, 절간이엔 곱습니까?

103057 #1 빼떼기엔 헤낫어. 감저 빼떼기.

103057 @ 절간이엔 현 말은 안 써?

103057 #1 안 써. 감저 빼떼기.

103057 @ 빼떼긴 폴젠 허는거파, 집이선 안 써?

103057 #1 옛날에는 공출을 헤낫어이. 저 함덕 국민학교엔 현디 그냥 이 오름만 썩 문 받아놔. 이제 ㄱ뜨민 더끌 거나 좋으난 잘 더끄민 석지 안허주만은 더끌 건 황당허고 그냥 오름만썩 허게 국민학교 마당에 받아놓민 더끌 거 황당헤부난 멘딱 서거. 서거난 거 봐낫어. 우린또 주서당 먹젠 가보난 멘 썩언 못 먹크라. 그사름 덜은 돈 쥘 법에서 받은건디.

103057 @ 공출허젠 빼떼기 허는 거구나예, 집이서 먹젠 허는 게 아니고.

103057 #1 것도 돈으로 허는 거지. 조팍디 조 갈아난 조크르에 강 널영 이젠 물라가민 뎃새만 똤민 부들부들허민 거뒤당 집이서 건풍허멍 물리지.

103056 @ 그거 또 내년에 감저 싱그젠 허민 보관 잘해삼니께.

103056 #1 그 구텡이 거도 쓸 수 잇어. 그걸로도 쓸 수 잇고 소소허게 이녁냥으로 가냥허젠 허민. 감저 문을 사름이 멧 개가 똤여이. 이디 땅도 좋아사 거 이녁 울안에 놓고. 이녁 오즘 놀긴 나 인척 곧듯이 이런 백장에 맥에 허여근앵에 조 두드러난 봉텡이가 잇어이. 그런 거 깰명 물 안 돌게 헤영. 방에 허민 이디 논 건 듯 앙 썩지도 안허여.

103056 @ 듯으민 더 썩는 거 아니?

103056 #1 아니 아니. 사름 아니 녹는 방엔 어멍 안헤.

103058 @ 고구마 줄기는 데껴릅니까?

103058 #1 물렛당 소들 맥여.

103058 @ 아, 소들 맥이는 거. 건 밧디서 물릅니까?

103058 #1 이건 밧디서 호미로 착착 브리멍 영 널어가. 그냥 널어.

103058 @ 무신거 허멍?

103058 #1 호미로 영 병텡이 지민 이룬디 착착 곱기멍 영영 널어가.

103058 @ 경헝 그것도 영 무경 와.

103058 #1 응, 무끄나 그냥 덩어리로 헝 구르마로.

103058 @ 경헝 놀어?

103058 #1 응, 놀영 이만썩 무경 허민 소맥이젠 허민 잘 놀영. 것이 최고 맛좋은덴. 소가, 소 므쉬가 것이 잘 좋아헌덴.

103058 @ 아 감저줄을 쥘 좋아하는구나예. 고구마 농사허멍 특별히 기억 나거나.

103058 #1 특별히 기억날 거 잇어. 우리도 그자 감저 청 먹당 실프면 먹기가 실프면은 썰영이 그냥 빼떼기ㄱ치 물렛당이 밤이 심심헌 뎡 아이덜도 썩영 떡곡, 거는 좋아 줄긋줄긋헌 게 들크름헝 좋아. 경 베끼 허지 안허여.



103059 @ 감저는 빼떼기 행 먹고 청 먹고, 또 무신거 허여?

103059 #1 떡당 실프민 물른거 썰엇당 아으덜도 먹고. 빼떼기 현 건 잘행 이녁 먹젠 현 건 곱게 허메이. 푼는 거는 그냥 이런 땅에 널어도. 곱게 널엇다근에 인척 굴앗지 물고랑에 강 굴아당 채로 치명 감저ㄴ루 저배기도 행 떡꼭 감저 오메기도 ㄴ추룩 오메기도 행 먹고 맛있어. 새카망 허여.

103059 @ 감저로도?

103059 #1 요추룩 이색으로 비슷하게 나와. 감저 떡이 맛좋아. 감저ㄴ루 저배기도 맛좋고.

103059 @ 그건 빼떼기로 만들엉 물고랑 강 갈앙 왕 허는 거예?

103059 #1 응 물고레서 굴멍 치명, 쳐야 웨여. 즘진 채로 쳐야 거 ㄴ루가 문작 허영 맛있지. 정행 먹어.

### 기타 농사

103066 @ 감저 농사허는 거까지 해신디 오늘은 수박, 참외, 고추, 지슬, 피?

103066 #2 그런 건 안헤보고.

103066 #1 피도 안헤보고.

103067 @ 메밀은 헤낫지예?

103067 #1 메밀도 흔 번 해난 그거 필요 엇인 거 닷아. 이 메밀 농사 든젠허민 손당, 도리 교래리, 그런디 가야 잘 굴아줘.

103067 @ 이 동네는 메밀은 잘 안허는구나예?

103067 #1 엇어, 엇어. 전문가가 손당이라.

103067 @ 메밀은 땅이 안 좋은 디서 험니까?

103067 #1 식은디 막 식은디

103067 @ 식은디?

103067 #1 뜬 땅, 크게 풀이 없는 디. 영 허민 그런디 가민 ㄴ뭍도 잘 안 타지. 식은 땅은.

103067 @ 식은 땅은?

103067 #1 이디는 ㄴ뭍이 잘 타. 땅이 세부니까. 출흑이니까.

103067 @ 이딘 출흑이파

103067 #1 헤벤더레는 웃드리, 헤벤 허는 식으로 웃드리는 그런 뜬 땅이 하. 이 우트레는.

103067 @ 그런 디서 메밀 허는 구나예?

103067 #1 그런 디서 메밀. 이런 보리 ㄴ뜬 건 헤도 잘 안웨. 식영. 보리도 죽어 불고. 산뒤도 그 손당더레가 산뒤가 잘웨고 이레는 산뒤도 잘 안웨여. 여간 헤도 안 헤여.

103069 @ 나룩도 헤 낫수과?

103069 #1 나룩 밭이 엇주, 이레. 논 부떠 가사 나룩밭이 잇주. 엇어.

#### 4. 들일

##### 소기르기

104002 @ 소도 종류별로 색깔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름이 틀리지예?

104002 #1 그런 건 저 하르방신디 들어봐. 황소여, 무신 금성이여, 다간이여 허는 말 듣젠.

104002 #2 금성은 흰 술을 말허고, 다간은 두 술을 말허고, 사릅은 세 술을 말허는 거고. 얼룩빼기 소는 얼룩소엔 허고 노랑헌 췌는 노란췌엔 허고, 검은 췌는 검은췌엔허고.

104002 @ 표준 말로 말고 옛날 제주도 말로 곱아줍서. 암췌, 숫췌, 식췌, 무늬 있는 거, 속췌?

104002 #2 얼룩빼기, 식췌. 얼룩덜룩헌 거.

104002 @ 식췌엔 곱아놔수과?

104002 #2 신채 얼룩덜룩헌 거 식췌.

104002 #1 동물은 얼룩빼기 췌가 질루는디 더러.

104002 #2 가끔 잇어. 얼룩빼기 소가 잇어. 혼배긴 아니고.

104005 @ 췌 한 살, 두 살 다시 흰 번 곱 아줍서.

104005 #2 금싱, 다간, 사릅, 거 세술, 나름, 다서오.

104005 @ 다서오? 다습?

104005 #2 다서오. 그다음은 여섯술, 일곱술 나가는 거.

104005 @ 그다음은 다섯술 여섯술.

104005 #1 경혜가민 다 풀아불주.

104005 #2 그것이 밑에서만 지랄이주. 다간이여 허는 건 밑에서만 허고 다 다섯술 위로는 여섯, 일곱, 으다 아홉 그렇게.

104005 #1 경혜가민 새끼나고 다 어른 돼불건디.

104005 #2 밑에만 다간이여, 금성이여, 사릅이여, 나름이여 행 그다음 다섯살. 여섯술 그냥 가.

104005 #1 경허민 질롭지 못허주게이, 버청이 다 풀아불주. 옥아가민.

104002 #2 경베기 안돼고 얼룩 소는 얼룩소엔도 허고 얼룩빼기 소엔도 허고 노랑헌 건 노랑췌엔도 식췌, 얼룩달룩헿 범 닳은 색 곱아진 것 덜. 그거 식췌엔 허고, 식췌.

104002 @ 노랑헌 건?

104002 #1 노랑헌 건 노란췌.

104002 @ 그냥 노란췌?

104002 #2 건 순색이니까.

104002 #1 이건 보통 췌 색깔이 돼니까.

104002 @ 쉼 뿔 모양에 따라서도 이름이 이수과?  
 104002 #1 아니, 뿔은 무신 작박뿔이여 무시거여 말은 잇는데 거는 뿔.  
 104002 @ 작박뿔은 어떤 거 마씨?  
 104002 #2 이렇게 오그라지명 이렇게 현 뿔덜. 작박ㄴ치 영구와분 거. 작박뿔.  
 옆으로 난 건 무시거엔 허는디.  
 104002 #1 이진 솟췌베끼 안나. 영 꾸짜.  
 104002 #2 암놈도 가끔 혀나, 열에 혀나.  
 104002 @ 이렇게 영 박아진 거. 하양현 거.  
 104002 #1 태성백이?  
 104002 #2 태성백이. 가끔 그런 거 이서.  
 104002 @ 태성백이?  
 104002 #1 몰도 그런 거 잇고.  
 104002 #2 폐까롭덴 허주.  
 104003 @ 소는 주로 어떻게 이용헤마씨? 뭐 하는 데 써마씨.  
 104003 #1 집이 가정에 질루는 거는 농사혈 때베끼 안 질롭지. 저실에 그냥 마  
 구에 메고. 이 봄나면은 풀에 나가근에 당번제로, 당번제로 질롭고.  
 104003 #2 말은 말테우리허는 사름이 영업으로 허는 끈덜이 잇는디. 가끔 잇어  
 서 목장 가서 방목 하면서 몰을 길루는디. 소소한 사름은 하나 두개씩 밧도 같고,  
 밧도 불리고. 구르마도 꺾고 소소히 개인이 허는 거고. 영업으로 해서 산에 가서 목  
 장 이수장 삼수장 허면서 첨 그분들 돌아가셔부난 만허면 칠팔십, 칠팔십 ㄴ리 이  
 령게 현 사름이 목장. 옛날에 이렇게 길이 엇인 때니까. 딱 허민 일수장, 이수장, 삼  
 수장 헤낫어. 목장 동쪽으로부터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삼수장 절물오름.  
 104004 @ 소 처음에 길들이젠 허민 어떻 험니까?  
 104004 #2 하나두 ㄴ리 메는 사름은 자그만 초가집 님은 디서 정살헿 뿔이 나  
 면 뿔 걸어메고 계안허민 정살헤근에 막으면서 소에서 단련헤부니까 새끼 난 것덜  
 은. 소덜이 집이서 것이 영업허고 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가 잇어야 밧도 같  
 고. 소 구루마도 허고 몰도 구루마도 허고 다허난 몰도 밧같고, 잠대질 다허명 허주  
 만은 단련헿어. 소도 용허고, 몰도 용허고 새끼가 나도 술술술허민 사름 손에서 들  
 황 순조로와. 산판에 영업허는 사름 몰은 그렇지 못헤.  
 104004 @ 쉼 돌 ㄴ스는 것도 나오던데.  
 104004 #1 밧 갈젠 허민 ㄴ르치젠허민, 그거.  
 104004 #2 건 소나 말이나 훈련시기는 거.  
 104004 #1 쳇 번에 밧은 못 갈지.  
 104004 #2 단작은 못. 소는 일로 왕 명에라고 헤서 낭으로 헤서 끈 메서 단련시  
 경 꺾는 거 다허고 밧 가는 것도 잠대 헿 허고 또 몰은 접게, 가슴팍 양 어깨로 접  
 게 멘들양 톱 끼왕. 몰로도 밧같고 남토막 헿. 낭테, 낭테. 구멍 뜯룬 거 밧아가서  
 밧불리는 것 것을 낭테라고 허고 일반적으로 다 사용헤시니까 농사덜.

104004 @ 췌가 바로 밧을 못 가니까 둘 행 허는 거는 뭇엔 곱읍니까.  
 104004 #2 그거 혼련시기는 거. 밧가는 연습힐라고. 대번칙이 밧 갈민 못 갈아.  
 그러니까 이디를 다 단련시켜, 멩에. 이디를 막 멩들어놔야.  
 104004 #1 벗어져, 벗어져.  
 104004 #2 벗어지꼭 다 피가 나꼭 소가 말을 안허난이지 애 먹주. 사름 손 들영  
 사 그거.  
 104004 #1 경허당도 밧 갈레 강 메우믄이 그냥 막 광질을 허여. 막 들러키어.  
 104004 #2 순헌 건 순헌디 요랑치는 건 요랑치고.  
 104004 @ 게민 어떻게?  
 104004 #2 그래도 사름 손에서 다 달좌져.  
 104004 #1 이다 단련 못헌 때논이 이 하르방은 밧 갈면은이 난 물 영 석을 끗  
 어이. 영 꼬짜 나오게 허젠. 밧가는 거 꼬짜 허젠.  
 104004 #2 습관이 안 돼는 건 사름이 사서 끗어줘야. 소는 빨에 석을 메고 물은  
 이디.  
 104004 #1 접게.  
 104004 #2 아니 접게. 이디 거 썩우는 녹대. 녹댄가? 아구리에 주둥이에 해서  
 물은 그렇게 해서 끗어주고. 소는 빨에다 걸러멩 끗어서, 길을 안내 행 밧 가는 디  
 도 끗어줘사. 것이 단련돼민 츄츄츄 발좌지고. 어롭긴 어롭주, 농사지는 것도.  
 104004 #1 이젠 기계화라부난 모든 것이 쉬와.  
 104004 #2 기계도 기계주만은 경운기 나기 시작허난 것이 다 도망가 불엇주게.  
 104006 @ 쟁기 명칭, 할아버지 이름 이수게.  
 104006 #2 잠데.  
 104006 @ 잠데 중에서 어느게 벗?  
 104006 #2 이거, 요거 흑을 이렇게 냉겨주는 거. 끗어가민. 소 허민은 갈아가민  
 이 자우룻흔 쪽드레 흑이 넘어가. 이디 갈아가민 넘어가고. 이것은 땅속에 파서서  
 돼 가민.  
 104006 #1 이름이 뭇파?  
 104006 #2 보섭.  
 104006 #1 요딘 췌 요런거 메왕 일로 끗어주는 거.  
 104006 #2 잘 나와신게. 뻐헌 거주뭇.  
 104006 @ 뻐, 보섭 말앙 또 뭇 이수과?  
 104006 #2 아 이건 두 개뻐.  
 104006 @ 두 개뻐?  
 104006 #1 요것 ㄴ란 뭇엔 험니까?  
 104006 #2 이거 우리 알기 쉽젠 손잡이가 맞는디 그때는 뭇엔사.  
 104006 #1 이름이 실거라, 이것이 이름이.  
 104006 #2 이름사 잇주게.

104006 @ 판 디선 양죽머리엔 곧던데 그런 말 안 씩니까?  
104006 #2 게메 이거는 이것이 귀중헌 것이 아니난 알기 쉽게 손잡이가 맞추게. 잡아서 운전 허는 거니까. 이거 뱃허고 보섭.  
104006 @ 뱃허고 보섭 말고 다른 이름.  
104006 #2 요디서 쉼 명에 이디 강 메서 쉼에 메우는 거고. 물은 또 이 접게 메왕 물은 또 일로 꺾고. 소는 이디로 돌아메민 이디서 주로 허고 물은 양 어깨서 꺾는 거고.  
104006 #1 물 이 뒷 야게기 놓고 이거는 쉼 야게길 영. 경허든 이것이 이 끈이 요디왕 심영 요코 심영 쉼 영 돌아가민 이레 등겨불고.  
104006 #2 가린석이라고. 소가 이시면 이제 소 뿔에 양쪽으로 베, 요런 거 거리에 조종해서 좌로 땡기면 좌로 우로 허민 이것에 운전해. 소가 익숙어가민 착착 들어가. 챗번은 앞서서 사름 꺾어줘사.  
104006 @ 그게 가린석이파?  
104006 #2 가린석. 게민 것이 쉼가 익숙으면 이젠 조폼만 땡겨가민 꼬짝 나가고. 물도 그렇고.  
104006 #1 이다 연습이주.  
104006 @ 몽쿨은 어느 거파? 이런 말 안들어봤수과?  
104006 #2 몽쿨을 들어나긴 들어났는데.  
104006 @ 설칫.  
104006 #2 응?  
104006 @ 성에. 그런 말 안 들어봅디가?  
104006 #2 이건 명에.  
104008 @ 그거 명엔 알고.  
104008 #2 접게 이디 물에 건 접게, 접게. 등째, 등망머리에 끈 매는 건 쉼.  
104008 @ 등망머리에 등 매는 거 이거 등째? 이건?  
104008 #2 그건.  
104008 @ 엉덩이에 영 뒸는 거.  
104008 #2 이거 밋으로 내려 가는 거지. 그건 뿔산디 거까지 다. 그런 건 이름 엇어.  
104008 #1 이것이 손잡이가 잇수게. 요것에 걸어메영 쉼도 재게 안가민 착 이걸로 착 치면은.  
104008 #2 건 가린석.  
104008 @ 건 가린석. 가린석은 이디 안 나완.  
104008 #2 엇인게. 가린석이 엇고 물에 대헌 기구가 접게게 이서야. 쉼은 등째가 잇고 물은 그런 거 엇고. 구르마도 메우고 으라가지주. 낭테란 건 이런 큰 남토막 구멍 빠져 건 낭테.  
104007 @ 질메.

104007 #2 질메? 케니까 쉼 우이 등망머리에 맞게끔 멘들앙 톡 헤낭 그디 방식  
행 탁허민 이제.

104007 @ 요거 질메.

104007 #2 이거 질메 맞고. 이거 허민 뒤에서 앞드레 넘어가지 못허게 꿈무니  
아래서

104007 #1 꿈무니 아래.

104007 #2 등망머리 우에 낱허민 정확히 웬 거고 케민 이레 베를 메어. 벗어나  
지 못허게 알로 강.

104007 #1 요레 짐 시끄고 요짜 펜 드레.

104007 @ 그건 무신 끈으로 험니까?

104007 #2 아무 거라도 너븐 거라도 도망치지 못허게 앞으론 안 넘어가니까. 이  
것은 왜냐면 이것이 조름에서 짐 시끈 것이 이 또꼬냥 빼 아래 안 낱은 짐이 야계  
기 넘어강이거는 절대 앞드레 안 넘어가. 굴렁으로 가도 이것이 이서부니까. 그 이  
름은 이제 이저분디 등웬가 뭇지 몰라도 하얏든 이거 질멘 맞고 케민 이디 끈을 들  
아서 쉼 알로 가서 딱 메민.

104007 @ 그 끈은 무신 끈이엔 안헤?

104007 #2 아무거라도 너븐 거.

104007 @ 뱃대끈 영 안 곱습니까?

104007 #2 그런 건 이름 엇고.

104007 #1 그땐 닥치는 양.

104007 @ 요건 뭇엔 곱습니까? 질멧 가지?

104007 #2 하얏든 질메라 허는 거 다 종합웬 거.

104007 #1 가진 엇을 거라. 우리 들을 때도 질메엔만 허여.

104007 @ 이거 전체가 질멘디 요거는 가지, 요거는 도곰 허는 말 엇수과?

104007 #2 그냥 질메엔 허민 뉘주.

104007 #1 엇어. 질멧 방식, 쉼 등망머리 벗어지카분덴 그거라 이것이.

104007 @ 질메 방식?

104007 #2 질메 방식, 그자 알기 좋게 말허민. 앞드레 넘어오지 못허게 쉼 꼬리  
들렁 이디 메왕 준등으로 무끄는 거.

104007 #1 등망머리 짐 막 베게 시끄꼭 허민 이런 디 벗어지카부덴.

104008 @ 멩에도 다 곱앗고예 요거는 멩에, 요거는 접게

104008 #2 이것도 이름은 잇는데. 거 어느 제라?

104008 @ 요거 한줄 영허는 말 엇수과?

104008 #2 한줄이엔 말도 들어본 말인디

104008 @ 할아버진 몰르쿠과?

104008 #2 이거 뭇 십년 웬 거라게. 사름이 이추록 구십이 다웬디.

104008 #1 어제부터 다 알아진다, 몰른 거 엇어 다 알아져, 다 알아져, 에에.

104008 #2 명예엔 허민 웨는 거지 뭐. 잡데, 보섭, 벳, 가린석 이 정도민 마는 거주, 무신 벨.

104008 @ 알아수다. 혹시 생각나민 곶아줍서예.

104008 #2 구르마도 다 멘들어 낫는다 무신.

104008 #1 생각 날리가 엇어.

104008 @ 누게안티 강 물어보민 알코마씨?

104008 #1 엇어. 하나토 엇어.

104008 #2 삼군 몰라도 이구엔 나 이상도 엇고 사름이 남저가. 나가 켈 이 팔십 칠세가 켈 고통이라.

104008 #1 엇어, 알암직헌 이가 엇어.

104008 @ 옛날 이런 거 만들어난 사름 엇수과?

104008 #2 아 이거 우리 다 만들어났어. 구르마도 다 멘든디 나가.

104008 @ 경헌디 어떻 이름은 몰람수과?

104008 #2 이젠 하도 오래부난게. 이거 멧 십년이라게. 왜정 때로부터.

104008 #1 이거 이름 알 사름이 엇일 거라.

104008 #2 엇어. 우린 물이고 췌고 다 헤시니까.

104009 @ 옛날 집이서 췌 질루다근에 올려보냉 목장 허지예?

104009 #2 그거는 업자덜, 돈받아 먹는 사름이라. 백수민 백수 거두와. 혼 달에 열만씩 부찌는 사름도 잇고 순번으로 멧 사름씩 헤서 허는 사름도 잇고.

104009 #1 아니 하르방 몰람수다게. 집이서 질루다 저실 살아노면은 출이 엇거든. 출이 다떨어져강 새 풀 나가면은 이 소를 당번식으로 강 하나두개 질루는 사름은 다섯이그 여섯이그 느헤나민 나허고 느헤나민 나허고 경행 나가. 집이서 질루당. 저슬내낭 마구에서 맥이다근에 출이 엇이그 이젠 새풀 나가민 풀 맥이레 나가는 거.

104009 @ 돌아가명 헤, 혼자 안허고?

104009 #2 응, 돌아가명 당번제로. 돈 안 들이젠.

104009 #1 돈 안들이젠, 침.

104009 #2 돈 행 폴아먹는 사름 역불 아주 많이 거듭진 못헤도 이삼수 요런 정도는 건 직업적으로 받아먹고 딱 가냥헤영 그런디강 부찌불고 거안허민 서너집이 댓집이 열다섯마리 스무마리씩 당번제로 단체로 안튀고 이건 소는. 물은 영업적으로 허는 사름이 잇고 일수장, 이수장.

104009 #1 이건 영업으로 설라믄 마리, 스무나믄 마리.

104009 #2 족아도 이삼십 마리 오십두는 보통 웨여. 일수장, 이수장 막 돌아텅 기명.

104009 @ 췌는 뭐 뭐 맥입니까?

#1 보통게 출도 이 팔될나민 출 비어당 낫당 막 무룩허게 늘어두고 용시헤나민 콩대도 놔두고 거 먹당 거 저실내낭 먹어불민 이젠 풀나가민 드르에 나강 당번제로

또당번 안헐는 사름은 맥이논디레강 부쩌불고.

104009 #2 삭쉐, 삭쉐, 돈 준다는 말.

@ 삭쉐는 어떤거마씨?

104009 #2 돈 줘서 손을 부찐다. 영업으로 혼 둘이가 가부시웨영 합작해서 소를 삼십이민 삼십 마리 거뒤서 혼달에 얼마씩 허민 둘이가 책임정 비가오고 눈이오고 그사름덜이 허고 경 안허민 혼 멧집이서 다섯마리 세마리 헛 사름 혼 댓집이 당번 제로 돈 안줄라고 돌아가명 허고.

104010 @ 쉼 물맥이레도 가곡 해나지 안헤수과?

104010 #1 이디 마구에 멧당 이런 석이서. 석 끓영 이디 가름에덜 물통이서 민 물통.

104010 @ 이디 소레물?

104010 #1 소레물 말고 기냥 민물통이 이서.

104010 @ 민물통, 쉼 맥이는 거. 이디 어디 가왔수과?

104010 #1 우리 이디 이디 소 질룰 때 노인당 지신디가 킨 못이라났어.

104010 @ 무신 물이과? 이름이.

104010 #1 민물, 민물. 거룻굴물.

104010 @ 거룻굴물.

104010 #1 걸물, 솟두뭇, 가름에 못이 하.

104010 @ 이디 잇는 건 거룻굴물. 가깝구나예.

104010 #2 요디 가민 펄뭇, 그다음 가온통. 솟두뭇.

104010 @ 소 질루는디 쉼 힘든 건 뭐마씨?

104010 #1 힘들명 말명도 엇어. 그냥 이제 출헐 때가 힘들지. 경허당 팔뿔마나 쳐노민 즐바로 못 물리민 출도 서거불곡.

104010 #2 소도 혼 너뭇마리씩 몰안 텅기고 몰도 메고, 구르마 허는 몰도 메고 우리도 대농분 대농부거든.

## 말 기르기

104011 @ 말은 어땡 기릅니까?

104011 #2 몰도 역시 녹대 씨왕 마곳간에서 매어. 구르마도 허고.

104011 #1 몰은 당번 아니허영 요 까까운디.

104011 #2 줄베 매영.

104011 #1 진 줄 허영 말뚝 박양 그디 강 그 근처에 뱅뱅 먹어나민 또 뚫날은 판디레 강 이동허영 또 거 트더먹영 그거 트더가민 또 이쪽에 먹어난디 풀 나가민 또 요레 메곡.

104011 #2 구르마도 허고, 밧도 갈곡. 건 살림다 거주.

104011 #1 그거는 간단허여.

104011 @ 말도 집이서 혼 마리씩 키와났수과?



104011 #1 응, 구르마 허젠 허난.  
 104011 #2 들도 밧 갈곡 다 헤여.  
 104011 @ 말로도 밧 갑니까?  
 104011 #2 아이고 나가 들을 얼마나.  
 104012 @ 말도 털 색에 따라 이름이 다 다르지예?  
 104012 #2 어 율라, 얼룩빼기가 율라들.  
 104012 @ 율라들 또?  
 104012 #2 백마.  
 104012 @ 백마.  
 104012 #2 먹총이.  
 104012 @ 무신 총이?  
 104012 #1 먹총이.  
 104012 #2 거먼거 먹총이라고 헛어. 율라말, 적다말, 가라들.  
 104012 @ 가라말은 어떤 거파?  
 104012 #2 검은 거.  
 104012 @ 먹총이는? 먹총이가 검은거엔 안헤수과?  
 104012 #2 것도 검은디. 가라들이엔 흰 건, 빗깔 가메기 색깔이라 빈찍빈찍헤.  
 104012 @ 더 검은 게 가라들?  
 104012 #2 뵤찍뵤찍허는 거. 검은 것에서 또 거는 빈찍빈찍헌거 가라들.  
 104012 @ 가라들, 먹총이.  
 104012 #2 얼룩빼기.  
 104012 @ 율라들이 얼룩빼기 아니?  
 104012 #2 흰 것에 노린 거 서꺼진게 율라들이고.  
 104012 @ 그다음에 별경헌 건?  
 104012 #2 별경헌 건, 거 뭐야? 조르마, 찌헌 조르마. 시뵤경헌 거 조르마. 적다  
 들.  
 104012 #1 그 말이 고와. 뵤경헌 말이.  
 104012 @ 별건헌 말이 고와?  
 104012 #2 응.  
 104012 @ 아까 하양헌 건 무신 말?  
 104012 #2 백마. 백마도 얼룩빼기가 셔.  
 104012 @ 백마 얼룩빼기? 그건 무신 거파?  
 104012 #1 백마에 무신 얼룩빼기가 셔?  
 104012 #2 백마도 노린 색 들어가민 얼룩빼기주게. 율라들.  
 104012 @ 율라들? 건 얼룩빼기고. 유매는 무신 거파?  
 104012 #2 유매가 뭐라?  
 104012 @ 그런 거 엇어마씨? 그믄 고라들.

104012 #2 응 고라몰이엔 현거 잇지. 고라몰도 침 알기가 힘든데. 색은 한가지 색 나가면서도 어디 강 이상헌 색을 가져 이신 물이 이서. 그런 것이라 고라몰 고라몰 해낫는디 그런거 주로 매질 안헛어.

104012 @ 안 좋은 거짜?

104012 #2 색깔이 보기가 이상허난 그런 걸 잘 안 질봐.

104012 @ 켈 일등은 무신거짜?

104012 #2 켈 현 것이 조르마라고 빨경허고 거무릉 현 것이 일등으로 놓고.

104012 @ 조르몰이엔 현 것이 일등? 이등은?

104012 #2 노랑현 거, 적다몰.

104012 #1 적다몰은 불그릉현 거 아니?

104012 #2 아니 거 닷은 적다몰. 백마, 먹총이가 이서. 검고 흰 거, 건 먹총이. 으라가지 물은 으라가지가 색이 이서. 췌는 뒤 가지 베피 엇는다.

104012 @ 등 굽은 물은 무신 물이엔 험니까?

104012 #2 굽새물, 굽새. 그자 글자 그대로. 가당오당 하나 잇주. 불구자, 그자.

104012 @ 조랑말이엔 허는 죽은 말은?

104012 #1 이건 존존헌 거.

104012 #2 존존헌 건, 거 토백이도 아니고 존존헌 종류가 이서.

104012 #1 종류가 아니고 이것덜 새끼 난 거 키우는 거.

104012 #2 크도 안행 쯤쨌헌거. 종류가 그런 거도 이섯주.

104013 @ 말은 주로 구르마 꾀젠 허는 거짜?

104013 #1 아니 하영 질루는 물테물테 허는 거는 저 산춘 사름덜은 막 하영 새끼 나는냥이 더러 잡아도 먹어볼고, 조 불리젠 허민

104013 #2 물테우리.

104013 #1 막 우리가 빌어당 아이고 누게네 테 빌어당 밧 불리지허멍. 밧불리는 거 뿐, 그 목장에 질루는 물은. 그런 디꺼 물 하나 이디 걸려당 풀양 여기서 버릇라치젠 허민이 하늘만치 땅만치 들리경이 라치질 못헤.

104013 @ 말보다 소가 쓸모가 하구나예?

104013 #1 썰모명 말명 밧 하나 가는 거.

104013 #2 소는 밧 같고 물은 탕도 땡기고 밧도 같고 낭테도 메왕 돌아땡기고 벨거 다 허지.

104014 @ 말도 한 살, 두 살 이름이 잇지예?

104014 #2 일 수, 이 수, 삼 수.

104014 @ 삼수.

104014 #2 마찬가지로. 일 수는 한 술을 말허고 삼 수는 세 술을 말허는 거고 스 수 그다음부터는 다섯 술, 여섯 설.

104014 #1 그건 이름으로 뵈고. 나이가 네 술 뵈가민 혼 술, 두 술 네 살로 올라가볼어.

104014 #2 금싱, 다간이여 무신 사름이여, 나릅이여 건 쉼덜이 경허고 물은 아  
까 말헌 것이, 나 금방 말헌 것이.

104014 @ 일수, 이수?

104014 #2 조금허민 두 술, 세 술 물들은. 멧 술, 멧 술 주로 나가불고 물은. 금  
싱 다간헌건 쉼덜이고. 그나 나민 금싱이엔허고. 물은 혼 술, 두 술, 세 술 흠치 부  
썬불어.

104014 #1 세 술, 네 술 나기민 물 질릅던 디서 낭 폴앙 우리도 그 물을 사당  
그리청 이녁냥으로 구르마라도 시켜젠.

104014 #2 벨 지랄 다해봤주. 아이고.

104015 @ 말 기르면서 재미있거나 생각나는 일 엿수과?

104015 #1 으이구 생각날 건 무시거게. 힘들주.

104015 #2 옛날 하르방덜 헤단 물 발로 찬 건 모르주이. 구르마 헤단 그놈의 광  
질허영 구르마 창 잡아끼어불어.

104015 #1 물은 실개 엷인 거라서이 광질을 잘허여.

104015 #2 앞 뒤가 엷이는 것이 물이라.

104015 #1 물은 잡앙보민 실개도 엷넨. 계난 실개 엷인 물 그추록 예점에 굳는  
말이 그거. 구르마 꼬신차 천장만장 막 뛰어가민 사름도 상허는 수가 하. 들레창,  
들레창 그것이 위험허주.

104015 @ 들레창이 무신거?

104015 #1 구르마차 끄영 사름도 몰물고 뵈도 몰르고 지멧대로 천장만장 가는  
것이 들레창.

104015 @ 천장만장 가는 것이 들레창?

104015 #1 경허민 실개 엷인 거엔 현 게, 물은 실개가 엷넨. 잡앙 봐도 엷넨.

104015 #2 물은 순허민 좋은디 광질허는 물은 이서놓민.

104015 @ 쉼영 물이영 일러불지 안허게 허젠허민.

104015 #2 넥인.

104015 @ 넥인?

104015 #2 영치에. 표시, 넥인, 넥인. 쉼을 불에다 구워, 벨질게. 다 거리 매영.

104015 #1 물 발 무껍 녹져 놔사 이디 점을 찍어. 이 하르방은 에에. 생차 불  
군 거 쿡 찢러봐. 그것이 찢어지민 천장만장 돌아나불주. 이 발도 무끄곡 이것도 무  
껍 그자 텅글랭이 드러 녹지민 깡 누르뜨민 바지지직허게시리 터럭이영.

104015 #2 것이 이녁 표시라. 일러먹지 못허게.

104015 #1 경허당 일러먹으면은 이런 줄 메영 놔뒤도 끈영 돌아나불민이 목장  
덜 좇으레덜 가민 어느 동네 가민 무신 폐적 헤진 물을 봐저라 허민 그 근처레 강  
좇이레 가곡 그 폐적이 필요허긴 허여.

104015 @ 말 고삐는 제주도 말로 무신거렌 험니까? 말 끄젠 허민.

104015 #1 석, 녹대, 녹대.

104015 @ 녹대는 이디 허는 거고. ㄱ스는 건

104015 #2 석, 석. 물석. 녹대에 석이 달아져 잇주. 딱 매민 들이 꼬딱 못헤.

먹이

104016 @ 말허고 소 먹이 다시한번 곱아줍서. 췌허고 물 먹는 거.

104016 #2 췌먹는 거 물도 먹곡 출은.

104016 @ 출도 허고.

104016 #1 곡석대도 맥이고.

104016 #2 콩 때려난 낭대도 맥이고, 조헤난 낭대도 맥이고. 보리칩은 잘 안 먹어.

104016 #1 물이고 췌고 흐뎡 영양가 주젠허면이 출을 작두로 썰영 그때는 큰 숯덜도 잇고 숯에 삶양, 콩 놓곡 삶양이 ㄱ치 것영 다라에 헤영 맥여.

104016 @ 그건 이름 뭐엔 안 곱읍니까?

104016 #1 이건 엇고.

104016 #2 보릿 ㄱ루라도 서텅 맥여주곡.

104016 #1 콩도 삶양 맥여주고.

104017 @ 출은 어뎡 장만허는 거짜?

104017 #2 출은 목초밭이 엇이면은 남이 밧되 강 사기도 허고.

104017 #1 옛날 목초밭이 어디십니까?

104017 @ 옛날에 출밭?

104017 #2 응 저 드리 벵되, 교래리 우트레 올라간되 강 번지에 먹어난 거 큰 거 엇인 사름은 출도 비고. 침 서롭게 헨 사름은 서롭게 헤. 이신 사름은 또 자기 소유가 이심 출왓헤서 가되서 담으로 막아진 디서 가냥헤서, 자기가 목초밭을 이젠 빌어서 물도 맥이고 소도 맥이고. 엇인 사름은 한 디 가서 동냥헤야주. 목장도 올라 가고. 우리도 교래 ㄱ지 올라가서, 아버지영.

104018 @ 할머니가 출 어뎡 장만허는지 곱아줍서.

104018 #1 목장가민 출 비영. 그냥 어떤 뎡이 이녁 출밭 ㄱ추록 헨 밧을 빌수도 잇어. 날이 막 좋양 추석 멩질 헤 먹고 브름이 섯브름 막 터지면은 놉 멧 개 빌영 강 막 그걸 비어. 쪼꼬만 남저덜은 또 호미도 곱아주곡, 게민 제우제우 헤논 거 보민 날 좋민, 제우 헿 뇌두민은 그냥 비오라불면은 그놈으 출이 서거불어. 게민 허탕 이라이.

104018 @ 썩어불민 다시 헤야헤?

104018 #1 또 다시 헤야주게. 겨민 출을 빌디 구허지 못헿 돌아헿기당 보민 어뎡헿 허여져. 멧 구르마 헤당 집이 조근조근 늘어가. 빙빙 늘영 이젠 어욱 비어당 이젠 그 늘을 다 싸. 싹당 이젠 소고 말이고 마구에 들어오면은 그거 빠멍 맥이고. 조칩대도 먹이고.

104019 #2 옛날은 구르마가 엇인 때니까 말췌 질망머리에 혼 짐씩 시ㄱ당 구르

마가 나온 때로 부터는 마차에 실려서 그것을 운반허영. 그다음은 경운기가 나오기 시작허난 한걸헤 붙어. 이젠 자동차 나오난 경운기가 다 죽어붙엇어.

104019 @ 쉼 질메에 헐 때 출 혼 바리 허민 멧 못이나 들어갑니까?

104019 #1 서른 개. 마흔 갠가?

104019 #2 한 바리 두 바리 허는디 삼십못이 혼 바린가 사십못이 혼 바린가 그 거는 정확헌 건는. 삼십 못 아니민 사십 못.

104019 #1 소에 시끄젠 허민 것도 힘들어실거라. 우린 그런걸 몰르는디.

104019 @ 계난 출은 사십 못이파, 서른 못이파?

104019 #2 글썸 건 정확히 모르겠어. 한 바린 맞고.

104020 @ 계민 보리 한 바린?

104020 #1 서른 개.

104020 @ 조는?

104020 #1 조는 무끄는 버릇이 었어. 그냥 영 비어 놓면 비오람직허민 안아다 놓고 안아다 놓고 허민 놀이 웨여이. 놀 웨면은 그때는 또 날 좋면은 그것도 떼어 놓명 툃아, 고고리틀. 존 무꺼보질 안헛어. 거창시루왕 못 무꺼.

104020 @ 콩은?

104020 #1 콩은 무꺼당 집이 왕 두들겨.

104020 @ 콩은 혼 바리허민 멧 못이파?

104020 #1 이건 바리가 었어.

104020 #2 멧 못헿 지영 오던, 쉼에 시켰던, 뭇허단 콩그쁜 건 거창해서 밧디서 때렁 오고.

104020 @ 새는 멧 못이나 들어갈 건고?

104020 #1 우리 옛날 집 이는 새?

104020 @ 예.

104020 #1 것도 서른 개.

104020 @ 것도 서른 개. 보통 서른 개구나예.

104020 #1 보통 서른 개라. 새고 뭇이고.

104021 @ 출 베영 놀곡 허는 거 할머니, 허당 힘들고 기억나는 거 었수과?

104021 #1 아이고 출만 허여오민 그거 비영 무끔만 허영 집이만 시꺼오민 힘들 거 었어. 그냥 조근조근 놀어붙면은.

104021 @ 출 누는 건 어떻게 늡니까?

104021 #1 놀 우이 올라 강 이디 혼 못 툃 데끼고, 혼 못 데끼고 허민 그 놀 우이 사름 이시면은 조근조근 영 츄츄츄츄.

104021 @ 밧에 무신거 봐야 웨지 안해?

104021 #1 무신 낭트막 그튼 거라도 무시거 밧에 가면 그 출이 서글거니까지 보리라도 공글공글 낱 그디 공기 들어가게 해 줘야해.

104021 @ 그거 무신 거엔 곶아?

104021 #1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아래 밋에 깐 거니까.  
 104021 @ 놀굽은 무신거봐?  
 104021 #1 그것이 놀굽이지.  
 104021 #2 놀굽은 핫튼 물 안들게끔 공고롯이 놔서.  
 104021 #1 출이 영 놀면은 녹이 올랑 서그카부텐 낄지 하영, 두둑허게. 이 출을 그르쳐불카부텐. 이디가 두둑허게 낄아줘야 땅짐이 올라와도 안 석지.  
 104021 @ 출도 잘 싸야지예, 잘못허민 벨라져불지 안해?  
 104021 #1 아니. 출은 질이 놀기가. 보리놀이 놀기가 낄지. 출놀도 놀기 좋아. 출은 풀랭이가 깨늘아부니까 일로 꼭꼭 누루뜨고. 뱅뱅뱅뱅 돌라가. 뱅뱅뱅뱅 돌아가민 동글락허게 가운데 강 또 흥번 돌민 쪽 메와지멍 놀이 곱닥허게 놀어져.  
 104021 @ 꼭대기에는?  
 104021 #1 꼭대기민 또 영 마무리 지음이로 이렇게 해가다가 노람지.  
 104021 @ 노람진 무신 걸로 멘들아?  
 104021 #1 새. 새로 멘들양 이젠 이디 더끝 건, 건 주지. 건 어욱. 어욱 비어당.  
 104021 @ 주진 어욱으로 험니까?  
 104021 #1 어욱 비어다근앵에 주질 영 씨울 거. 정혜나민 이제 칙이랑 뭐 걸어 당 불려나카부텐 놀. 불려나카부텐 막 칙이영 막 해당 낭께기 해당 출르러레 꼭꼭 쫓르멍 노람지 불려나지 못허게.  
 104021 @ 그거는 칙으로 험니까? 석으로 안행.  
 104021 #1 아니, 아니 칙 걸어당. 석이 시민 종주만은 하지 안허주게. 칙은 이디 나가민 막 걸어올 수 이시난, 하난.  
 104021 @ 칙이엔 곱읍니까, 꼭이엔 곱읍니까?  
 104021 #1 꼭이엔 허고 칙이엔 허고.  
 104021 @ 옛날말로.  
 104021 #1 칙이엔 우린 잘 곱아져.  
 104021 @ 아, 칙이엔 곱아났수과.

### 멜감

@ 지들커 해난 말 곱아줍서.  
 #1 멜감, 불멜 거.  
 @ 무신거 무신걸로 지들커 험니까?  
 #1 가민, 이디 나가민 이름이 하. 그냥이 헛득헌 가시當舖은 것덜이영이 구름페기 여 무시겨여 낭ㄱ추룩 요만씩헌 거 무끄멍 지어오고이. 이제는 소낭이 더러도 그때는 막 소낭이 하이. 그때 굽쟁이 앓앙강이 시월달 날 브름만 불어나민이 거 것젠이 막 욱심허영 세백이 가.  
 @ 무신거?  
 #1 솔섭 떨어진 거. 그거 허여당 집이 막 놀어, 놀ㄱ추룩. 하영해당.

@ 그거 하영 허민 어떻 정 읍니까? 털어져볼지 안해?

#1 일로 이만이 허게이 혼 못에 무꺼.

@ 어떻 무꺼?

#1 그때는 그 노끈, 베가 잇어이, 베. 앓앙 갓당 영 베 세동에 낵 저추룩 현 낭게 기 닳은 거 독독 낵 솔섭을 막 그레 안아 낵. 이젠 둘이가 막 췌와, 무꺼. 무끄민 급쟁이엔 현 걸로 양 풀랭이 탁탁 치민이 멋지게 방데험직이 멘들아져.

@ 건 무신거엔 곶아?

#1 솔입 보달.

@ 솔입 보달.

#1 경 보달 청왕 이젠, 지게, 지게로 그 지게 가맹이로 그 보달친 걸 꼭 찍르면 반은 찢러질 거 아니. 반은 찢러지면은 우에만 또 놓면은 거창허니까 지게 받꺼지 건즘 가게시리 두 개 멘들앙 지영 오젠허민 하나 보달은 발로 영 꼭 질렁 준등으로 허고 또 거 영 일러 세우면은 또 흐뎡 죽은 거는 그 우트레 낵 두개 허영 지어와. 거문 하영 허여 온 날은 흐루 두어번 허여와. 허여오민 문딱 강 욱심허영. 느나 옛 이 그때는 그런 거 해당 지들커 헐 때라부난 새백같이 못가문 강 걷어오지도 못헤 잘이. 하영 헤영 걸어놓면은 하영 현 때는 구르마 신 때난 구르마로도 강 열 개도 시꺼오고, 여덜 개도 시꺼오고. 경헝 우리가 살아완. 이 앞이 해당 막 놀 놀어. 게문 그 놀을 헤치구정 안헤영 아까왕이 또 강 해당 또 건 함빠로 지드곡. 건 놀을 어느 제사 허젠사 험신디 아까왕 걸 빠명 안 진젠만, 게도 언젠가는 빠명 지더야헐 건디 임시 곧 헤다논 때는 아까왕 또시 강 해당 함빠로 지더.

@ 함빠로는 뭐? 일본 말?

#1 일본말일테지. 그냥 아까완 헐리지 못허난에 강 또 해당 지드난. 건 그자 외로 헤단 지든 거라. 아깝게시리.

@ 췌똥 똥똥도 주서당 헤 낫수과?

#1 저 바래기만인 현 가마니가 이서이. 저 욱지서는 그 나룩대로 짜준 가마니. 오톤가마니, 사툰 가마니헤 그때는이. 오톤 가마니 큰 거 앓앙 가민, 일로 나가민 그때는 몰덜을 하영 질룰 때난에, 곶채 앓이고 그 몰똥은 젓인건 안 줍곡, 베어볼카 부텐. 지영 오젠허민 벨거난에. 그냥 몰른 걸로헝 그 오톤 가마니에 깝깝 담양 이젠 지듬직현 낭게기 이추룩 현 거헝 가마니입 막앙, 칙 걸영 이젠 그걸 막 엮어, 쏘아 지지 못허게. 경허영 이젠 지게에 낵 지어앓영 오민 곶똥 지드고. ㄹ시락. 보릿ㄹ시락에 또 흐뎡씩 낵 허민 구들이 오래 더워이. 타는 율이 뜨니까.

@ 아, 아.

#1 경헝 살아난 거.

@ 췌똥허고 말똥 주스레 드르에 강.

#1 췌똥 줍기는 힘들어이. 커부니까 잘 안 들르고 말똥은 도록도록 털어지니까 요만씩 허니까 재기 들르문 그런 걸로만. 경헝 땡기당 췌똥이나 시민 영 데쌍 내불어 아무때라도 아무라도 주서가게. 들르게. 땅에 탁 부뜨민 안 들를 거난 발로라도

특 차불민 데싸지지. 경행 내불어. 경허멍 이제까지 살아온 거.

@ 나무는 아무거나 그창와도 돼여?

#1 응, 게민이 그때는 술섭 앓아올 때민이 요추룩헌 공쟁이라고이 대 막 진진헌 대막대기ㄴ추룩 공쟁이가 이 낭에 그 섭파리 떨어진 삭다리가 이서이. 그걸로 허민 딱딱 꺼꺼져. 게면 그것도 칙 걷어당 무쟁 서너 못 만들양 지게에 꺾사 그추룩 췌 영 지어 앓양 오고.

@ 낭도?

#1 그 술섭에 이파리 다 떨어정 죽어가는 가지가 이서이. 그런 가지 그냥 요추룩헌 공쟁이 멘들양 강 진거 저 문 입쟁이만인 가져가민 영 걸렁 풀렝이로 강 영 허민 똑똑 꺼꺼져. 이만큼 부레기 헌 거라도 다 꺼꺼져.

@ 그건 뭐엔 이름 엇수과?

#1 삭다리.

@ 죽은 낭 말고 그 공쟁인?

#1 공쟁이, 공쟁이.

@ 그냥 공쟁이?

#1 공쟁이 행 강. 걸렁 등길 거니까. 나무에 이파리 엇은 건 죽어가는 거라. 술이 파리가 엇은 거. 그거, 나뿐 아니 느나 헐 거 엇이. 그런 허연 산 사름이 해주. 이제 는 다 고급으로 살아부난에 그런 거 저런 거 몰르는다.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이 문 딱이주, 문딱. 문딱이엔 헐수도 잇어. 어디 연탄이 이서, 무시거가 이서, 아무것도 엇주. 기자 경허민 우리 우이 어른덜 하르방덜은이 시아버지ㄴ쁜 어른덜은 드르에 강 이만씩헌 낭 끈영이 이디 누게 어디 시에 몰르게이 시청인가 어디서 몰르게 막 낭을 끈어. 이만씩헌 낭을 톱 앓양 끈영 쟁 구들에 화리에 불 살를 거. 그디 땅 팡 문영 솟을 막 묻어. 겨당 솟들려놓민 과료 내곡이.

104026 @ 솟 굽는 거 봐낫수과?

104026 #1 구는 거 봐낫주, 구는 거는. 낭덜 그냥 이추룩 조근조근 경허민 이아 래 불 부쟁 그냥 흑 더경 내불면은 그 짐으로. 건 아무나 못헤. 경헤놓민 옛날엔 솟 장시가 이서. 저 옷드레 사름덜 막 솟장시가. 요만헌 베개만인 헌 것에 얼마씩 허고 오톤 가마니로 헨나에 얼마씩허민 사당 화리에 불 살랏당 저실허민 어제식으로 오 메기떡도 구웁 먹고 골미떡도 구웁 먹고 그추룩 헤낫지.

104026 @ 옷드르에서 솟 구웁 이디 왕 폼니까?

104026 #1 응, 옷드르 사름덜이 걸 잘 허지.

104026 @ 아멩헤도 낭도 하고예?

104026 #1 낭도 하고.

104026 #2 옷드르 돈이 안웨니까게, 것이 버는 거난. 무신거 돈이 나올디가 서?

104026 #1 돈이 나올디명 말명 때가 그런 때라노난 다 그식으로 살아왔주게. 우리엔 벨라고 다른 사름이엔 돈 낭 산 것이 아니난.

104027 @ 지들커 준비하면서 기억나거나 어려웠거나 힘든 일?



104027 #1 그것이 어롭지게. 지들커 허여 오는 것도이 아무나 강 재기 헤 온덴 헤도 물애기 든때도 못허고. 그냥 애기 어디 멧겨똥 강 불 땀 거 헤오젠 허는 사름 도 천지고이. 우리덜은 초상덜이 귀곳아부난 그런 걱정, 저런 걱정을 안헨 헤신디. 정 안헌 사름 애기 멧길디도 엇영 불 땀곰도 못헤오고 즈들지게.

104027 @ 귀곳아부난, 초상덜은 귀곳아부난 그건 무신말?

104027 #1 우리 초상덜은 귀곳아부난. 몬 할망 하르방덜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어린 아이를 나도 애기 멧겨똥 어디 갈 수가 이시니까. 초상덜 귀곳아부니까.

104027 @ 지들커는 보통 소똥, 말똥 그다음에

104027 #1 솔섬, 요디 나가민 구름페기 비데.

104027 @ 구름페긴 낭이주예? 낭 일름예?

104027 #1 낭이라도 크지 못허는 낭이라. 요디 나가민 뉘 북당낭이여 무신 무시겐고, 무신낭이여 허멍 이만씩헌 낭으로도 헤당 요디 데며와.

104027 @ 그런 거, 마당이 널러사켜예. 놀을 멧 개나 헤야 허는 거파? 출놀도 헤야뉘, 보리놀도 헤야뉘.

104027 #1 경허여. 보리놀은 츠츠 장만헤 갈거지. 보릿놀 놀엇당 다 장만헿 앓아불민 그디가 팔뉘 나가민 출이 오고, 가을 들어가민 이 곡석대도 들어오민 그때 놀고. 놀이 자꾸 엇어져불주. 게가민 벤소로 통시러레 다 담아냥 걸름 멘들아불고. 놀굽 멘들젠 허민은 보리냥 놀엇단 거 다 도새기 질루는 통시러레 다 들어가지.

## 사냥

104028 @ 옛날에 사냥도 헤낫수과?

104028 #1 아니.

104028 @ 허는 거 봐나긴 헤수과?

104028 #1 아니, 어떻헿 사냥 허는 걸 봐. 못 보지.

104029 @ 게민 꿩코 놓는 건.

104029 #1 것도 아니헤.

104029 @ 어디 밧디서라도 허지 안허여? 조꼳디서라도.

104029 #1 놓레 가는 인 이서이. 꿩 이신디이 잘허는 사름 장서방이엔 현 이가 이 어디 요기만 나가민이 그 설레비 낭이엔 현 가시가 요만씩 현 낭이 이서. 그 아래강 텅기당 보민 꿩을 두드려와. 요만씩 현 회추리 몽둥이 앓앙 텅기당 꿩이 새끼 낳젠 앓아시민이 어떻사 아는디 몰라. 두드려불민 꿩도 죽고 계란도 까져불고. 경허는 사름이 이서.

104029 @ 두드려 불어?

104029 #1 꿩을 두드려. 새끼 낳젠 고만이 곱앙 앓인 걸 강 두드려불민 꿩도 죽고, 계란도 까져불고 그추룩.

104029 @ 아이고.

104029 #1 겐디 꿩코 놓는 건 안 봐서. 아니 안 볼게 아니고 꿩코 논 건 봐 낫

어, 나가이. 고사리 꺼끄레 저 목장을 가신디 안겐 폭 찌서. 그땐 장갑도 었은 때라이. 고사리 꺼끄젠 영 덤벌레 가단보난 꿩은 사름 보난 노래언에 코에 든 거라이.

104029 @ 아이고 아이고.

104029 #1 코에 들인 파닥파닥파닥 허여가난 영헨 보난 꿩이라이. 거 명칭허게 시리. 장갑이라도 찌시민 장갑도 아니헤신디 막 줌진 실겍닭은 쉼줄, 쉼줄로 코 난 놔선게. 그걸 나 봐낫주. 요추룩 헌 낭에 그 콜 놔부난 사름소리 나난 호록허게 기어든 게 그냥 코에 걸어분 거라. 거난 이젠 꿩은 심은덴 말은 들엇단에 요만헌 꺾는 목때기 간 꿩을 막 두드러서. 탁탁탁탁 두들단 보난, 꿩이 죽은 책 허여이. 죽은 책 허난 이젠 손은 막 안개에 이실에 물르난 손은 막 물어서이. 아 그놈으 실겍닭은 걸 영 허난 손 두 개가 이거 문착 끊어져불언. 아고아고 어떻헨 좋으코, 어떻헨 좋으코. 경해도 영 보끈 심언에. 그놈으 걸 니빨로, 니빨로 끈어서이. 실겍닭은 거난 끈어져. 끈어전 이젠, 친구덜이영 어머니도 간 때난에 ‘어머니 꿩 심언, 꿩 심언’ 허난. 장꿩이란게, 벌경헌 장꿩이란게 영 심으난 손도 젓고, 깨는깨는헌 실겍닭은 거난 수루룩 허게 그냥 털어져분 거라, 베난이. 아그냥 푼다푼다푼다.

104029 @ 도망가불언?

104029 #1 돌아난. 암만 좇아도 못허난. 윈 좇단좇단 버천. 어디강 죽어사신디 살아신디. 그런 예가 나가 이서낫져. 이제도 굴민 막 웃어. 윈 그걸 손으로 끈을 생 각이 무사 남광, 이 손가락 두개가 문착 끈어전.

104029 @ 꿩독새기도 주서지지 안헨니까? 고사리 꺼끄레 갓당도.

104029 #1 주서도 우린 안 주서. 우리 밧디 재작년도 밧디 열네 겔 나서이.

104029 @ 꿩이?

104029 #1 꿩 새끼를, 고사리밧디니까이. 꿩이 노시 아니 놀앙, 고사리를 영 줄 지영 꺼꺼가단보난 포로롱허게 난난 그디 가보난 새끼가 열네 개랏어이. 아이고 이 걸 어떻허민 좋코. 아이덜이라도 요디 꿩 새끼 낳젠 허민 그냥 봉가불카부텐. 옆밧디 대썩 저추룩헌 앗앙간 나가 나만 알기 좋게 꿩알신디 간 영 찢런 내불어. 고사리라도 꺼끄당 불라불카부텐. ‘아이고 저 대이신디 꿩 알 열네 개나 낭 이서라.’ 허난 헨나새끼 아방은 ‘강 보쿠다, 보쿠다’허곤테 ‘내불라, 보민이 문직구정헌다. 문직지 말앙 내불라. 지가 사름 땡겨가민 물어가분다.’ 사름 땡건 봐 낫젠이 그놈으 것이 죽어도 아니 심어가. 죽어도 안 물어간 그냥 어떻헨 땡기단 말젠 보난 엇어불어서, 것이. 꿩새끼 잘 봉그젠 안헤.

104029 @ 봉그젠 안헤.

104029 #1 옛날에 이제꺾치 계란 었인 때난이 잘 심어, 봉그젠 허주. 이젠 꿩새끼 봐도 잘 심젠 안헤. 소나이덜이나 그자 걸 봐지민 봉그주. 소나이덜도 봉글 일이 었주게. 그런 드르 안땡기니까. 밧디 덜을, 밧디가 아니고 산엘 땡겨야 그런 것도 볼 건디.

104029 @ 할아버진 꿩코 놓고 헤 낫수과?

104029 #2 에에 그런거 안헤. 그거 허는 사름도 잇주.

104029 @ 그런 거 안해 봅디가? 재미로라도.  
 104029 #2 에에, 취미가 있어.  
 104030 @ 노리?  
 104030 #1 그것도 있어.  
 104030 @ 노리 겨울 돼민 내려오고 험니까?  
 104030 #1 응, 내려온덴 허주.  
 104030 #2 가끔.  
 104030 #1 함덕도 내려와 낫수게, 저 스투물에, 혼 해. 눈 막 하영 묻은 때. 눈 하영 묻은 땀 내려도 와.  
 104031 @ 옛날 지달이도 잡으레 다니고 해낫수과?  
 104030 #1 우린 그런 것도 안해낫어.  
 104030 #2 그런 전문가가 잇주. 개 기르면서 그런거 잡으레 멩기는 사름이 이서.  
 104030 #1 지금도이 개고, 득이고 질를 생각 있어. 집도 추접허고. 개부름씨도 허기 실평 개 질루구정 안해.  
 104030 @ 개부름씨도 허구정 안해여?  
 104030 #1 응, 득도 옛날은 막 집집마다 득소리 나곡 질루렌해도. 경허단 그루 후젠 집이 추접해서 아니 질좌.  
 104030 @ 옛날은 득 질좌나실 거 아니좌?  
 104030 #2 혼 사오십 므리.  
 104030 #1 경허단 다 죽어불언. 물 코 내려부난 물 먹어 가난. 뵙아리 사다뵓단. 옛날엔 이디 낭도, 텡우지 낭이엔 거 이서난. 그 아래 질루단 물코 내려부난.  
 104030 @ 물코 내린 게 어떤 거?  
 104030 #1 빗물덜이 저 우옛집에서 글로 내려부난 물 하영 먹어 가난 죽어불언.  
 104030 @ 물을 먹언, 많이?  
 104030 #1 응 먹어가난 죽어불언. 우리도 먹지 못허곡 누게 앓져당 잡아먹어불라, 잡아먹어불라 쥬불엇주.  
 104030 @ 사냥허는 사름 이디 함덕엔 엇어낫수과?  
 104030 #1 몰라 요새 젊은 사름덜은 잇긴 해도.  
 104030 @ 아니 옛날에.  
 104030 #1 엇어 우리 알긴디. 노리 맞좌 왔져, 무시거 헛져 해도, 어디 웃드르 사름헤은 노리고긴 먹어봐도. 이디 사름덜은 헛 거 못봐.  
 104030 #2 그런 사름덜이 잇주 가당오당.  
 104030 #1 아 육지는, 육지엔 현다. 저 산에 사름덜 산촌에 사는 사름덜은 그런 걸 잘 헤여.  
 104030 #2 엇이니까.  
 104030 #1 헛 거 시나 엇이나 추미 부짱 허는 사름은 헤.

## 5. 바다일

105001 @ 바다에서 허는 일은, 바닷에선 어떤 거 험니까?

105001 #1 바닷에 안 텡겨부난 그런 거 몰르지. 우리가 돌아텡기명 걷는 거는 옛날에는 바닷에만 가문이 문어도 잡아올 수 있고, 오분재기도 떼어올 수 있고, 소라도 잡을 수 있고 물찌 웨영 가면은. 그런건 허지 해너질은 못헤.

105002 @ 듬북허고 감태같은 것도 헤낫수과?

105002 #1 그런 것도 안헤. 듬북ㄴ쁜 거는 호끔 헤낫어. 노을, 바닷에 노을 와나 문이 바람불영 곳드레 올라오는 듬북은 헛지.

105002 @ 그건 해당 무신거 허는 거과?

105002 #1 보리밭되게 걸름.

105002 @ 아 걸름으로.

105002 #1 걸름 걸어. 걸어나민 그런 듬북 깎아나면은 조도 좋고, 보리헤나민.

105003 @ 보말이나 강이 같은 건 어떻 잡읍니까?

105003 #1 그냥 돌 일리민 하.

105004 @ 보말도 종류가 여러개 잇수과?

105004 #1 응, 돌포말, 코토데기, 떡보말, 수두리, 심방보말. 다 이서.

105004 @ 다시 한번 곱아줍서.

105004 #1 소라.

105004 @ 소라는 구쟁기엔 안해?

105004 #1 구쟁이.

105004 @ 그다음에.

105004 #1 그디 가면은 오분재기도 우리도 잘 떼어와. 낭푼이로 하나씩 떼어와.

105004 @ 보말 이름.

105004 #1 돌포말, 수두리보말, 떡보말, 코토데기.

105004 #2 가메기보말.

105004 @ 가메기보말도 이수과? 어떻 어떻 틀린 거과. 어느게 젤 큰 거과?

105004 #1 소라가 크지.

105004 @ 소라가 크고 그 다음에.

105004 #1 맛있는 거는 오분재기가 젤 맛좋고.

105004 @ 거말고 떡보말, 코토데기, 가메기보말은?

105004 #1 떡보말이 맛도 좋아.

105004 @ 색깔이 거명허여, 커?

105004 #1 크명말망 요만씩도 허고 존 것도 있고.

105004 @ 야이가 커 호끔?

105004 #1 이거나 이거나 크는 울은 고평.

105004 @ 특징이 있어? 어떻 다른지?

105004 #1 다른 건 맛이 이것이 틀려, 더 걸어. 등거와. 돌보말이 침, 떡보말이.

105004 @ 다른 거는?

105004 #1 다른 거는 돌보말은 쓰롱해도 얼마 하영 못먹고이. 코토테기도 맛이 있어. 무신 죽꺄쁜 거나 무신 건 안해도 영 까먹는 단. 이 수두리하고 떡보말은 죽 쭈른은이 흥뽀름 헤다놔근엿에 침기름이나 농곡 보끄당 죽 쭈민 전복죽 저레 데껴볼 어.

105004 @ 보말죽 요즘 식당에서 풀아마씨.

105004 #1 요거는 두번 곶을 나우 엿고, 오분재기.

105004 @ 오분재긴 두말할 필요가 엿고.

105004 #1 점은 때논이 아침물이 더 잘 싸이. 그때 가른은 진짜 허대는 말이 아니고이 낭푼이로 하나씩 떼어와이. 이제는 그런 식이 엿어. 것도 어둑엿지, 그때도.

105004 @ 물질 안해도예

105004 #1 바당에서 해너들만 살아 놓고. 그 때는 물쌀 때면 앳물 싸고, 젓물 싸고이 앳물이 더 잘 싸이.

105004 @ 앳물은 뭐고 젓물은 뭐?

105004 #1 젓물은 이제 싸는 게 젓물이고 앳물은 물 때가 늦엿이 열물 넘어가민인 아침이가 물이 잘 싸.

105004 #2 아침 저녁을 말허는 거주.

105004 #1 젓물은 열물이 넘어가민 물이 덜 싸. 계난 앳물에 가면 싸는 물찌에는 물이 막 바당에 다 들른 것꺄찌허민 그런 걸 잘헤저. 텅기당 보민 뭉게도 떼올 때도 잇고 전복도 떼어와지고 그냥 우린 해너 아니라도 바당에 돌아텅기명. 요 곳 바위에서만 살멍 커오난 그런 걸 자 해와져났어.

105005 @ 강이도 종류가 여러 개 잇수게예? 무신 강이 무신 강이.

105005 #1 똥강이 잇고.

105005 @ 똥강이.

105005 #1 풋강이 잇고.

105005 @ 풋강이.

105005 #1 저 거시기 무시것고,

105005 #2 춤강이.

105005 #1 발 붉은 것꺄라 무신 강이엔 곳 곶아지켜만은 것이 질 쉬운 강인디 못곶을켜.

105005 @ 표준말로 꽃게 같은 거?

105005 #1 꽃게 또 또로 잇어. 참강이, 풋강이, 보리강이.

105005 @ 보리 강이도 이서?

105005 #1 게메 이제가 강이가 막 한 땀디. 강이가 준 때라이. 음력 오월달에는 알도 다 배곡이 막 강이가 슬져. 게민 우리 두린 땀 할마님 믑실 때고 허난 우리꺄

라 ‘깁이 잡양오라. 죽 쭈영 먹게, 죽 쭈영 먹게.’ 죽을 쭈영 먹어난. 깁이 하, 그때는. 재미나게 잡아와 그때는 주전지 앳양강이 큰 주전지 하나씩 잡아와. 이제는 어려워와도.

105006 @ 흑시 햇불로.

105006 #2 낙지 잡아.

105006 #1 우린 그런 거 잘 가진 안해도이 옛날엔 집이 초가집이 새로헌 집이 난 그런 것덜 거뒤당 요만 부레기씩 영 막 무껴. 경허민 혼 짐 지영강 불 부짱 그 거 들렁 텅기명 낙지 나온 거. 우린 못 심어봤어, 그런거. 늬 허레 가는 거 봐도. 허지 못헤 므스왕.

105006 @ 뭉게 아니고.

105006 #2 뭉게 아니고 낙지, 낙지.

105006 #1 시에 오일시장에도. 낙지 튼나고 뭉게 튼나고. 낙지 잡으레 햇불 쌍가.

105006 @ 아.

105006 #1 햇불 쌍 가는 인, 바당에 가는 인 햇불 쌍 강. 이젠 그런 검질이 엇어부난 그자 기름 걱정. 옛날에는 전복도 떼오곡 구쟁이도 하영 잡아오곡.

105006 @ 그것도 햇불 쌍 강?

105006 #1 수두리보말도 막 하영 잡아오고.

105006 @ 밤이?

105006 #1 응.

105006 #2 물들어올 땐 부각부각 나오고, 보말이건 뭐이건.

105006 #1 저 서목 코지에 가민 전복도 막 하영 떼어오고 헤낫어.

105006 #2 아뭇튼 간에 밤에는 물 줌 맞이민.

105006 #1 이젠 경 안합니다게. 해녀덜이

105006 #2 게메 그시절엔 햇불 싸민 그냥 쟁이고 뭐이고 그냥 부글부글.

105006 @ 불 이신디레 모여?

105006 #2 불 이신디 막 모여. 게민 낙지도 잡고 보말도 잡고 꿩기도 잡고.

105006 @ 강 주성 오는 거구나예?

105006 #1 그냥 돌아 땡기주, 불 싸 앳영 그냥. 낙지 잡는 사름 불 싸민 낙지가 주르륵 행 앞드레 온덴. 물도 짚은디 안 가, 낙지는이. 물이 요만이 현디 첨방첨방 땡기민.

우리가 결혼허기 전이는 바당바위 살아노난이 굴쟁이 아시곡 행 가민 요추룩 고 망난디가 보면은 조개 거풀이나 무신 거 막 나오민이 요 고냥에 손 꼭 찢렁 손 들 어가는냥 이거 파민이 막 파당 보민 이만큼은 파져이. 그 소굽에 낙지가 들어있어. 낙지 고냥 알아져. 거민 낙지 잡아왕 그루 놓곡 행 국 끌렁 먹언.

105006 @ 국 끌렁 먹언. 갯담, 원담 허는 건 무신거 마씨?

105007 #1 이제는 갯담도 엇고 원담도 엇어이. 갯담이엔 현 건 저것이 바당이민

이건 굿이면은 영 굿부짱 담을 다와이. 계민 바당에 멜도 지쳐불고, 정 허는 거 갯담. 그 안네 멜이 들어와.

105007 @ 아, 갯담 안에 멜이 들어와, 물들어오민?

105007 #1 민 저것이 바당이민 이건 굿이민 요디 도 끈어정 저레 못가면은 그 걸로 성창 멘들양 글로 바라가는 것이 갯담이라. 갯담 안에는 물이나 멜이나 하영 든 때는 그 안네 멜 들어왕덜 막 허레 가고.

105007 @ 이디 함덕도 그런 거 해낫수과?

105007 #1 이서낫주. 이젠 그 저 갯담이 엇어. 몬딱 썰어불언 엇어.

105007 #2 우리 열 멧 설에 왜정때.

105007 #1 열 멧 설에파, 요작이갓지도 이서낫주.

105007 #2 작살이영 앓앙뎡기명 고기도 쏘꼭 다해난디.

105007 @ 그 갯담 안에서?

105007 #2 물 들어왕 나가지 못허영 즘자당 보민 나가지 못허영 증가져. 계민 작살 앓당 쏘아. 이젠 그때만이 혼전허지 못헤. 시대가 변동돼가난 것도 변동돼불어 신가.

105007 #1 변동이 아니고 사름이 워낙 하난.

105007 #2 잡는 사름 엇거든게.

105007 #1 잡는 사름 엇수과? 잡는 사름 천지주. 잡는 사름이 엇엄시민 해주만 은.

105008 @ 갯담은 무너지거나 허민 다시 잘 어떻 싸야?

105008 #1 어른덜은 경헤낫어. 이젠 다음 버릇도 엇고 그 원담 시면은 그냥 그 소곱에 보말이고 소라고 해싸부난 이젠 그럭저럭 허단 보난 그 원담이 엇어분 거라.

105008 @ 갯담이엔도 허고 원담이엔도 허고 똑 ㄴ쁜 거?

105008 #1 갯담.

105008 #2 비슷한 말인디 옛날 노인덜이 하르방덜이 아무것도 헐 거 엇이난 돌 모두명 그거 다 막은 창도 허고 경 막음도 헛지. 우리 세대에도 그런 작업덜 엇고. 옛날 하르방.

105008 #1 옛날 하르방. 이제 사름덜 그거 허렌 허민 죽을 걸. 그 돌 다 지꼭.

105008 #2 우리 이제 구십년이 다 웬디게. 백년 넘은 하르방 헛거난 지금사 당추.

105009 @ 함덕은 멜도 하영 잡아낫수과?

105009 #1 제주도에선 이제는 배로덜 멜을 거려부난 헛주. 제주도에서는 함덕 멜이 썰 하영 거려. 바당이 워낙 좋니까 소문 난. 함덕 서근 멜장시. 우리가 예를 들러 두린 때 어디 가민 ‘함덕 서근 멜장시, 함덕 서근 멜장시’ 헤낫어.

105009 @ 무사 경 곤는 거?

105009 #1 멜이 워낙 하난 서거 서거. 겨난 옛날은 그냥 어디 요작이도 곱아져

라만은 모살밭디 널민 그거 거름 허민 몬 모되당 담 당 흑으로 막 불랑 세멘허듯 불랑 그 속에 낱.

105009 @ 멜을?

105009 #1 멜 들른 거름. 보리 갈 철 나민 거 고랑더레 영영 다 낱 보리 갈아. 게민 걸어.

105009 @ 거름으로? 먹을 걸로 아니고?

105009 #2 막 넣어정 멜이. 함덕 섞은 멜장시 옛날 함덕 사름은.

105009 #1 서근 멜장시엔 소문 나난. 통은 막 크게 이만인 현디 낱 흑허영 이디 막 불르민 세멘 현 거 닻으주. 영이젠 웻막그추룩이. 영 지서근에 그디 또 노람지 더꺼근에.

105009 #2 함덕 해수욕장에 몽골사름덜 왕 전투 부뎡. 격투 벌어정 해골덜.

105009 #1 이젠 그 해골이 못 봐. 빼다귀 못 봐.

105009 @ 멜은 어뎡 잡는 거파?

105009 #2 그물 청. 게니까 이것이 큰 배 두 척이민 그런 그물을 다 배에 시깁. 게민 사름이 이십미터, 싸움판, 큰구물, 세백구물 이 함덕만도 네고지가 이신가? 물 때 맞창덜 아무 군은 먼저 선착순으로 선진이라고. 후진은 그사름덜 작업해난 다음에 멜 들어와도 잡주. 순번이 이서.

105009 #1 우리 당번 식으로.

105009 #2 당번식으로 바다 싸움으로. 큰구물, 싸움판, 새선진 뭐 구미이 혼 서너니 개가 웬디 난리가 데싸지지.

105009 #1 경해부난 함덕 서근 멜장시엔.

105009 @ 아까 무신 거 싸움판?

105009 #2 싸움판, 이름이 싸움판.

105009 @ 거 뭐허는 거마씨?

105009 #1 멜 거리는 이름이.

105009 #2 구미, 구미.

105009 @ 구미?

105009 #2 조가. 이삼십 명 돼는다.

105009 #1 세백구물

105009 @ 세백구물?

105009 #2 이름이 세백구물, 큰구물.

105009 @ 큰구물?

105009 #2 응, 큰구물.

105009 @ 또?

105009 #2 싸움판.

105009 @ 싸움판.

105009 #2 새선진.



105009 @ 새선진.

105009 #2 네 개, 네 개. 돌아가명덜 뭘덜 잡아.

105009 @ 뭘 잡는 모임이파?

105009 #2 순번대로 허는거. 물 때 맞창,

105009 #1 아니, 하르방 곤단 중간에로 돌아부난. 뭘 강 어떻 거려옵니까 허는 걸 동으로 서이로 몬여 곤안.

105009 #2 목선으로 멘든 거 그물 시끈 배가 있어. 그 그물 싸움판 허는 것이 두 척이서. 하난 인부 시끄고 하난 그물 시끄고. 게민 자기가 아다루 뉘 순번은 일 차로 딱 물때 맞창 해상이엔 현 배가 있어. 배 들어왓나 안들어왓나 감시허는 두서 이가 해상이라고 허는디.

105009 #1 뭘 안 들어왔젠 허민 그물을 안 풀어.

105009 #2 이젠 전화라도 있나. 그뎨 전화 엇인 때난 말로만. 그자 물때 맞창 나가. 딱 대기허당 그 해상 들어가 뭘 들어오는 거 감시허당 무신 전화가 있어? 말로 아가리질. 양 쪽으로 그물 낚 딱 포위해낚 끄서와. 뭘 언과놓민.

105009 @ 배가?

105009 #1 배가 아니고. 이 하르방 그물 거려나도 몰라. 저만이민 배 하나가 이 곳드레 와. 저런 전선줄 닳은 이만이 현 부락진 배가 있어. 그걸로 곳드레 주면은 저쪽으로 이쪽으로 양쪽으로 막 이여차 이여차 허멍 막 그물을 등겨. 겨민 그 가운데 뭘 싸정 그냥 곳드레 막 들어오민 뭘이 바닥탁, 바닥탁 허여. 경허민 그물이 이 거민 이 끄뎡이, 저 끄뎡이 드리민 이 가운데 뭘이 짝 차이. 게민 막 곳드레 돌아오민 기냥. 우리ㄴ치 뭘팍 엇곡 무시거 현 사름은 그 뭘덜 허레 그냥 난리 나게. 곳드레 들어오는 뭘. 거려오는 사름도 하. 정해놓민 막 거려다 낚 물 싸곡 허민 그냥 이제 모살뵈드레 혼 놈의 앞의 그 뭘 뉘는 것ㄴ라 무시거엔 허는고? 뭘 대는 배 닳은 것이 서. 큰 거 이만큼 현 거. 너이가 들렁 이레 비와주고. 게민 구덕도 이젠 그런 구덕 엇어. 이만큼 현 구덕이엔 현 거 이서. 그것드레 뭘 탕 이젠 지계에 정 이젠 모살판드레 다 지어올리는 거라, 널레. 거름헐 걸로.

105009 #2 거름, 거름.

105009 #1 그거 그거. 함덕이 뭘은 잘 거려나실 거라.

105009 @ 아까 세백그물, 큰그물은 무신거?

105009 #2 일름, 명칭, 구미, 삼십명이 한조민.

105009 @ 이거 사람 모임?

105009 #2 그 하나의 조가 뵈주.

105009 #1 이 그물 임제도 잇고 이 그물 임제도 잇고. 다 임제가 있어.

105009 #2 한 그물에 이십명 이시민 다 조가 이서.

105009 @ 게민 만약에 할머니넨 세백그물 우린 새선진 이렇게?

105009 #1 우린 옛날에 싸움판 그물.

105009 @ 아 싸움판 그물 옛날에 할머니네.

105009 #2 우리 장인 어른이 싸움판 그물 도감.  
 105009 @ 도감은 무신거라?  
 105009 #2 그물에 책임자. 도감.  
 105009 @ 켜기 써는 사름도 도감아니? 잔치집이.  
 105009 #2 멜 허는 디도 도감. 대장.  
 105009 #1 이거 일년 웨민이 막 갯것디 강 곳을 허여. 메칠멧날 곳을 허여. 멜  
 곳 허레 가는디 가켄 허영 막 큰 심방 빌영 곳을 막 허여.  
 105009 @ 멜곳도 허여?  
 105009 #1 막 무시거 곶아도 몰르주만은 도체비 모상이 막 멜곳허는 것이 말도  
 못허게 허여. 일로 심방이 해수욕장이 곳허는 장소가 있어. 그 장소에서 퍼작허민  
 오름 저 곳에까지 가근에 막 도체비까지 해 앓영 막 병것 씨고 행 곳허는 디레 들  
 어오고. 멜곳허젠 허민 막 므을이 들썩허게 허여.  
 105009 @ 이젠 안 허주예?  
 105009 #1 이젠 아무것도 엇어. 배로 뎅기는 것이 임제주. 이젠 배로. 엇어.  
 105009 #2 아 그뎨 멜도 하고.  
 105009 @ 그물이 네 개민 이 네개가 차례로 허는거파? 누가 좋은 거 허고.  
 105009 #2 다 그 조에서 제비뽑은 거라. 수요일날 누게, 금요일날 누게 이런 식  
 으로.  
 105009 @ 월요일은 세백그물이허고 화요일은 싸움판 이런 식으로.  
 105009 #1 멜이 들어오른이 이 그물 이거 네 짝이면은이 네 그물이 다 놀 수도  
 있어.  
 105009 @ 한꺼번에 다 나가서 헐 수도 있어?  
 105009 #1 멜이 하면.  
 105009 @ 한 그물 먼저 허민 다른 그물로 또 해?  
 105009 #1 판 방향으로. 판 방향에도 멜이 있어. 저난 이제는이 육지 요 추자궤  
 뜬디는 멜로 살지안해. 메리치 해불지 것도 그냥 통으로 담아불지. 거난 멜은 지금  
 엔 엇는 썸이지. 옛날에는 그런 식이 엇어부니까 함덕엔 워낙 장소가 좋아노난 멜  
 이 잘 들어왔주. 다른 디도 좋주만은 함덕이 잘도 장소가 좋주게. 마을도 크고.  
 105009 @ 그물도 손보고 장만 해야지예?  
 105009 #1 그물도이 막 찢어져이. 오늘 아척이 그물로 멜 거러냥 모살판에 강  
 몬 널어. 널민 그 그물 찢어진거 회원덜이 강 작업을 해. 그물을 갖아이, 주워. 경혜  
 영 이젠 또 몬 개영, 영 소랑허게 개영 이젠 몬 옷독지에 매영 또 그물 누는 디가  
 서. 영 발 네 발 세왕 그 우이 다 사령 낫당 멜 걸리레 시경 배레.  
 105009 @ 매날 매날 가는 건 아닐거 아니파?  
 105009 #1 멜이 들어온 때만 허는 거라부난.  
 105009 @ 메칠만이 가는 거라?  
 105009 #1 이건 몰라. 멜 들어오는 것이.

105009 @ 계민 뭍 들어오는 줄 어떻 알아?  
105009 #1 해상배렌 허메. 뭍 들어오는 사름 배가 잇어.  
105009 @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레 텡기는 배가 잇어?  
105009 #1 이다이 그물쩍마다 그런 배는 이서. 이거 이 그물에선 걸리 나가근에 뭍 들어오는거 엇인 거 다 알레.  
105009 #2 눈으로 봐서 다 허는 거.  
105009 @ 그물 마다 배는 멧 개?  
105009 #1 하나도 잇고 두개도 잇고.  
105009 @ 싸움판에는 배가  
105009 #1 하나로는 못헐 걸.  
105009 #2 그물 시끈 배 허나, 인부 시끈 배 허나.  
@ 아 인부 시끈 배 허나, 그물 시끈배 허나. 배두개가 양쪽으로 영 잡앙 허는거 파?  
105009 #2 그물 들어와, 계민 사름은 등겨.  
105009 #1 그물을 풀어주주, 영. 풀어주민 저곳으로 막 사름 멧 개헝 막 영차영 차허멍 땡기고 이 곳드로 땡기민 이 가운딘 뭍을 막 쫓어 땡기는 거라, 굿드레. 재 미잇긴 허여.  
105010 @ 퀘기는 어떻 낚아마씨?  
105010 #2 퀘기? 볼락도 나끄고, 심허게 험 때는 이까잡이도 허고. 소소헌 영업 배 허는 거고 묵호 강원도 두번 갓다왔주만은. 갓다가 살도 못헝 완. 빗 냉.  
105010 @ 배도 이서낫수과?  
105010 #2 아니, 놈으배.  
105010 @ 고기 잡는 사름은 뤼엔 곶읍니까?  
105010 #2 어부.  
105010 @ 보제긴 무신거파?  
105010 #2 보제기가 바로 그거 사투리 말이라. 한문으로 어부.  
105010 @ 나안턴 사투레로 곶아줘야주마씨.  
105010 #2 보제기헌 건 사투리.  
105010 #1 보제기덜 사흘만 브름 세민 강알 굶어분덴.  
105010 @ 무신거라?  
105010 #1 사흘만 파도 세면은 강알 굶어분덴. 건 무신말인지 몰르크라. 돈이 어룬덴 말인지 배고픈덴 말인지 옛날은 보제기로 사는 사름덜은이 땅도 엇고이 그 걸로 침 밧점 양석점 바당에서 사는 사름 말이주. 이제는 기계배니까 허주만은 옛날은 그냥 낙배로 가민 거 다 내영 다 젓영 어느 필바당 갓당 오젠허민 브름 만나 민 그냥 죽어불곡.  
105010 @ 아까 낙배가 어떤 거?  
105010 #2 조그만 낚시배.

105010 #1 풍선계, 풍선. 옛날은 기계배 ㄱ뜨민 얼른 브름 불어가민 기계 살루민 재기 올수도 잇주만은 그냥 영영 첫시명 오는 거라부난 먼 펠바당 갓당 오젠허민 오당보민 브름 만나민 죽을 수도 잇고. 죽는 율이 하주.

105010 @ 펠바당은 먼 바당?

105010 #1 먼 바당.

105010 @ 펠 이신 바당인가 헨?

105010 #1 먼 펠바당 갓당완 헤.

105011 @ 낚시대는 대낭으로 허는 건가?

105011 #2 참대라 해서 저런 대 말고도 왕대도 잇고 여라이 잇는데. 참대라고 헤, 참대.

105011 #1 옛날 갈치 나끄는 술은 이거보다 더 커.

105011 #2 갈치는 침술이라고 해서 건 바로 제라헌 거주. 갈치가 멧 개 물어도.

105011 #1 그냥 주낙술 헤다놔근에 도새기피 세경 도새기피 문착 세경 이거 퀘기 나끄는 줄이민 문딱 그걸로 홀트민이 몰르민이 그놈으 것이 바짝허여이. 바짝허민이 이추룩헌이 아으덜 얼레 닳은 걸로 이만큼헌 지레기 헌 것에 거꺼지지 못허게 감아정 그 조름에는 낚시덜 매어근에 고기 나끄는 걸로 헤낫일 거라. 간 보진 안헤도 나 피 맥이는 건 봐났어. 바짝허게 오그리지도 못허게 경허민 이런 것에 감는 건 봐났어.

105011 @ 건 뭐 헐 때 허는 거파?

105011 #1 갈치. 우리 외삼촌 허는 거 봐났주. 저만이 신 낭에 돌아매영이 험벽 에라도 피 무쳐강 영영 썰명.

105011 #2 배꾼이 서이 너이 ㄱ치 가도 갈치가 니껍 트더먹는 거 알아져. 이 수심 깊이를 아니 알려줘. 그사름 나끄는 거 보명 ㄱ치들어사사 얼마 차이 엇어. 그디 강 그사름 드리치는 거봐 허당 아다루 돼민 표시허영 감앙 허여. 어부라는 것이 박 허여. 말을 안 허여줘.

105011 @ 낚시대, 정술 이름을 곱아줍서.

105011 #1 춤대.

105011 @ 춤대에 무신거 무릅니까?

105011 #1 춤대엔 뽕돌베끼 더.

105011 #2 정술 매영

105011 @ 정술 매영.

105011 #1 뽕돌 돌아매영.

105011 @ 그다음엔 낚시 바놓?

105011 #1 낚시 파는 것이 이서. 영 오그라진 거.

105011 @ 요건 춤대 줄은 정술. 요건 뽕돌 요건 낚시. 정술은 무신걸로 멘드는 거파?

105011 #1 정술이 정술이난 옛날부터, 우리 두린 때부터 들어났어. 정술 말은.

105011 @ 어디 강 사옵니까?  
105011 #2 상점이 이서.  
105012 @ 작살로도 고기 잡아낚수과?  
105012 #1 요 굿딜로 히어 텡기명.  
105012 @ 아까 갯담에?  
105012 #2 물로 히어 텡기명 쏘는 사름도 있고. 외술로, 외낙시로 고무줄 메왕 탁 쏘는 거. 이디는 놀 멘들앙 이딘 톡 멘들앙.  
105012 @ 대나무로?  
105012 #2 대 헤영 발 가웃, 두 발 질게. 그디 히어 텡기명 안경 썩 히어 텡기 명 쏘아. 고무줄 메영. 그것이 작살이주.  
105012 #1 그런 건 하 이제도.  
105012 @ 옛날도 그런 거 해낚수과?  
105012 #2 아 그건 옛날부터 잇는 거.  
105012 #1 것도 고기 한 때주. 이젠 벨로주.  
105013 @ 고깃배도 여러 종류 잇수과? 큰 거, 작은 거 잇고?  
105013 #1 이건 우리가 몰라도 큰 거 작은 거 잇지.  
105013 @ 아니 갈춧배 딱나고, 자릿배 딱나고 험니까?  
105013 #2 자리 잡는 배는 벨도로 잇어.  
105013 @ 자리잡는 배 따로 잇어?  
105013 #1 옛날에 이제는 몰른디 터우.  
105013 #2 나무로 허영 무끄는 거. 사름 앓는 자리 멘들앙 거기서.  
105013 @ 이것이 자릿배?  
105013 #1 터우가 자릿배. 그 배 이름이 터우라, 터우.  
105013 @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105013 #1 영영행 짠 거. 팽상ㄱ추록이.  
105013 @ 잠녀덜 어디 실렁 가는 배는 무신거라?  
105013 #1 그 잠녀들 이제는 기겡배로, 옛날은 잠녀 시깡 텡기명 해녀질을 안헛 거든게. 이제는 잠녀 시깡 텡기명 해녀질 헛주, 옛날에는.  
105013 @ 벨 거리는 배는?  
105013 #2 건 크고.  
105013 #1 크명 말명. 그때는 기계 엇인 배난 그자 이제는 작은 배도 기계 메왕 톡 행 나가고 허난.  
105013 @ 함덕에 배 만들곡 허는 기술자 엇어낚수과?  
105013 #2 기술자 이서난디 그 사름덜 가불고.  
105013 #1 죽음도 허고 그 기술은 썩먹도 못허주.  
105013 #2 유선장이라고 함덕에도 유명헌 사름 이서난디 죽은디 막 오레서. 후 손이 대 물리지 안해서.

105013 #1 정허난에 이름이 유가고 허난 유선장, 유선장. 저 일구에서.

105014 @ 옛날에 즈너들이 무신거 무신거 행 와났수과?

105014 #1 아무것도 엇어. 메역베끼.

105014 @ 옛날에 메역베끼 안 해난?

105014 #1 메역베끼 안해난.

105014 @ 메역이 돈 하영 쥐 낫수과?

105014 #1 하영이멍 말멍 영업이 엇이난 그걸 영업으로 현 거지. 저 감탈?

105014 #2 감태?

105014 #1 감탈, 감탈. 육지 이름.

105014 #2 자그마한 섬에.

105014 #1 그디덜 메역덜 허레 가. 해녀덜이. 배탕 건. 막 먼딘 생이라. 관탈, 관탈.

105014 @ 아, 관탈섬.

105014 #1 옛날 해녀덜은 단지 메역 즈뭉 뿐. 이제 즈네덜은 안 허는 거 엇이 벨거 다 허연 바당 하나는 지네 관리ㄴ치 누게 잡사름 땡기도 못허게 허주만은. 옛날은 우리가 바당에 가도 메역을 못 툃아. 해녀덜이 그냥 헤여불민. 올린 영 이월들에 바당에 간 보난 메역이 꼭찬. 아이고 간 보난 안 웹직 허다, 메역은 막 이만씩 현 메역이 ㄴ득, 예라 안땡켜. 옷을 활딱 벗언 내의만 입언 이제 바당에 들어간 메역을 뒤 줌은 허난 아저와져? 가져오지도 못허고 이젠 아덜간 이제 차에 몬 시끄렌 헨 나이롱 아상 간 아래 끌고 헨 시꺼다 난 집이오난 막 널어놔, 동네 다 날라뉘 편편. 거 뵈허레사 허레 땡겜디사. 것도 전상이라 나도.

105014 @ 메역은 먹을 걸로 허는 거주예?

105014 #1 응 먹을 걸로 해단 동넬 문딱 준거라. 옛날ㄴ치 메역을이 귀허여, 어려와. 이녁 바당에덜 안 땡기는 사름은 어롭주게. 바당에 땡겨도 어떻 고리 맞추지 안허민. 메역이 잘도 종안 이만씩 현 메역이 치랑치랑. 해녀덜은 단지 메역 뿐. 우리가 바당에 강 젓어 땡기당 보몬이 소라가 살도 엇는 거, 빨도 엇는 것이 발로 두글락, 두글락. 무신 작지카부덴 허당보민 구쟁이 딱지가 헤뜨랑이 자빠지곡 행 이서. 이제는 그런거 엇어. 돈을 멧억준덴헤도 그런 소라가 엇어.

105015 @ 잠너들이 들렁 땡기는 도구는 이름이 무신거마씨?

105015 #1 테왁.

105015 @ 그다음, 그 밧에 이신 건.

105015 #1 망사리.

105015 #2 안경도 잇주.

105015 @ 안경은 무신거엔 곱아.

105015 #1 그땤 눈이엔 헤서. 눈 앓양 오렌 헤서. 이젠 이만큼 현 안경인디 그때는 요멘씩현 거. 쟈쟈현 거. 옛날 즈네덜은.

105015 @ 큰눈, 죽은눈 험니까?

105015 #1 아니 아니. 그때는 보통 이거라. 조끌락헌거. 이제는 아이덜 헤엄치레 감도 그놈으 거 앓양 가는다.

105015 @ 테왁은 무신 걸로 멘드는 거짜?

105015 #1 콧.

105015 #2 콧을 지붕우트레 올링 콧을 크게 허젠허민 그걸로 멘들아.

105015 #1 겐디 제주에서는 이만큼은 헌 테왁험직헌 콧이 안 열아. 우리 보건딘 안 봐났어. 어디 육지서 와신디. 그것을 놓면이 두루 익어도 테왁을 못허여. 잘 익 영 실굳어야 그놈으 테왁이 돼지. 두루 익은 거 해당 허민 물랑물랑허여, 것이.

105015 @ 아까 실굳어사는 무신 말?

105015 #1 실굳어야, 굳어야, 팡팡허게 굳어야. 굳어야 테왁 앓아 텅김도 든든허여.

105015 @ 속에거 다 파야지예?

105015 #1 막 플라가민 그디 동글랑헌 씨가 막 하. 이디 고망 딸랑 영영헤가민 씨가 술랑술랑헌 것이 문딱 나와. 번쩍허민 속에 거 엇어부난 가뿐허여. 경허민 영 엇어강 엇어강 테왁을 막 엇어냥 망사리에 부썬불민 것이 테왁.

105015 @ 고양이 막아야 돼어?

105015 #2 막아야주.

105015 #1 옛날은 이젠 망사리는 알로 무신거 나이롱이난에 확 클렁 확 제우민 돼는다 옛날은 미베, 어욱 풀렁이 빠당 짠 걸로 짠 거난 터진 것이 엇어, 아래 짬을 영 짱 이디강 췌와젓주. 이제 꺼는 나이롱이라노난 일로 알로 코 들양 확 홀트민 제와지고 풀어불민 메역이 아무만이 조물아도 알로 짹 빠져불어.

105015 @ 옛날은?

105015 #1 옛날은 경 엇어. 그냥 짜, 그냥 짜근에엥 뱅뱅 멘든거라부난 테왁 저 쫓달로 빠내사여.

105015 @ 망사리가 우에 이름은 트나고 요건 다른 이름으로 불릅니까?

105015 #1 아니, 아니. 요거는 어음.

105015 @ 어음. 이거는?

105015 #1 거는 망사리.

105015 @ 옛날은 이걸 미베?

105015 #1 미베쟁이 빠당. 어욱에이 우리 뺱이엔 행 그거 새면은 그디 꺾테기가 질겨. 게민 하르방이 막 꼬양 이걸 그물 짜듯 이추룩 짜. 짜 냥 이제 이 어음허는 것도 어디 소소한 딴 엇어. 어디 산에, 목장 가사 이런 걸 허여.

105015 @ 냥을?

105015 #1 이냥을 이거. 히울 거니까 뺱. 이거 소소한딘 엇어. 어음냥, 어음냥 허영. 경허민 이거 둘러놓민 요 망사리도 이거 족으면은 영 줄어지고. 테왁은 요레 어떻 행 돌아매곡.

105015 @ 전북 떼는 건?

105015 #1 비창.  
105015 @ 비창도 들르고 줌녀가 물질허레 가젠허민 테왁이영 비창들르고.  
105015 #1 비창은 우선 들르는 거 다텐. 호미허고.  
105015 @ 호미?  
105015 #1 호미 이름이 중개 호미.  
105015 @ 중개 호미. 그다음 또.  
105015 #1 그거허고 비창허고 물에 들레.  
105015 @ 비창허고 중개호미만 가정 가?  
105015 #1 비창은. 이 호미는 메역 빌거고, 요건 전복이나 봐지민 떼젠 허는 거. 전복이나 봐지민 호미로 못 떼지. 게난 중개 호민 이추룩 꾸작 현 걸로. 넓작헌 쉼 줄 헤영 영허민 전복이 걸어댕길 땐 영 건들민 그냥 톡허게 자빠져불어. 건들어나 민 이것이 탁 부떠부는디 그냥 이것이 발이 영 현 때는 일로 비창이라도 들렁 아무 쉼라도 영허민 헤씩허게 징계엇이 떼져불어.  
105015 @ 징계엇이? 징계엇이가 뭐?  
105015 #1 힘엇이 떼져불어. 전복 발이 영 영킨 때 영 건들민 톡 떼져불어.  
105016 @ 옛날 잠녀허고 이제 잠녀는 다르주예  
105016 #1 하영 달르주. 천지차이로 달르주게.  
105017 @ 입는 옷도 다르주예.  
105017 #1 고무옷 입어근에 바당에만 살아부난 바당에 것이 엇는 거라. 오래 살 아부니까게. 옛날에사게.  
105017 @ 고무옷 나기전인 어떻 헤수과?  
105017 #1 고무옷 나기 전인이 물샤쓰엔 행이. 광목으로나이 헤양케 적삼ㄱ추룩 멘들곡이. 적삼ㄱ추룩 멘들양 요만헌 소매행 입고, 소중이엔행이 허영 영 멘들아근 에 메친들양 영 췌영 입으민 그거 끝. 올로 단추들곡 허영. 그거난 얼 건 사실이지. 이제는 소꿉 고무옷 입으민 물 속에서 땀 난덴 허는디.  
105018 @ 톡은 어떻 헤낫수과?  
105018 #1 톡?  
105018 @ 톡.  
105018 #1 톡도 옛날에는이 바당에, 동네서. 이제는 해녀들이 딱 언광 꼼짜을 못허는디 옛날은이 바당에 들 사름은 들영, 돈 내영 들어이. 들엇당 정월이나 이월 나민이 톡즈문 헐 땐 든 사름덜이 다 강 거 톡을 허여. 허면은 이제 다 굿드레 지 어 올렁 ㄱ령 도속으로 폴아났어. 흠치 다 뭉청.  
105018 @ 도속으로?  
105018 #1 각자 앓지 안허영. 합청 헛당 폴아.  
105018 @ 나가 내년에 톡허켜 허민 미리 돈 내영 가입을 허여?  
105018 #1 돈은 내지 안헤도 가입이 췌 거라. 경허민 다른 사름은 이 톡허는디 못가. 이녁이 돈 췌 들어간거다 현거지.



105018 @ 함덕에서 내년엔 톨헐 사름은.

105018 #1 이젠 못해.

105018 @ 옛날엔.

105018 #1 옛날엔 경해났지. 이제는 톨 구경허젠 해도 못해. 해녀덜이 딱 언광.

105018 @ 옛날은 해녀 아니라도.

105018 #1 옛날은 해녀 아니고 기고 이걸 가입허젠 허민 해 낫주게. 몸 그쁜 거는 가입 안해도 하영 아니 나는 거난에 이녁이 강 허젠 허민 정월들 나쁜 눈 하나씩 헐 때 가쁜 속에 요만큼헌 내의만 입꼭헐 들어가민 술에 조광울 닳은 공기가 막 허영케 부떠. 그거 물에 들어가난 부글부글 허는 식이라. 허영케 부땡 강 들어강 구덕 차고 헐강 몸은 이녁만 땡기땡 끈어왕 혼 짐 지 아정왕 이녁 집이서 물리왕 풀앗던가 먹엇던가 허여.

105018 @ 톨은 단체로 공동으로 허는구나예?

105018 #1 톨은 질라농민 이만씩해, 기레기가 막 커.

105018 @ 일부러 질루는 거파?

105018 #1 질루는 거지, 건. 헐 때 뉘면은 이제 팔뉘 나가면 새톨 나가면 봄 날 때깁지 거 그냥 내부는 거라, 못허게. 이제도. 옛날도.

105018 @ 옛날도 경해난?

105018 #1 옛날도 임시해당 먹는 건 심허게 막진 안헐주게. 겐디 이제는 톨플랭이 돈직앗다허민 악메들 그치 사름 잡아먹엄직이.

105018 @ 톨고냉이?

105018 #1 톨떡젠허민, 톨플랭이 해오젠 허민 못허게 허여 즘네덜이 그거 하나 건드렷당은 림 죽엄직이 해녀덜이 해여.

105018 @ 아, 톨플랭이. 우미는?

105018 #1 우미도 이제 못허게, 옛날은 우민이 우미 해저 해젠허민, 텃젠 허민, 우미밭을 텃젠허민 건 아무라도 강 막 허여와. 바당에 익숙헌인 하영 허여이. 나 그치 서죽은 건 가민 기자 둥그러 땡기당 보민 헐출 허고.

105018 @ 건 공동으로 허는 거 아니? 아무나 강 헐 와도 뉘는 거.

105018 #1 공동으로 아니. 경허는 거. 아 옛날은 해신디 몰라. 우리 알건디는 건.

105018 @ 헐 오민 건 어떻 허는 거 마씨?

105018 #1 물리왓당 폴아.

105019 @ 폴아! 우민 어떻 만듭니까?

105019 #1 숲으는 거?

105019 @ 예.

105019 #1 숲으는 거사 쉽지.

105019 @ 바당에 강 헐 오민?

105019 #1 헐오민 돈물에 자꾸 빨곡이 그디 돌에 막 닳이 이서이. 보말 닳은 거

돌맹이 닳은 거 돌아지면은 과삭 몰르민 그 우미를 독독독독 못아가민 모살 닳은 게 다 떨어져. 떨어정 이젠 든물에 강 시시면 물이 허영케 모살 못아진 물이 나와 가민 혼 이틀만 발레민 불그룽헛당 또 세번만 적저가민이 헤영헤가.

105019 @ 한번 물에 담갓당 꺼내 말려?

105019 #1 응 짤물 헤와불면은 그냥 돌리거들랑 그냥 우미에 모살 닳은 거

105019 @ 그거 다 떼영 그다음은.

105019 #1 물에 등강 확확 시서 가민 그 모살물 까진 것이 헤영케 나와가고 또 돌리왓당 침 늦 이시면은 또 못사불변은 그놈의 것이 곱닥허여. 경행 세번 네번만 발화가민 헤영허민 그때는 솥아.

105019 @ 그때사 솥으는 거.

105019 #1 헤영케 발레사 그 우미 솥은 거 보민 곱지 안헤여게. 거 발레니까 우미로 별경현 때 그대로 솥양은 그대로 별경힐 건디게. 우미 헤영케 발레 놓민 고와 얼음ㄹ추룩.

105019 @ 솥은 다음은?

105019 #1 솥은 다음은 무신 망으로 걸러. 걸러근앵에 요것이 다라면은 다라 높이로 요만이만 놓게 영 그 다라에 걸렁 내불고 또 하영 솥으민 뜬 다라에 걸렁 놔 똥 오늘 저녁이 솥으민 널 아척이민 얼러 불영 탕탕허여. 그것이 우미주. 경허민 칼로 영영 비영.

105019 @ 냉국도 행 먹고.

105019 #1 복잡허영 안헤. 어디 누게 줌은 먹어도 허구정도 안허고. 그 우민 헤당 낫당 발레영 누게 쥐불문 헤도 솥진 안헤여. 허긴 허는디 가끔 헤도 이제는 전혀 안헤. 옛날에는 헤도.

105020 @ 전복하고 소라는 지금은 즈너들이 헤도 옛날은 그냥 강 행 와낫수과?

105020 #1 이녁 소망일민 강 떼와지고. 눈에 걸리민 떼오고.

105020 @ 이젠 다 해너들이 공동으로 허주예?

105020 #1 해너들끼리만 공동 똥주.

105020 @ 판 사름덜은 못허게.

105020 #1 소라도 잡으민 공동으로 풀꼭 다 험실 거라.

105021 @ 전복하고 소라도 종류가 여러가지파?

105021 #1 전복은 전복 뿐일거라. 종류가 엇어. 암커 수커는 잇지.

105021 @ 암커 수커는 어뎡 구분헛니까?

105021 #1 암커는이 납작허곡이 슬이 지프지 안허고 수커 전복꺽테기는 지퍼. 그것이 암커 수커주 다른 건 엇어.

105021 @ 오분재기허고 전복은 어뎡 구분헛니까?

105021 #1 전복허고 오분재기는 천지차이지. 오분재기는 최고 컷자 요만이, 전복은 크면은 이만큼은 현 것도 잇고, 옛날에는. 이제는 해너들이 떼왓신디사 몰라도 옛날ㄹ치 이만큼은 현 것은 잘 못봐.

105021 @ 구멍 뗏 개민 전복이고 이런 거 잇수과?

105021 #1 몰라.

105021 @ 구쟁기에 뿔 난 건 뭐렌 굴야?

105021 #1 구쟁이살. 뿔이 아니고 쌀이엔 곧지.

105021 @ 전복은 뭐엔 굴야?

105021 #1 것도 몰르크라. 이런건 전복은이 바다에 가도 눈에 걸리민 때는 거주이. 소라ㄱ뜨 거는이 돌 일러도 나오곡이 무시거 허주만은. 만간에 소망일영 돌 일령보민 이런 것도 이서이. 경허민 때어오는거. 오분재기는 이것이 바당에 빌레면은 이 요추룩 현 고냥에 손 찢르면은 손끗으로 알아져. 오분재기다 현 거를 알아져. 경허민 슬허게 굴쟁이 앗앙 똑 떼영 흠파내곡. 요디 고냥 가민 영 문직아보민 오분재기를 알아져. 알아지민 거 똑똑 떼어. 이젠 오분재기 두개만 떼민 하늘에 벨 따온거만이 알앙.

105022 @ 터우는 많이 봐낫지예. 만드는 것도 봐낫수과?

105022 #1 만드는 건 안 보고게. 건 우리 보건디도 만들기 쉬웁직허여. 고망 딸랑 또 예껴가고 예껴가곡 허민 그냥 요만큼은 허민 이 지레긴 허곡허영 또 팽상ㄱ추룩 가운데 강 요만인 멘들민 그자 고기 나끄명도 그디 앗고, 자리 거려도 그 우트레 놓곡 해난거 님아. 요기는 고망으로 새로 물이 출락출락 나오곡 해불민.

105022 @ 타 반 할머니도?

105022 #1 타긴 헛자 그런거 거리는 건 안 봤지. 임시 어디 혼 번 타났어.

105022 @ 어렸을 때?

105022 #1 그때 베피 안 타봤어. 바당에 심영 텅기는 건 잘 보주만은. 그냥 어런 때 터우가 텅기는 건 잘 봐신디 탕은 벨로 안 텅것지. 탈 일도 엇고. 남즈ㄱ뜨민 고기라도 나끄레 가켄 부떠라도 거주만은.

105023 @ 옛날에는 기계 엇이 돛 달앙.

105023 #1 초석, 초석. 초석이지예 거 이름이. 배에 드는 것이 바당에 고기 나끄레 가는 것이 초석.

105023 #2 응

105023 #1 큰 거 잇고 죽은 거 잇고. 큰 거 요만큼 허민 죽은 거 요만큼 두개. 이제 ㄱ뜨민 돛.

105023 @ 지금은 돛 달앗텐 허는디, 옛날은 초석이라?

105023 #2 초석 맞아.

105023 @ 무신 걸로 멘드는 거파?

105023 #1 무신 기지로 멘든 거라.

105023 @ 난 이디 ㄱ는 것만 초석이카부덴.

105023 #2 배에 건 초석.

105023 @ 할머니네 집이 배는 엇어낫수과?

105023 #1 엇어엇어. 우리 친정에는 큰아부지가 그물배 해부니까 그냥 도감도감

허명.

105023 @ 아까 그 멜허는 배. 그것도 돛단배 아니꽈?

105023 #2 아니 아니. 그물만 시경 멜만 잡는 거.

105023 @ 아, 돛은 엇이 배만. 계민 노로 젓어야 되는거 아니?

105023 #2 노는 젓는디 이 성창머리 이 해수욕장 안네서만 가는 거. 딴 디 못 가.

105023 #1 돛 드는 건 먼 바당 갈 때 돛 들양 나가지.

105023 @ 먼 바당 갈 때만 돛 다는 거구나예.

105023 #1 돛 돌아도 브름이나 자면은 내로 저성 가실 거라.

105023 @ 내가 이거.

105023 #1 영영 젓는 게 내.

105023 @ 어떻 젓읍니까?

105023 #2 이렇게 앞뒤, 터우 노는 좌우. 그물배도 이거. 아까 멜잡는 거. 그냥 일반 낚시배는 앞더레. 이렇게 낡 흥창흥창 내 두밧디 놔.

## 6. 의생활

### 옷감

106001 @ 옷감 종류는 어떤 게 이신고마씨?

106001 #1 옛날 거?

106001 @ 응. 무신 옷감, 무신 옷감 이신고마씨?

106001 #1 미녕.

106001 @ 미녕.

106001 #1 베.

106001 @ 베.

106001 #1 광목.

106001 @ 광목.

106001 #1 외양목.

106001 @ 무신목?

106001 #1 외양목.

106001 @ 외양목.

106001 #1 또시 멩주.

106001 @ 멩주.

106001 #1 생멩주.

106001 @ 생멩주.

106001 #1 따시 뵈이 웰 건고. 양달양

106001 @ 양달양?

106001 #1 막 이제 ㄴ뜨민 뚜꺼운 기지라.

## 명주

106003 @ 계민 처음부터 멍지부터예, 멍지는 혹시 실 여기서 만들어 낫수과?

106003 #1 여기서도 토백이, 토중이엔 행 서구포쪽더렌 멘들아 나실거라.

106003 @ 멍지는 무신 멍지 무신 멍지 이서마씨?

106003 #1 생멍지 잇고 그냥 멍지 잇고.

106003 @ 뭐가 다릅니까?

106003 #1 생멍지는이 올이 바짝 살아.

106003 @ 응.

106003 #1 계민 멍지를 이기젠 허민 옛날은 양젯물이 엇어노니까 불슬아난 재, 젯국 카냥 슸으민 그놈으 멍지도 문지락 허여. 생멍지도 그냥 멍지 ㄴ추록. 생멍주헛 당 생멍주는 여름 옷을 잘 만들고이 그냥 멍지는 저슬옷을 잘 만드는데 생멍지로 저실 옷 ㄴ치 멘들젠 허민 젯국 헤냥 슸으민 ㄴ따.

106003 @ 젯국은 어떻 만드는 거 마씨?

106003 #1 그냥 이 불 슬아난 재.

106003 @ 예.

106003 #1 그걸 물에 탕 툀라냥 퀘여가면은 퀘는 물에 동그면은 그 멍지가 익어.

106003 @ 저슬은 겨울?

106003 #1 응.

106003 @ 가을은 ㄴ슬.

106003 #1 ㄴ슬.

106004 @ 가을은 ㄴ슬, 겨울은 저실. 계난 멍지로는 보통 저슬옷을 멘드는데 생멍지로는 여름옷을.

106004 #1 생멍지로는 여름옷을 옛날엔 적삼, 남즈덜 중이 바지 그런거. 파자글 락허게 베츠추록.

106004 @ 멍지로는 어떤 옷 어떤 옷 멘들아마씨.

106004 #1 이제는 주로 호상허는데 호상을 주목 삼는다.

106004 @ 옛날에는.

106004 #1 옛날에는 보통 입어, 입어. 문 저고리도 멘들고 이 남즈 두루막도 그 결로 허고 다 허여.

106004 @ 아.

106004 #1 또 시집갈 땐 물 들여당이 초록색, 꼭디색 물 들여근엔에 시집가는 새각시 이불 꺽테기도 만들어주고.

106004 @ 아까 무신색? 초록색하고 꼭디색?

106004 #1 꼭두색물.  
 106004 @ 꼭두색물은 어떤 색이파?  
 106004 #1 빨강현 거. 요색 요색 요거보다 흐뎡 열어져.  
 106004 @ 그게 꼭두색 물. 물들영 이불 만들고.  
 106004 #1 이불 만드는 건 그런 거 주로 가.  
 106004 @ 계민 이 멩지로 만든 옷은 흐뎡 고급인가?  
 106004 #1 고급이지 옛날은 최고 고급.  
 106004 @ 평상시에 입는 거 아니고예.  
 106004 #1 평상시는 광목 미녕.  
 106004 @ 멩지로 만든 건 흐뎡 고급예.  
 106004 #1 완전 고급이지 옛날에.  
 106004 @ 완전 고급옷예. 어디 외방갈 때나 입는 옷예.  
 106006 @ 계민 누에 이런 것도 안헤낫수과?  
 106006 #1 그런 것도 안헤나고.  
 106006 @ 누에.  
 106006 #1 누에로 그 멩지 올을 뽑넨허여.  
 106006 @ 계난예  
 106006 #1 그런 건 안 봐난. 누에는 텔레비에 무시거 허는 거 하꼬에 낵 질루는 건 어디 갓당 혼번 봐신디 거 섭지근행 문직지도 못허크란게. 꼬물꼬물 행.  
 106006 @ 버랭이에.

## 무명

106007 @ 계민 이제 미녕 물어보쿠다예 미녕은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이서마씨? 무슨 미녕 무슨 미녕 이수과?  
 106007 #1 훙은 미녕, 줌진 미녕은 헤도이 보통으론 훙은 미녕 허영이 이젠 갈 옷 같옷 허지. 그때는.  
 106007 @ 예.  
 106008 #1 남즈 같중이도 멘들민 감 미쳐두고.  
 106008 @ 응.  
 106008 #1 또 줌진 미녕으로 그냥 중이.  
 106008 @ 예.  
 106008 #1 곱게시리 그냥 보통 집이서 입게시리 허는 거고. 훙은 미녕으로는 옛날에는 이불안도 만들고.  
 106008 @ 이불안도.  
 106008 #1 요만 너비 현 건디 폭 이서근에 질게 뽑아근에 이불안 허고 요곹데기도 만들어주고.  
 106008 @ 요곹데기도 만들고예. 계민 혹시 미녕도 토목, 생목, 광목, 광목은 잇

저예.

106010 #1 광목은 잇지만은 토목 미시거 허는 거는 멩지에 대한 토목 미시거 허는 걸로 경 돼는거.

106008 @ 미녕 아니고. 그믄 광목은 어떻 다른 거짜?

106008 #1 광목 다른 거 엇이 우리 이 미녕 옷 허는 식으로 허여.

106008 @ 미녕허고 광목은 똑ㄱ튼거? 뭐가 달라.

106008 #1 미녕은 하바가 요만베끼 안하고이 광목은 요만이.

106008 @ 아 광목은 넓구나예

106008 #1 ㄱ사 식으로 이불안도 허고.

106008 @ 광목으로 아니민 미녕으로?

106008 #1 광목으로도 허고 미녕으로도 해. 이추록 막 좀질이 누병 그냥 여름 이불 누비이불 경허여.

106008 @ 누비 이불 여름 이불은 무신거엔 곶아?

106008 #1 누비이불.

106008 @ 그냥 누비이불?

106008 #1 응 요만씩 누벼. 막 곱게 누벼. 세번이나 누벼. 어떻사 공들이는지 몰라.

106007 @ 혹시 미녕 중에 닷새 미녕, 옛새 미녕 허는 말도 험니까?

106007 #1 그런 말이 들어져나신가? 어디 정의 쪽더렌 곶암신디 몰라. 이레는 모관 정의 허주게. 그런거 저 미시거

106007 @ 닷새미녕, 옛새 미녕?

106007 #1 미녕 빠는 것도 글로 잘가. 이쪽으로는 잘 안빠. 빠는 디 못 봐.

106007 @ 남쪽으로예.

106007 #1 멘네헤영 막 실 영 미시거 영 돌아가민 짹짹 뽑아.

106007 @ 뽑는 건 헤낫수과?

106007 #1 저 삼양쪽 더렌 대강 허여.

106007 @ 아.

106007 #1 게민 걸로 실도 바농질 허는 훙은 실도 곱닥 허는디 그때는 그런 실 허영 바농질도 허고.

106008 @ 미녕으로는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8 #1 갈독지, 갈중이 헤여.

106008 @ 갈독지는 뭐고 갈중이는 뭐?

106008 #1 갈중이는 밧에 거. 우이거 입는 거는 갈독지.

106008 @ 우에거는 갈독지. 독진 이던디.

106008 #1 갈독지. 이꺼지 오게.

106008 @ 갈중이 아니고. 갈중인 바지.

106008 #1 갈중이 우와.

106008 @ 갈적삼이엔 안헨 갈독지엔 헤?  
106008 #1 갈적삼이엔도 허고 갈독지엔도 허고.  
106010 @ 광목으로도.  
106010 #1 광목으로도 이제도 감들이고 다허지.  
106010 @ 광목으로도 옷 멘듭니까?  
106010 #1 옛날 외양목이렌 헌거는 막 곱게시리 바농질도 적삼도 막 예쁘게허여. 바느질 막 줌질이허영 곱게 허영 베치메나이.  
106010 @ 예.  
106010 #1 줌진베로 우알 허영.  
106010 @ 응.  
106010 #1 예점 어디 사둔 칩이라도 가젠 허민 베 곱닥헌 베혜근에게 적삼헿 똑 맞게 입영 가곡 허여.  
106010 @ 아.  
106010 #1 보통 이런 질에 땡기명은 안 입고계.  
106010 @ 그건 베로, 미녕으로 말고?  
106010 #1 미녕 아니 베.  
106010 @ 베 그건예.  
106010 #1 아래는 베치메. 줌진줍진헌 거. 이제 ㄱ뜨민 모시닭은 걸로 광목적삼 혜근예.  
106010 @ 우엔 광목 적삼.  
106010 #1 광목이 아니고 외양목.  
106010 @ 외양목. 외양목도 광목 종류?  
106010 #1 종류.  
106010 @ 뭐가 됩니까?  
106010 #1 더 줌질아.  
106010 @ 아 더 줌질아.  
106010 #1 멩지가 쥬 훑어이. 아니 미녕이 쥬 훑어.  
106010 @ 미녕이 쥬 훑으고. 그다음예.  
106010 #1 광목 외양목.  
106010 @ 광목 외양목 이렇게 똑 ㄱ뜨 종류다.  
106010 #1 옷은 그런 옷으로만 만느든 건디 이름이 그거라.  
106010 @ 미녕은 멘네 혜근예 허는 거주예? 이 동넨 멘네도 안헿니까?  
106012 #1 멘닝는 갈아낫어.  
106012 @ 갈아낫수과?  
106012 #1 우리도 시집갈 때 멘네 갈앗단이.  
106012 @ 응.  
106012 #1 게메 씨 불란에 그거 틀언에 소계틀에 간 틀어단 이불을 만드야.



106012 @ 멘네 농사는 어떻 지읍니까?  
106012 #1 그냥 용수로 고랑 정 빼영 놔두민 기간이 돼민 요만씩 현 동 맨 것이 하얗게 피어. 거 피어가민 집이 문 주서와. 주서당 널영 놔두민 박삭허게 피어나.  
106012 @ 응.  
106012 #1 게민 그디 씨가 막하. 씨 불르는거 씨앗이엔 허는가. 씨앗이.  
106012 @ 씨앗이.  
106012 #1 씨 불르는 거. 영영 멘네 영 기계레 영 낱 맥여가명 영영 돌려가민 썬 아트레 바끄고 멘네, 이불 허는 숨은 더 뒤터레 나가.  
106012 @ 씨 불르는거. 그거 무신거엔 곱아?  
106012 #1 씨앗일 거라. 거 씨앗이엔 허여.  
106012 @ 씨앗이엔 곱아.  
106012 #1 씨 불르는 거.  
106012 @ 씨 불르는 거 이서 낫수과?  
106012 #1 이서 나실거라. 요만이 현 거. 영 돌리는 거.  
106012 @ 영 돌리는거예.  
106012 #1 손으로 돌링.  
106012 @ 손으로. 것도 혹시 돌리는 건 무신거 이름 엇수과?  
106012 #1 엇어.  
106012 @ 건 엇어.  
106012 #1 씨앗이엔 말만 우린 들어난.  
106012 @ 요거 통채로 씨앗이.  
106012 #1 응. 노인덜 이신 집인 그냥 딱뚝한 방에 저실엔 앓이민 불화리 저곳 디 앓양 걸로 손으로도 다 씨를 불라. 씨를 빠내어.  
106012 @ 경행 해나민 소계웃도 허고 이불도 허고?  
106012 #1 하르방덜 이불 허젠허미 멘네 테우는디강 기계틀에 강 숨틀 해당 막얇게 이거보다 더 얇게 해당 저고리 만드는 속에도 놓고.  
106012 @ 아.  
106012 #1 남저어른 바지에도 놓고.  
106012 @ 응.  
106012 #1 여자 저고리에도 놓고, 할망 바지 속에도 그런 거 놓고.  
106012 @ 응.  
106012 #1 게민 뜻아.  
106012 @ 멘네는 씨는 언제쯤 뿌리는 거파?  
106012 #1 것도 모르크라. 우리 멘네 타레는 가와신디.  
106012 @ 언제 썬에 타는 거라?  
106012 #1 ㄴ실 썬에 타.

106012 @ 계민 봄에 뿌리켜예?  
 106012 #1 봄에쫘 뿌릴 거 다향. ㄴ실 들어가민 타. 이제 타게 뽕실거라. 뱃 나  
 가민 그눔으것이 박삭허게 피어.  
 106012 @ 그거 뉘엔 곺아? 박삭해지는 거.  
 106012 #1 몰라. 멘네 핀 거엔만 곺아.  
 106012 @ 멘네 핀 거엔만 곺아.  
 106012 #1 멘네가 꼭이 저 도레만씩 요만씩 허여.  
 106012 @ 예.  
 106012 #1 저것에도 연헌 건 강 타명 먹고.  
 106012 @ 멘네도 먹어?  
 106012 #1 어린 거는 막 돌아. 이멘씩 헌뎨 돌아. 저건 이제 커 가사 박삭허게  
 뉘고. 박삭헌 것이 이만씩 허고.  
 106012 @ 혹시 멘네도레기 이런말 안헙니까?  
 106012 #1 도레긴 못 들어반.

#### 모시

106013 @ 계민 이번에는 모시. 모시도 제주도에도 이십니까?  
 106013 #1 모시 제주도에서 안 뽕아실거라.  
 106014 @ 모시 옷도 입긴 입으는가?  
 106014 #1 응 모시치매, 모시적삼. 저고리는 안해.  
 106014 @ 저고리는 안해?  
 106014 #1 여름 기지니까. 남저 어른 중이적삼. 여자도 치마 적삼. 그걸로. 고와  
 그것이 허민.  
 106014 @ 것도 고와? 장만허젠 허민 힘들주예?  
 106014 #1 힘들명 말영 그자 고운 풀 해근에 미청.  
 106014 @ 풀 미청 허젠허민.  
 106014 #1 광목도 미녕도 다 풀 미청 바짝허게 이제는 아이론 이성 다리는다  
 그때는 다리웨엔 허여.  
 106014 @ 응.  
 106014 #1 이디 불 살화낭 더위가민 이디 영 심으렌 행 난 영 발로 불르고. 영  
 영 밀어가민 쭈그레기 진 것이 쪽 폐와져. 경 베피 안해.  
 106014 @ 풀은 어떻 메기는 거파?  
 106014 #1 풀은이 먹단 쌀밥이라도 시민 주머니에 낱 놀려.  
 106014 @ 예.  
 106014 #1 세계 놀리민 그눔으 기지도 푼지락 행 좋고이. 뜨게 뵍이민 뜨게 뵍  
 인대로 흐끔 들썩허고 기지가.  
 106014 @ 놀려난 다음에 널어야 뉘여?

106014 #1 널어, 널어. 널영 보들보들 몰라가민 거 손을 잘 봐줘사 올이 골라.  
 106014 @ 아.  
 106014 #1 메경시민 막 영영영영 허멍 발로라도 조근조근 블라나민 반찍허영.  
 106014 @ 거믄 다시 안 다려도 돼여?  
 106014 #1 아이 다려야 돼여.  
 106014 @ 것도 다려야 돼여? 갱 입젠 허민 어느 저를에게. 밧디도 가고.  
 106014 #1 게메 경허난 힘들어 공들이 행.  
 106014 @ 거난.  
 106014 #1 아침 때민 츠분헌 때 서답줄에 강 널엇당 츠분헌 브름에 널민 그눔  
 으 기지도 짹짹 잘 폐와지고 뻥뻥하게 고와.  
 106014 @ 헐 일 엇인 사름이나 행 입주.  
 106014 #1 헐 일 신사름도 나들음 옷으로 행 입젠 허민 행 놔뉘야지게. 건 다  
 그때 풍습으로 경헌 거난.  
 106014 @ 뉘 어디 팔뉘 멩질 때 이런 때 입는 거짜?  
 106014 #1 팔뉘 멩질에 못 입어 얼영.  
 106014 @ 아 얼영.  
 106014 #1 팔뉘 멩질에는이 광목 외양목으로 중이 적삼 남저어른덜토다.  
 106014 @ 여름에  
 106014 #1 팔뉘 나가민 그런 걸로 입고 베옷 모시는 한여름에 입고.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 게민 이제 먹는 거예. 먹는 거 물어보쿠다예.  
 107001 #1 으.  
 107001 @ 밥, 밥은 어떤 종류가 잇수과? 옛날에.  
 107001 #1 옛날에?  
 107001 #2 아이고  
 107001 @ 곤밥허고.  
 107001 #1 곤밥, 이젯 곤밥허고 ㄹ타? 벌경헌 산디쫄 밥 행 것도 거 무신, 식게  
 때나 허주 무신. 그자 보통으로 먹어사.  
 107001 @ 어.  
 107001 #1 보리밥에 어떻 어떻 행 먹어났주.  
 107001 @ 게민.  
 107001 #1 보리밥에 쫄쫄 허트고 헤영 그거.  
 107001 @ 거 무신 밥이엔 험니까?

107001 #1 거 무신 밥게 우리 먹는 밥이주.  
 107001 @ 보리밥이엔 곱아, 조팝이엔 곱아?  
 107001 #1 조팝만 헐 때 조팝이고 보리쌀만 헐 땐, 한여름에는 보리밥만 허여이.  
 107001 @ 으.  
 107001 #1 서꺼텅기민 빨리 쉬여붙어이.  
 107001 @ 예.  
 107001 #1 겨난 이 ㄱ슬 들어가면이 팔 월 나가민 조 낫당 그땐 들ㄱ레에 강 곱아당 쓸 만들앗당, 팔 월 나민, 보리쌀은 밥 해도 물이 잘 안 궤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뽀따부난 그 좁쌀을 한 줍씩 노민 물도 뽀뜨고 밥도 흐끔 풀풀허고.  
 107001 @ 으.  
 107001 #1 경헝 먹엇주.  
 107001 @ 아.  
 107001 #1 게민 또 특별히 먹젠 허민이 보리쌀에 풋 낱 슴고이 검은 좁쌀.  
 107001 @ 으.  
 107001 #1 그거 노민 더 밥이 맛이 좋아.  
 107001 @ 아.  
 107002 #1 경헝 먹고. 게민 밥 허젠 허민 보통은 산뒤쌀로 밥 허거나 보리쌀로 하거나.  
 107002 @ 음.  
 107002 #1 게도 먹는 건 산뒤쌀 아니라.  
 107002 @ 먹는 건 산뒤쌀 아니라마씨. 하하.  
 107002 #1 제서 때나 헛주.  
 107002 @ 그럼 주로 보리쌀예?  
 107002 #1 주로 보리쌀 허고 좁쌀.  
 107003 @ 허고 좁쌀. 예. 게민 보리밥은 허젠 허민 어떻 헝 허는 것과?  
 107003 #1 보리밥은 허민 그냥 보리쌀 씻영.  
 107003 @ 으.  
 107003 #1 그때 슴덜이 잇어 꺼멍헌 슴덜. 수정 하민 웨말치스.  
 107003 @ 으.  
 107003 #1 수정 족으민.  
 107003 @ 음.  
 107003 #1 저 두뉘짜리. 거민 저 보리밥덜이나 쳐 먹어 노난 밥은 하영 헤여.  
 107003 @ 하하.  
 107003 #1 하영 해도 다 먹어. 증기가 엇어 노니까이.  
 107003 @ 예.  
 107003 #1 경헝 먹엇주게.

107003 @ 계민 보리밥은 쌀밥보다 물을 하영 놔야지예.  
107003 #1 허당 보민 물 하 불민 툄라불고, 물 맞게도 허고 경혜.  
107003 @ 하하, 계난 산뒤쌀 밥보다는 물이 하영 들지 안 혜?  
107003 #1 산뒤쌀 밥은 혼 번에 물을 맞추기 때문에 허고이.  
107003 @ 으.  
107003 #1 보리밥은이 그냥 검질로 그냥. 영 솟덕 앞서서 밥 허당 바르르허게 부끄면이 이젠 두경 을앗당 두경 더꺼덩 불을 꺼붙어이.  
107003 @ 으.  
107003 #1 불을 췌당 혼 십 분, 십오분 잇영 뜸들영.  
107003 @ 으.  
107003 #1 뜸들영 강 보민 물도 잇어이. 물도 시면은 그 밧을 불르레 간 거라. 물을 또 뽏뜨레. 줍쌀 흐끔 영영씩 불 숨아가민 부그르르 허면 그 줍쌀러레 물 빨아 먹어불면은 밥이 물이 맞아.  
107004 @ 아. 혹시 반지기밥이엔 현 밥?  
107004 #1 반지기 밥은 보리쌀에 곤쌀, 그뻤 곤쌀이엔 헤이. 곤쌀 흐끔 노면이 거 허경 먹으민이 벨미라이. 놉을 빌영 나가.  
107004 @ 으.  
107004 #1 밧을 갈레 가젠 허민 놉의 장\*이니까 쌀 허경 것이 반지기밥.  
107004 @ 아.  
107004 #1 고급으로.  
107004 @ 아, 줍쌀이 아니라?  
107004 #1 쌀.  
107004 @ 쌀을 놓는 거라?  
107004 #1 산뒤.  
107004 @ 보리쌀에, 음.  
107004 #1 계민 그계 반지기밥.  
107004 @ 그계 반지기밥. 아.  
107004 #1 이젠 나룩쌀에도 줍쌀 노명 밥 허는 디.  
107004 #2 줍쌀 낱 먹엄지양?  
107004 @ 으.  
107004 #2 바로 그 식이라. 보리쌀에 곤쌀 노민 막 고급밥이주.  
107005 @ 하하, 그계 반지기밥예? 계민 아까 산디쌀로 현 곤밥은?  
107005 #1 제서 때나.  
107005 @ 제서 때나 먹는 거고?  
107005 #1 살락살락 현 거, 풀도 엇인 거. 잡곡이나 이제라도 흐끔 놔시민 밥이 라도 잇주만은. 산디쌀 저 이바른 디서, 송당 거튼 디 강 받아다근에 밥을 허면은 거 막 췌당봐도 별경허여. 두루 깎아져부난 거주. 기계 거트민 허주만은이.

107005 @ 예.  
 107005 #1 낫사식으로 물그레에 가 곶알 쓸 만든 거라 부난 잘 깎아지지 안 허여.  
 107005 @ 음.  
 107005 #1 계난 밥이 풀이 실 거라게. 풀도 엇주.  
 107005 @ 풀도 엇고. 경해도 곤밥이엔.  
 107005 #1 곤밥이엔 제서 땀 그걸 막 올령 허는 거라.  
 107006 @ 예. 조팝은?  
 107006 #1 조팝은 아이고 좁쌀만 낱 구실랑. 먹게 돼민 구실구실 밥 물 맞췌 행도 먹고. 감저철 나민 또 감저도 그레 썰어 낱 밥 허민 맛있고.  
 107006 @ 감저허고 조 허고 ㄴ치?  
 107006 #1 좁쌀 낱 밥 허민 밥도 첨 들코롬허여.  
 107006 @ 계민 감저밥이 그건가?  
 107006 #1 감저밥이 감저 썰어 낱 현 거주. 벨미로덜, 이젠, 이젠 벨미로 밥 허는 거라.  
 107006 @ 계난예.  
 107006 #1 압력솥디 감저 썰어 낱 밥 해봐 오죽 밥 잇는가.  
 107006 @ 예.  
 107006 #1 이젠 완전 첨.  
 107006 @ 벨미로예.  
 107006 #1 그땐 벨미도 아니고이.  
 107006 @ 먹을 거 엇이난.  
 107006 #1 으, 양석도 점점 경행 해실 거라.  
 107007 @ 으. 아까 풋 뇌근에 허는 밥은? 풋밥?  
 107007 #1 풋밥. 예구 풋쌀에, 보리쌀에 ㄴ 낱 숯앙이 검은 좁쌀 낱 밥 허민 오죽 맛 좋느냐?  
 107007 @ 아.  
 107007 #1 맛이 잇어.  
 107007 @ 검은 조쌀이 흐뎡 흐린 것과?  
 107007 #1 흐린좁쌀, 흐린좁쌀.  
 107007 @ 아. 경허난 흐뎡 풀기 잇게 .  
 107007 #1 아이고 막 맛있어. 풀이 좋아.  
 107007 @ 으. 뭘 풋밥을 꼭 먹는 때가 잇수과?  
 107007 #1 이건 엇어.  
 107007 @ 엇어.  
 107007 #1 옛날에는 풋밥을 먹젠 허민이 보리, 보리를 영 물그레에 곶아당 이제 거트민 까근 보리쌀 같은 거라이. 잔치해 먹젠 허민 막 멧 솥을 숯앙 잔치엔 곤밥

을 안 허거든게.

107007 @ 예.

107007 #1 새각시나 새시방이나 온 때만 곧밥 해 놓지. 그것에 반지기 밥이라고  
긫사식으로 쓸 하나씩 흰 거 풋 놓고 허민 밥이 벌경허민이 밥이 그렇게 맛 좋아.

107007 @ 으.

107007 #1 밥을 보리쌀을 솥양 쪼그만헌 무시거나 맥, 맥이 있어.

107007 @ 맥?

107007 #1 으.

107007 @ 예.

107007 #1 이제 거트민 무시거 앓아 오는, 맥에 평 나두민이 잔치집이덜 가민  
그것덜 막 먹음이 재미나.

107007 @ 으.

107007 #1 우리 옥은 후제도 그걸 막 해놔어. 풋밥, 반지기밥 그것이 반지기밥.

107008 @ 아. 그 다음에는 피로도 밥 해놔수과, 피쌀?

107008 #1 밥은 해 봐신디 맛은 엇어.

107008 @ 피쌀도 이디도 나 낫수과?

107008 #1 엇어, 엇어.

107008 @ 어디 저디?

107008 #1 도리, 손당거튼 디 중산간.

107008 @ 음.

107008 #1 막 피쌀밥을 벨미로 먹젠 헛자 맛이 엇어. 줍쌀 거추룩 폭삭폭삭만  
헛지 피삭피삭 맛이 엇어. 조팍만이도 맛이 엇어.

107010 @ 무우밥?

107010 #1 무우밥은 팬찮아.

107010 @ 무우밥은 어떻헛 허는 것과?

107010 #1 줍쌀에이.

107010 @ 으.

107010 #1 그때는 건 양식 불를 때라이.

107010 @ 으.

107010 #1 쓸이 죽으, 쓸이 죽으니까이.

107010 @ 예.

107010 #1 무우 영영 채로 무를 썰영 건 무를 확 허게 익혀노면이 그레 줍쌀을  
소르르 허게 낱 물 맞추민이 밥이 좋아.

107010 @ 아.

107010 #1 돌아, 밥도.

107010 @ 아.

107010 #1 무수가 든 거 허민 밥도 돌아.

107011 @ 아, 무수가 들민 밥도 돌아. 콩밥 말고 또 툇밥?

107011 #1 툇밥?

107011 @ 으, 툇밥.

107011 #1 툇밥도 팬찮을 거라. 꼭 혼 번 먹어났저.

107011 @ 집이서 툇밥은 안 행 먹어났수과?

107011 #1 으, 안 행 먹어난.

107011 @ 이제, 이젠 별미로 막 팝니다.

107011 #1 폭삭폭삭 해, 들코롬 허멍 폭삭폭삭 해. 맛있어. 것도.

107011 @ 예.

107011 #1 갱허고 썩밥도 행 먹는 이도 있고. 썩 것도 양석 불롭젠, 양석이 족은 때니까.

107012 @ 으. 그 다음에 패밥?

107012 #1 패밥이 아니고 패를 우리 그거 먹어났주. 패를 바다에 강 메당 패를 저 옷드릿 밧디 강 뭐냐 물룻, 물룻 파다근에이 패를이 향아리엔가 낱 막 숲은덴. 패 빨아 놓곡 헤영.

107012 @ 패도 놓고 물룻도 놓고?

107012 #1 막 혼 메칠을 딸리민이 그것이 옛 거치 푸닥푸닥 맛이 있어. 갱허민 요만헌 오가리에 낱이, 옷드르 사름덜어난 그 쫄 앓아왕, 이것이 사발이면은 이 사발로 하나 그 패 숲은 걸 주면은 쫄도 하나 받아가고 헤났어.

107012 @ 아.

107012 #1 이건 맛있어.

107012 @ 물룻 허고 패 허고 ㄱ치?

107012 #1 으. 숲으민 돌아.

107012 @ 으.

107012 #1 막 돌아.

107012 @ 건 식량 옛일 때 먹어난 거지예.

107012 #1 이건 우린 벨미로 사 먹어난.

107012 @ 아, 벨미로?

107012 #1 으, 그 패밥은 벨미로 우린 사 먹어났어. 쫄 쥘 바뀌시난게 .

107012 @ 계난.

107012 #1 그거 혼 사발이민 쫄도 혼 사발 쥐.

107012 @ 아이고 비싼 쫄을?

107012 #1 으.

107012 @ 패는 이 바당에서 나는 거 아니?

107012 #1 으, 바당에선 나는 건디 얼마나 힘든 거라. 막 밧디 강 물룻을 막 파당 쫄엇 거 단장 행 일에도 갱 쫄물을 빠불어야 들 거 아니. 어떻 거 숲아가민 갱 돌아신디.



107012 @ 음.

107012 #1 그때 든 것도 하지 안 허난 든 것도 안 나실 건디 꽤 숲으민 경 들  
아.

107012 @ 으.

107012 #1 우리 쓸에 바짱 먹어나세계.

107013 @ 그냥 별미로. 음. 이제 밥은 다 곶앗고 국. 국은 무신 국, 무신 국 옛  
날에 하영 끌려 먹었수과?

107013 #1 에이구. 허는 건 무신 거 웬장국에나 느물베긴 더 잇어?

107013 @ 그거 무신 국이엔 곶아? 느물국, 장국?

107013 #1 장국.

107013 @ 장국.

107013 #1 게메 국이 그거라 웬장국베긴 엇주.

107013 @ 음.

107013 #1 바당 케기나 상당 국 끌림베끼.

107013 @ 그건 무신 국이엔 험니까?

107013 #1 거 뭐 벨국도 바당고기, 고등에 국도 바당고기 건 뭐 흰이 엇주.

107014 @ 게민 느물국은 어땜 끌려사 맛 줍니까? 웬장국?

107014 #1 어땜 끌려게. 수왕수왕 물 끌어가민 느물 뽕뽕 모지려 노민 뭐. 이젠  
노는 거나 잇주, 옛날에 웬장만, 집이서 현 웬장 맛 데가리도 엇인 웬장 그것에 먹  
으민. 것이 웬장국이난.

107014 @ 웬장을 먼저 놉니까?

107014 #1 으.

107014 @ 물 끓기 전에?

107014 #1 걸렁게. 장체로도, 그때도 흐뎡 사발로라도이 영 걸렁 장 아지를 더  
러 데껴붙어사 뉘여.

107014 @ 아. 제일 처음부터 찬물에다가 장 풀영, 웬장 풀영 끌리민 그 다음에  
느물 노민 뉘여?

107014 #1 느물 노민게 케영 그거 익으민 것이 끝난 거주게.

107016 @ 으. 늑뻬국은 어땜 끌립니까?

107016 #1 마찬가지로 것도. 장국 먼저 행 무수 썰영 낱.

107015 @ 아. 게민 콩나물도 국 끌렁 먹어났수과?

107015 #1 으, 이제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107015 @ 이제나 그제나. 이것도 웬장 낱?

107015 #1 으.

107017 @ 예. 게민 콩국 끌리는 건 어땜 끌리는 것과?

107017 #1 콩국 끌리는 건이 느물이나.

107017 @ 나 맨날 그거 부껴붙어근에 맛엇어. 어땜 끌려야 맛 존 것과?

107017 #1 콩국 끌리젠 허믄이 물 수왕수왕 께가민 미룻 그 콩궤루를 사발에 낱 떼려 나이.

107017 @ 예.

107017 #1 떼려사 그 콩 두부거치.

107017 @ 아, 이렇게 이렇게?

107017 #1 으. 손, 하영 끌리는 건 손이로라도 문작문작 해서 그디 콩이 문작 웨여지면은 콩가루가.

107017 @ 으.

107017 #1 웨여지면 물 끌는더레 무수나 배추나 허민 므녀 놔 붙어야 웨여이.

107017 @ 아, 콩 놓기 전이?

107017 #1 으, 콩 갈아 놓기 전이. 놔근에게 또 그 콩 현 물 부글락 허게 올르 거 아니라.

107017 @ 예.

107017 #1 올르민 그 영 허게 소르르허게 노면은 흐뎡 시민 북석북석 올라오지 안 허여.

107017 @ 예, 예.

107017 #1 그때는 소금물율이 쪼끔.

107017 @ 예.

107017 #1 소금물을 행 낫당, 불도 줄여두고.

107017 @ 으.

107017 #1 숟가락으로 께여 오는더레 소록소록 허게 흐뎡씩 놔가믄이 것이 전 전혀게 꺼져 가. 꺼져가민 흐뎡씩 불락 오라나면은 두까리 더경 톡 놔 두민 북삭허 게 올라오민 두북두북 순두부국 답아.

107017 @ 아. 그 계난 흐뎡만 잘 못 허민 확 허게 넘쳐불더라고마씨.

107017 #1 계, 경허난 거 넘치민 순두부국이 안 답아. 가루로 헤부난.

107017 @ 예, 경헤근에 맨날 못 끓여. 맛 좋게 못 끓어.

107017 #1 그 물 끌어 논더레게 소금물을 미룻 당 놔 뒤야 돼. 그 부글부글 올라와 가민 숟가락으로 거려 낱 츠츠츠 츠아여사.

107017 @ 아.

107017 #1 무수 다 익은 것 닻거덜랑 불 꺼덩 두께 탁 더끄민 부삭허게. 콩물이 파랑케 물은 물대로.

107017 @ 영 멍쳐정예.

107017 #1 두분 두부대로 멍탁멍탁허민 국자로라도 톡톡 끈어 노민 국이 웨민. 흐뎡 먹어가민 흐뎡 헤싸지른 헤도 경혜사 콩국이 웰 거난. 맛있어.

107017 @ 맞아마씨.

107017 #1 미원이라도 흐뎡 놓고 아무 다시다라도 쪼끔 놓고 허민.

107017 #2 것도 옛날 엇이난.

107017 @ 계란.

107017 #1 농민 좋아. 경.

107017 #2 이제사 미원 시난 마음대로 할 거주.

107018 @ 이제 뭐 호박입국도 끓여 먹주예?

107018 #1 끌령 먹주.

107018 #2 지금 먹을 때.

107018 @ 계란 요번이도 호박입 흐뭇 타주카 나한테 헨게 만든. 호박입국은 어뎡 끌리민 맛 줍니까?

107018 #1 호박입국이 웬장 풀어 노민 맛이 잇어.

107018 @ 예.

107018 #1 그냥 헨당 소금으로 흐뭇 허고 다시다 농곡이. ㄹ루랑 흐뭇 그 물에 맞으레만 혼 손 그냥. 탁탁탁 호박입 건쥬 익어간 거 가트거덜랑 소르르 허게 낱 것어불민 풀풀허게 맛이 잇어.

107018 @ 계민 아무것도 안 논 물에 물 끌령?

107018 #1 으.

107018 @ 다시다 낱 물 끌려?

107018 #1 어, 다시다 쪼금 농곡 행.

107018 @ 물 끌령.

107018 #1 메르치라도 흐뭇 놓고.

107018 @ 메르치라도 흐뭇 낱.

107018 #2 웬장 안 놓는 거라?

107018 #1 웬장 노민 굿어.

107018 @ 끌령, 이거 물 끓으면 호박입을 놔, 찰라근예?

107018 #1 으. 영영 흐뭇 모지려근예.

107018 @ 흐뭇 모지려근예 놔.

107018 #1 박박 모지려붙어 모지리면은 그거 건쥬 익은 거 닭걸랑 ㄹ루 탕 거를 소르르 허게 노면 풀풀헿 맛잇주.

107018 @ 아. 건 소금으로 간 허는 거?

107018 #1 소금으로 건 헨사주.

107018 @ 아.

107018 #1 웬장 노민 맛이 잇어.

107018 @ 호박입국은 맞아 하양헤야 돼여.

107018 #1 정 안헤도 프리롱 허는 물에 웬장꺼지 낱 시커멍게 허민 맛이 잇어.

107018 @ 으.

107018 #1 나 요번이도 야 소금 낱 끌리주 무사 웬장국에 첨, 호박입국에 웬장을 놔시니?

107018 @ 몰란몰란. 그 호박입은 영영 뭐 뱃겨붙어야지 안 허여.

107018 #1 실, 실.  
107018 @ 실, 실. 어, 뒤에 실 영 다 뱃겨붙어야지예. 거 딱딱헌예.  
107018 #1 딱딱허진 안 허고 질겨.  
107018 @ 아, 질겨?  
107018 #1 실밥거추룩 질겨.  
107018 @ 아. 무신 거추룩 질겨?  
107018 #1 질겨질려 실겍거추룩.  
107018 @ 실겍?  
107018 #1 으.  
107018 @ 실겍이 무신 거?  
107018 #1 실.  
107018 @ 으.  
107018 #1 실 줄거리 거추룩 질겨 그것이.  
107018 @ 으.  
107018 #1 그걸 뱃겨붙어사 또 문지락도 허고.  
107018 @ 기지예. 여기에. 또 막 가시 닳은 것도 이십니께.  
107018 #1 그것에 가시에 부떠서. 가시 닳은 것이. 손에도 들이민 부땡 꺾어 것  
도. 호박입도이 샌 거. 샌 거는 거 가시 거추룩 늘실아.  
107018 @ 아.  
107018 #1 연헌 거는 안 해도.  
107018 @ 아. 호박입국은 흐뎡 연헌 걸로 헤사.  
107018 #1 연헌 걸로 헤사 좋주께.  
107018 @ 예.  
107018 #1 이제, 이제 호박입국 끌려가민, 막 나 오늘 아척이 세 밧디 앓아 갖  
져.  
107018 @ 호박입?  
107018 #1 호박입 툃양.  
107019 @ 하하하. 몹국은 어떻 끌리는 거마씨?  
107019 #1 몹국은 이 우리 잘 안 끌렸는디.  
107019 @ 잔치 때나.  
107019 #1 아니아니. 경 맛있게 끌리지 안 행 집이서 보통 끌리민이 우리 두린  
때 할마니넨가 끌려준 거 보민이 멜춧 국물이 멜춧 젓 담아난 국물이 그거 낡 끌리  
민 맛이 잇어.  
107019 @ 몹국을?  
107019 #1 겐디 이제는 몹국을 막 귀헌 걸로 알앙이. 무신 빼다귀 국이나 고사  
국 그추룩 생각허주 옛날은 몹도 하고 헌 때라부난. 우리 할머님 산 때는 몹국에  
멜춧 낡 끌리민 맛이 좋아벤디 이젠 그거 저리 데껴붙어.

107019 @ 으, 도새기 국물 삶은 거에나예.  
107019 #1 으.  
107019 @ 아, 옛날에는 도새기 삶은 국물 말고도.  
107019 #1 잔치집이 도새기 혼 므리, 두 므리 삶아난 국물에이 몀으 하영 빨앙  
이 동네 늑신, 노인네 이시민이 동네칩이 혼 사발씩 두 사발씩 다 앓아가난.  
107019 @ 으.  
107019 #1 이젠 돼지 삶아난 국물을 먹엄서, 앓아불엄주. 이젠 안 먹어.  
107019 @ 경해도 일부러 몀국 먹으레 갑니다 식당에.  
107019 #1 그 빼다귀 딸리고 현 국.  
107019 @ 예, 예.  
107019 #1 돼야지 고기 삶아난 국물 아니.  
107019 @ 아.  
107019 #1 몀국 먹으레 가는 건 빼 딸린 국물에 끌린 거 더 좋아.  
107019 @ 겐디 옛날에는 그 뿔첻헤난 국물로도 헤나서예.  
107019 #1 뿔첻 국물이 맛 신텐 행 그거. 경해서. 경 안 허민 맛 날 것이 엇주  
게.  
107019 @ 아.  
107019 #1 빼다귀난 옛날 돼지고기 이제난 돼지고기 경 썩어밀려젿주 돼지고기  
경, 제서나 허젠 허민 그 근도 아니고 요 트막으로 사당 흐뵀 허영. 경 이제거치 널  
어지게 경.  
107019 @ 예.  
107019 #1 풀쌍허게덜 삼암주.  
107019 @ 이디션 몀 그냥 몀이엔 곱읍니까?  
107019 #1 으. 몀.  
107019 @ 몀예.  
107019 #2 에이구 제섯날에 나 돼지고기 혼 점 안 나와부난 나 올어난.  
107019 @ 하하하.  
107019 #2 웨정 때 제서칩이 가난게 어린 때난 그거 혼점 떨어전.  
107019 @ 아, 옛날말 곤지 맵센 헤도.  
107019 #2 아, 게메.  
107019 @ 옛날말 들으레 와신디 무사 옛날말 곤지 말렌 햄수과?  
107019 #1 거 해당 안 웬 말이라 이거.  
107019 #2 아, 몀국 말에 그 말이 나온 거라.  
107019 @ 예, 맞아마씨.  
107019 #2 거 생전 안 잊어불어.  
107019 #1 예, 예.  
107019 #2 침, 우리 사는 팔자가 더럽게 나쁜 때난.

107019 @ 예.  
107019 #1 이거 끌렁 떡어이?  
107018 @ 무신거 무신거?  
107018 #1 이거 호박입.  
107018 @ 호박입?  
107018 #1 잘도 연헌 거 이거.  
107018 @ 나 주젠 가정 왔수과?  
107018 #1 앓아 가. 날랑 툃아당 먹고.  
107018 @ 어떻게근에 거 단장헤야 웰 거 아니.  
107018 #1 이거 다 단장헤 논 거.  
107018 @ 다 단장헤 논 거?  
107018 #1 어.  
107018 @ 이거 이거 뭐 헤야 헌 텐 허멍. 이거 다 헨?  
107018 #1 이다 헨. 이거.  
107018 @ 아.  
107018 #1 꼭지로만 허난 이거 잘도 맛 존 거.  
107018 @ 예, 예. 잘도 연헌 건게. 요건 호박도 달려신게.  
107018 #1 으.  
107020 @ 하하하. 생선국은 무신 거 무신 거 낡 끌려? 아까 멜도 낡 끓여지고.  
107020 #1 으, 소금 낡 끌려야, 장물 노민 검고이. 옛날 식은 몰라. 옛날은 다 장물이주. 검영케.  
107020 @ 예, 예.  
107020 #1 보기도 굿어. 이제는 경허민 안 먹어.  
107020 @ 겐 생선은 생선 국 끓이는 게 무신 거 낡 끌립니까?  
107020 #1 그때, 이제?  
107020 @ 옛날에, 옛날에.  
107020 #1 게메 장물 낡 끌리고.  
107020 @ 아니, 무신 생선으로 국 끌려?  
107020 #1 갈칠 끌리던.  
107020 @ 갈치.  
107020 #1 멜을 끌리던.  
107020 @ 멜.  
107020 #1 우럭을 낡 국 끌리던.  
107020 @ 우럭국.  
107020 #1 으, 경해도 장물베긴 놀 수가 엇어. 옛날은 소금 놀 내기도 아니고 그런 다시다도 엇거든게.  
107020 @ 그럼 이 생선은 물 끓은 다음에 놔 아니면?

107020 #1 끌엉 끌엉.

107020 @ 처음부터 놔?

107020 #1 끌엉 논게 좋지게. 확 끌엉 푹 끌이민 오들랑 허게 고기도 익고 좋지.

107020 @ 아. 물 먼저 끌렁 고기를 들이쳐? 그럼 멜국은?

107020 #1 멜국도 마찬가지로. 끌인 걸 들르민 끌렁이가 푹 떼진 거 오골오골 먹음직 허잖아.

107020 @ 아. 경해도 이 멜은 금방 익어불고 우력은 흐뎀 오래 끓여야 돼지 안해?

107020 #1 으, 오래 끓여지주게. 우력은 끌어놔 가지 쳐 두고 해사. 그 가지가 너무 썰여.

107020 @ 아, 썰여.

107020 #1 우력 가시는 너무 썰여. 오토미 가지도 막 썰고.

107020 @ 이디 오토미도 국 끌립니까?

107020 #1 으.

107020 @ 오토미 이디 잘 안 난덴 허멍.

107020 #1 무사 안 나게. 제주시 가민 시장에 다.

107020 @ 아니 옛날에, 옛날에.

107020 #1 옛날에도 아니 날린 엿주.

107020 @ 이 동넨 무사 오토미 안 허고 우력으로 하영 허던테 제사 때도, 식계 때도.

107020 #1 거 닥치민 닥치는 대로.

107020 @ 으.

107020 #2 거 함덕장에 막 나.

107020 #1 나는 거 보멍 허는 거주.

107020 @ 나는 거 보멍.

107020 #1 이제 아니고 옛날에 말 곶암수다.

107020 @ 옛날에, 옛날에.

107020 #2 아, 옛날에.

107020 @ 계민 아까 그 생선국에는 늬뿔 뇨니까, 메역을 뇨니까?

107020 #1 그때 나름이주. 메역 시민 메역도 놓고. 무수 시민. 생선국에 무수가 좋아 풀풀헌 게.

107020 @ 무수가 좋아.

107020 #1 으, 생선국에.

107020 @ 아.

107020 #1 이 곳디 돼지고기나 소래기는 메역이 존 디 생선국에는 무우만 조민 무우가 좋아.

107022 @ 아. 냉국은?  
107022 #1 냉국 어떻게 냉국이 오이베끼 더 있어. 오이나 텅기당 녹물 삶은 거 낫당 또 험베끼.  
107022 @ 우리 녹물 삶은 거 말앙 해초도 낡 허던데 청각 이런 것도 막 놓고.  
107022 #1 청각. 으, 청각 노민 시원행 좋주게.  
107022 #2 청각?  
107022 #1 정각, 정가. 건 더 좋아.  
107022 #2 건 냉국 허는 거 아니라.  
107022 @ 냉국 험 때, 냉국 험 때 무신 거 놓냐고?  
107022 #1 물웨도.  
107022 @ 물웨, 옛날엔 오이 엇이난 물웨 허지 안 험?  
107022 #1 물웨도 허고 이제, 건 이제꺼주 옛날 경 험사? 안 험주.  
107022 @ 으. 옛날 밧디서 밧디서 밥 먹젠 허민 물 딱로 장 딱로 가정 강 냉국 험 먹어?  
107022 #1 어. 그냥 영 물웨나 앗앙 갓당. 호미로라도 영영 그레 깝아낡 웬장 사발에 영영.  
107022 @ 으, 풀어.  
107022 #1 것도 무신 이제사 거추룩 양념 잇영 양념을 놀 거라 무시걸 놀 거라. 그냥 먹당 말주.  
107022 @ 하하하. 그냥 물에 웬장 풀영 그냥 호미로 물웨나 영영 썰어 낡?  
107022 #1 그게 냉국.  
107022 @ 으. 이디 바닷가니까 자리물웨나 그런 것도 험 먹어나신가?  
107022 #1 예구 옛날. 몰라, 우린 자리 물웨 안 험 먹어봐서. 이제나 자리물웨 험 먹주.  
107022 @ 한치물웨 이런 거?  
107022 #1 한치가 어디 신지 몰라. 이제나 한치여 자리여 허주만은.  
107022 @ 계난.  
107022 #1 그런 거 몰라.  
107022 @ 음.  
107022 #1 이제 허민 맛 좋게 험 먹주. 자리물웨 허민, 새우리도 농곡이.  
107022 @ 예.  
107022 #1 깧입도 농곡이.  
107022 @ 예.  
107022 #1 또시 미나리도 쪼금쪼금, 다마네기 썰어 놓고 허민 얼마나 맛있어. 고추장 풀어 놓고 허민  
107022 @ 계난예.  
107022 #1 먹음직이 맛 좋주.



107023 @ 성계국은?

107023 #1 성계국은, 난이 성계국 끌리는 건 맛좋은 허여. 성계를 일 키로 사  
른 흥쯤 덜어덩어.

107023 @ 으.

107023 #1 쪼글락헌 다마네기 담아난 찰리로이 그디 낱 난 끌여 끌이민 성계도  
우려나고 허면이 조개, 조개. 조개영 성계 영 그물에 낱 폭삭 솥양 성계만 사발러레  
낱 독독독독 찍으민 성계도 토랑토랑 요만씩 다 허고.

107023 @ 예.

107023 #1 조개가 그디 물에 캥 내볼미 웨여 가든 미역 흥쯤씩 툷아 노민 베지  
근혜.

107023 @ 아.

107023 #1 겐 조개 다시다로 맞추고.

107023 @ 조개를 같이 낱 끌리는구나예.

107023 #1 난 끌려. 난 우려나게끔 끌리주. 높은 어뎡 허는지 몰라도 나 이제  
끌리는 거는.

107023 @ 음. 보말국도 끌립니까?

107023 #1 보말국도 끌리지 끌리기는.

107023 @ 지난 번에 맞아. 수두리 보말이영 무신.

107023 #1 맛 좋아. 겐디 죽이 더 좋아 허긴

107023 @ 아, 보말로는 국보단 죽이 더 좋아.

107023 #1 떡보말이나 수두리나 허면이.

107023 @ 으.

107023 #1 그냥 문짝이 그디 모살이 잇어이.

107023 @ 예, 예.

107023 #1 그냥 췌당은 찌겉찌겉 못 먹어. 낭푼에 그걸 막 문드기면 그 푼이 부  
서질 거 아니. 푼이 부서지면은 거 보말만 영 건져덩.

107023 @ 예.

107023 #1 물에 건정 보든 모살이 막 하.

107023 @ 예.

107023 #1 보말 먹은 모살이.

107023 @ 아.

107023 #1 그걸 빼덩 췌면은 국이나 죽이나 췌도 지글지글 안 허는디 그거 분  
쉬물랑 췌당은 지글지글 혜.

107023 @ 계속 씹어져, 모래 씹어져?

107023 #1 으. 모래 씹어정 지글지글 헤여. 경허민 그걸 춤지름에 보깡 죽을 췌  
면은 전복죽이 전복죽 같아.

107023 @ 혹시 넵패로도 국 끓여놔수과?

107023 #1 넙패국이야 맛좋지.  
107023 @ 건 어떻게 끓이는 것과?  
107023 #1 넙패를 메당 복삭 빨앙 삶으면은이. 그놈이 것이 푸달푸달 헤여. 푸달푸달 허민 웬장 끓여 놓고 허민이 쿠싱행 맛있어.  
107023 @ 음. 가시리국은 뭐마씨?  
107023 #1 가시리. 가시리국도 좋아.  
107023 @ 가시리국은 어떤 거마씨? 우미?  
107023 #1 우미 말고.  
107023 @ 가시리가 또 잇어?  
107023 #1 가시리가 잇어.  
107023 @ 바다에서 나는 거?  
107023 #1 어. 것이 풀풀헤여.  
107023 #2 좋아.  
107023 #1 틈자면은이 꼭 풀 닦아불어. 제기 끌렁 먹으면 웨는디 끌렁 놔두민 풀 닦아 불어.  
107023 @ 아.  
107023 #1 그것에 옛날엔 춤프레엔 현 것이 잇어.  
107023 @ 으.  
107023 #1 그디 잇어?  
107023 @ 그냥 파래국, 가시리국 허고 파래국.  
107023 #1 파래에 가시리국을 낱 허민이.  
107023 @ 아, 두 개 같이?  
107023 #1 으, 메레 갈 때도 ㄴ치 메여 와. 우리 두린 때에 강 메여 올 때는. 가시리 허고 춤프레.  
107023 @ 가시리 허고 춤프레?  
107023 #1 춤프레주, 그냥 보통으로 나는.  
107023 @ 그냥 프레는 아니고예.  
107023 #1 꽃부리 거추룩 보글보글 현 것이 잇어.  
107023 @ 으.  
107023 #1 것에 끌리민 맛이 잇어.  
107023 @ 게민 가시리국 따로 파래국 따로 허는 것이 아니라 같이?  
107023 #1 우린 같이 행 끌려야 맛있어.  
107023 @ 어.  
107023 #1 가시리국만 끌리민이 풀내 나듯 헤영 풀풀헤여.  
107023 @ 음.

## 죽류

107024 @ 국 헛고예, 이젠 죽, 죽. 죽 썩 먹는 거. 죽은 무신 죽, 무신 죽 잇수과?

107024 #1 콩죽도 잇고 팥죽도 잇고 녹두죽도 잇고 꿩죽도 잇고.

107025 @ 곤죽, 흰죽?

107025 #1 흰죽.

107025 @ 흰죽은?

107025 #1 흰죽이사 무시거 먹을 거라게. 무시거 환자덜이나 어떻 허단 그거 흰죽 먹주. 흰죽사 무신 맛으로 먹어? 풀내 낭.

107025 @ 간장 맛에. 하하하.

107025 #1 풀내 팡팡, 풀내 팡팡.

107026 @ 풀내 팡팡 나? 게문 조로도 죽 끓여낫수과, 조죽?

107026 #1 좁쌀죽.

107026 @ 좁쌀죽도 끌렁 먹어난?

107026 #1 으.

107026 @ 좁쌀죽은 어떻 해?

107026 #1 그냥. 포실포실힘 뿐.

107026 @ 포실포실힘 뿐?

107026 #1 그건 그것만 쏘 거난 맛이 엇지.

107026 @ 아, 맛이 엇어.

107028 #1 콩죽, 팥죽 거튼 것은이.

107028 @ 으.

107028 #1 콩죽이 더 좋은 거우다. 좋은 거는.

107028 @ 콩죽 허고 팔죽은 어떻 행 쏘는 것과? 콩죽이영 팔죽이영 쏘는 거 틀려?

107028 #1 틀리명 말명.

107028 @ 어떻 해?

107028 #1 콩죽은 끌리젠 허민 좁쌀에 끌려사 맛좋아. 좁쌀에. 우리 먹을 땀이.

107028 @ 아, 흰죽에 안 허고, 쌀 놓지 않고 좁쌀은 놔?

107028 #1 그때 쌀이 어디셔게.

107028 @ 게민.

107028 #1 좁쌀 낱 쏘민이, 쏘어가당 막 낭푼에나 무시거에나 그를 혼드레기.

107028 @ 무슨 그루.

107028 #1 콩그를을.

107028 @ 아, 콩그를을.

107028 #1 그레 낱 꺾여 낱 죽 쏘민 늬삐 썰어 놓고 배추라도 흐뎀 낱 먹으면 좋아.

107028 @ 아. 죽에다가?  
107028 #1 어.  
107028 @ 늪빼도 놓고 녹물도 놔?  
107028 #1 늪빼 노민 좋아.  
107028 @ 아.  
107028 #1 배추랑 엇영 안 놔도 늪빼 노민 좋아.  
107028 @ 계난 좁쌀 낱 먼저 끓이당.  
107028 #1 으. 콩도 몬착 끓이당 자꾸 젖어 주지 안 허민 늘어붙민이 칸내 낱  
긋고. 좁쌀 건줌 익영 반만 풀어지건 그루 낱 계속 젖어줘야.  
107028 @ 으.  
107028 #1 경행 먹당 남으면은 뒷날은 먹젠 행 보믄은 이제 끌렁 먹을 때보다  
식은 거 데왕 먹는 죽이 더 맛이 좋아.  
107028 @ 아. 콩죽은?  
107028 #1 으, 콩죽은 경해. 다른 죽은 끌렁 먹을 때가 맛있어도 콩죽은 식어  
데왕 끌렁 먹으면 뒷날 먹으면 더 맛이 좋아.  
107028 @ 어. 기민 아까 녹물, 늪빼는 언제 놓는 거라.  
107028 #1 미룻 놔붙어사지.  
107028 @ 아, 좁쌀 혼 번 끓이민 녹물 낱.  
107028 #1 그냥 놔낱 그 다음에랑.  
107028 @ 그 다음에 콩 놔, 콩그루 낱. 콩그루 아까 개여근에예.  
107028 #1 개영 놔사. 경 안허민 병어리 경 안 돼지.  
107027 @ 아. 팥죽은?  
107027 #1 팥죽은 미룻 삶아.  
107027 @ 팥을 미리 삶아.  
107027 #1 몬짜 삶아야 돼. 두루 삶으면 팥이 그냥 동글동글 허고이. 경 행 그  
낱 다라에나 낱 막 국자로나 주걱으로나 막.  
107027 @ 경해영.  
107027 #1 경 것도 쓸은 믈녀 낱. 쓸이 췌는 물에 툇 듭그민 얼른 부각허잖아  
이.  
107027 @ 으, 으.  
107027 #1 그거 흐뭇 싯당 이제 팥도 놓으면 죽이 건줌 다 돼붙어. 팥 낱 영영  
젓어가민.  
107027 @ 거 따로 삶은 거니까.  
107027 #1 삶은 건 다라에서 낱.  
107027 @ 어땡.  
107027 #1 꺾영. 꺾영예. 맛있주 그때는 근만. 두경 툇 더경 놔두민 죽이 풀풀.  
107027 @ 으. 팔죽은 언제 먹어?

107027 #1 거 영장 난 때가, 영장 난 때가 대강은.  
107027 @ 아, 영장 난 때.  
107027 #1 게 별미로 썰 먹젠 허민 먹는 디 대강은 영장칩이 가서 먹는 사름도 후허게 얻어 먹지.  
107027 @ 으. 영장집이 풋죽은 딸, 딸이 썰 가는 것과, 메뉴리가 썰 가는 것과? 사둔칩이서?  
107027 #1 나가 죽으면은 딸펜이서도 시어멍네 시동생, 옛날은.  
107027 @ 으, 으.  
107027 #1 시동기간도 다 썩 오고 셋시어멍 죽은시어멍도 다 허고, 메뉴리도, 죽으면 지네 친정에서 어멍덜 오랑 동기간덜이 옛날은 막.  
107027 @ 으.  
107027 #1 죽이 멧 통 들어와서라, 멧 통 들어와서라. 허벅이 그때 이제 허벅 알아져?  
107027 @ 예.  
107027 #1 허벅으로 들어오민 어느 상제로 죽이 멧 통 들어오고 어느 상제 조 름에 멧 통 들어오고 허여.  
107027 #2 것이 부조주, 부주허는 거.  
107027 @ 사둔칩이선 다 죽으로 부주허는 거군아예.  
107027 #2 으, 풋죽으로 .  
107027 @ 풋죽으로.  
107027 #2 게 잘 현 거라게. 돈 필요엿다.  
107027 @ 음.  
107027 #1 게민 죽도 다 못 먹으면이 뒷날, 뒷날 밤인 또 데왕 그디 영장집이 이신 사름덜 다 맥이고.  
107027 @ 음  
107027 #2 지금도 잇긴 잇어.  
107027 #1 그서 방서로. 사둔칩이서 이젠 안 썩 오메.  
107027 @ 식당에 돈만 주난예.  
107027 #1 으, 돈만 주민 다 헤 줘.  
107027 @ 나, 나 우리 친정어무니 돌아가실 때 시어무니가 돈을 줍디다. 팔죽으 로 허렌. 게난 식당에 딱 허니까 알아서 딱 맞춰줘.  
107027 #1 성복 허는 날 그 죽을 주는 거.  
107027 @ 예. 이제 다 식당에서 험니까.  
107027 #1 그자 쓸만 앓아가민 다 헤 줘.  
107027 @ 게난 돈 주난 알앙 풋죽도 다 헤 줍디다.  
107027 #1 풋죽도 그디 이신 사름 먹어질만이.  
107027 @ 예 그니까.

107027 #1 뒷날도 안 썬 이젠.  
107027 @ 예.  
107027 #2 우리 함덕 장의사에서도 다 허는가  
107027 #1 이다 합니다.  
107027 @ 예, 해주렌 허민 다.  
107027 #1 망인에 것이 방법이렌. 풋죽 쑤는 게. 게난 어떤 사름이 죽어도 풋죽은 그디서 썬.  
107027 @ 음.  
107027 #1 썬 도렌 행.  
107029 @ 므멀로도 죽 쑤는가 므멀죽?  
107029 #1 으, 므물죽 쑤주. 급허게 쓰젠 허민이 물 상상 허는 디 썬 혼 줌만 노민 곧 썬 저.  
107029 @ 아, 므멀죽은? 금방 똤는 것과?  
107029 #1 으, 금방 똤. 공 안 들영 똤.  
107029 @ 아.  
107029 #1 영장칩이 원미 썬젠 허민이 그런 거 물 수왕수왕.  
107029 @ 아, 그 원미가 메밀로 현 것과?  
107029 #1 어, 아니 이젠 메밀로도 안 허고 썬로도 허긴 허는 디 막 급허민 물 혼 줌 놓고 므물썬 혼 줌 노민, 께는 물 이시민 그냥 똤붙어. 경험 급험 대로 원미 썬 올리는 거난  
107030 @ 음. 녹디죽?  
107030 #1 녹디는 풋이나 마찬가지로. 꼭 가르게 썬 녹디는.  
107030 @ 음. 따로 삶아가지고.  
107030 #1 으, 삶아 것도 께여근에게 썬 낱 반 익으면 녹똤도 그레 풀어 낱 영 영영 께여. 풋거치 똤앙.  
107031 @ 득죽은? 그냥 득 삶아난 다음에 득죽도 썬니께.  
107031 #1 으, 그거 득국물에 그거 썬는 거 아니?  
107031 @ 예.  
107031 #1 득만 건져당 쥐 불민 그디.  
107031 @ 게난 그거.  
107031 #1 옛날에는 이제 거추룩 득죽, 풋죽 안 해영 득죽이여 허민 득 담아낱 썬영 먹어실 거라. 이제 거추룩 무신 출리지 안 허영. 녹똤여 무시거 안 행 해서 옛날은.  
107031 @ 음. 그냥 썬만 낱?  
107031 #1 으, 이제 신식으로덜.  
107031 @ 녹똤죽?  
107031 #1 녹똤죽이여 똤여 먹으레 가민 헤 줘주.

107031 @ 그냐 독 숲아난 물에.

107031 #1 독만 마녀 틀어 먹도 안 허여 옛날에는. ㄹ치 그냥 딸리면은 막 찍어 가민 경혜사 독죽이라.

107031 @ 꿩기도 잇고 쓸도 잇고 행 ㄹ치예.

107031 #1 이제는 독만 건져 텡 그 국물에 녹두 낱 숲당 그냥 녹디죽거치 허는 디 옛날에는 그냥 독죽 쑤게, 독죽 쑤게 독 폭 딸려 놓민 그냥 국자로라도 독독 찍 어불민 문 혜싸지게.

107032 @ 음. 혹시 갱죽이엔 현 것도 들어봅디가? 야채 놓고 채소 놓고 행 끓 인 죽?

107032 #1 그건 우린 먹어 보도 안해서.

107032 @ 혜 보도 안 허고. 아까 콩죽에만 무우나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

107032 #1 으, 콩죽에 무우도 이만큼씩 몽클몽클 썰어 노민 좋아.

107032 @ 그거에만 아까 무우가 들어가는 거고 죽 쑤는 디 채소가 들어가는 건 엇어예.

107032 #1 우린 아니 썬 봐서.

107032 @ 아니 썬 봐서예.

### 범벅과 수제비

107034 @ 계민 이젠 범벅.

107034 #1 ㄹ물범벅?

107034 @ 아무범벅이나 감저범벅도이라도.

107034 #1 어.

107034 @ 무신 범벅, 무신 범벅 잇수과?

107034 #2 대축범벅, ㄹ물범벅.

107034 #1 대축범벅도 우린 안 해나고.

107034 @ 대축범벅도 잇수과?

107034 #1 대축범벅은 맛은 잇어이, 경헌디.

107034 #2 최고주.

107034 @ 대축으로 허는 거?

107034 #1 대축살로.

107034 @ 아, 대축살로.

107034 #1 대축살로 허믄 그거 ㄹ루로 허민이.

107034 @ 으.

107034 #1 바로 분홍색으로 냅이.

107034 @ 으.

107034 #1 분홍색이 아니라 진분홍 거추룩 헤도이 맛이 잇어. 출지고.

107034 @ 음.

107034 #1 허여보진 안 해도 먹음은 해나서.  
107034 @ 대축범벅을? 으. 므뎡범벅.  
107034 #1 므뎡범벅은, 므뎡범벅이 물 하영 봐야 돼. 물 하영, 하영 낱 숲앙 그  
므뎡꺾루로 따지기만인 물 낱, 무 숲아진 우터레 므뎡꺾를을 삭허게 서경당 부깅  
올르민이 그냥 주격으로, 주격으로 짓어민 것이 범벅.  
107034 @ 늣뻘를 먼저 봐?  
107034 #1 으, 늣뻘 낱 늣뻘가 어느 정도 익어야 돼여 그 범벅에는.  
107034 @ 아.  
107034 #1 므뎡꺾루는 곧 익어.  
107034 @ 으.  
107034 #1 므뎡꺾루 이디 쭈어진 디서 므뎡꺾를을 영영 낱 혼 물이 후깅 올르  
민 물이 우터레 꺾루 우터레 올라와.  
107034 @ 예.  
107034 #1 게민 흥뻘 시면은 불 꺼뎡.  
107034 @ 으.  
107034 #1 막 그걸 짓어민이 무수도 곱루루 가고 꺾루도 곱루루 가민이 무수,  
그 범벅이 막 연허영 몬지락 허영 좋아.  
107034 @ 므뎡꺾를 말고 느쟁이로도 범벅 허지예?  
107034 #1 맛이 엇어.  
107034 @ 맛이 엇어.  
107034 #1 옛날이난 거 헛지 이제 이제 허는 식으로 허주.  
107034 @ 옛날 느쟁이영?  
107034 #1 느쟁이 범벅, 느쟁이 범벅 허는 디.  
107034 @ 예 그건 어떻 현 것과?  
107034 #1 단장을 잘 못 현 생이라이.  
107034 @ 예.  
107034 #1 지글지글 허여.  
107034 @ 지글지글 허여?  
107034 #1 아이고 흑 병덩이사 들어신디 아메도 옛날은 그축룩 해서.  
107034 @ 그것도 그 방법으로 허는 건가? 늣뻘 숲앙?  
107034 #1 으.  
107034 @ 느쟁이 범벅도?  
107034 #1 그거 안 노민이 맛이 엇주. 드룩드룩, 또락또락 허영. 무슨 노민이 츄  
분허영이 므르지도 잘 안 허고 좋아.  
107034 @ 음. 게난 주로 므뎡범벅이나 느쟁이 범벅이나.  
107034 #1 무수 낱 허는 거주.  
107034 @ 무수 낱예.



107034 #1 이제도 무수 낱 줄 거. 그 옛날도 무수 낱주, 꺼명헌 것에 무수도 안 노민 더 맛이 엇어실 거라. 지글지글 해영.

107034 @ 으. 감저, 감저는, 감저범벅은?

107034 #1 감저 범벅 어떻 허여. 감저가 어떻 행 범벅 헐 수가 있어?

107034 @ 감저는 범벅 안 허여?

107034 #1 못 허지 건 어떻 행 허여.

107035 @ 게민 범벅 다음에 수제비.

107035 #1 무슨 수제비 헐 거라, 믰물수제비, 밀가루수제비?

107035 @ 음. 믰물수제비부터.

107035 #1 국수 말앙?

107035 @ 국수 말앙 수제비부터.

107035 #1 이것에 막 타, 믰물ㄱ루를 어느 정도 두꺼웁게 타민 주걱으로나 칼 끝으로 툭툭툭툭 털어지게 또락지게 말앙 손으로 툭툭 툭아노민.

107035 @ 음. 무신 거 끌린 국물에?

107035 #1 거 국물이사 아무 다시다라도 낱 끌리주. 옛날 다시다가 잇어나서 그 낱 멩물일테주.

107035 @ 멩물에 봐근예. 이거만 노면 돼? 채소나 뭐 메역이나?

107035 #1 메역이나 노민, 애기 난 때는 메역 해영.

107035 @ 다른 채순 안 봐? 무수나 녹물이나?

107035 #1 아니 봐 나서. 수제빈 경베긴 안 돼 이걸. 아기 난 어멍이나 우리 아기 난 때도 시어멍네가 그냥 수제비 툭앙 허고 메역도 그냥 썰지도 안 헐 거 지랑 지랑 거 방서로 삼자 허영 해낱주.

107035 @ 으.

107035 #1 이제도 수제비 허는 디 이제는 수제비 허는 디 이런 거 저런 거 안 놓아. 옛날이나 놓주.

107035 @ 보통 믰물로 수제비 허고 밀가루로도 수제비 헐니까?

107035 #1 밀가루 수제비도 그 식으로, 그 식베긴 안 돼주.

107035 @ 아, 똑ㄱ타 허는 방법은?

107035 #1 방법은 경베긴 안 쉐 거난.

107036 @ 칼국수는?

107036 #1 칼국수는 밀가루던 믰물ㄱ루던 밀엇베끼.

107036 @ 밀엇, 밀엇 어떻?

107036 #1 밀엇 요만씩 썰엇.

107036 @ 영 말아근에 썰어?

107036 #1 영 돌레떡 만들앙 돔베에서 막 밀어근에 요만씩 요만씩 끈엇 ㄱ루 또 이 우터레 허텅 부떠불카부덴.

107036 @ 으.

107036 #1 영영영영 고비 개 낱 이젠 영영영영 떨어가는 거라. 떨어가민 이 차 판더레라도 낫다근에 물 끌여가민 살살 허고 옛날에는 이 믫물국수 허젠 허민 소고기 딸렁, 소고기 딸렁 그레 허여.

107036 @ 소고기 경 이십니까게.

107036 #1 옛날은 소고기도 잇엇주게. 연말 때 돼여근에, 음력 멧질 허게 돼면은.

107036 @ 아.

107036 #1 멧질로 그거 믫녀 곶아준대로 곶미떡 썰어 넣곡 그거 허곡 헤근에, 떡국 허영 멧질 허곡 떡국 허곡 허여 옛날엔.

107036 @ 떡국, 떡국 멧질도 험니까?

107036 #1 이제도 허는 딴 헤여서.

107036 @ 이딴 안 헤.

107036 #1 이딴 안 허는 디 허는 집인 허여.

107036 @ 이디 어디 선홀인가 송당은, 송당인가 그딴 뭐도 허드라.

107036 #1 무시거.

107036 @ 믫물, 국시멧질.

107036 #1 국 멧질. 믫물국 멧질?

107036 @ 으.

107036 #1 게메 그것이 거라. 이디도 멧질 허곡 멧질보다 앞서 그거 허는 거라.

107036 @ 그니까 앞서, 새백이.

107036 #1 으.

107036 @ 이디도 헤난? 함덕도?

107036 #1 우리도 헤나신디 이제는 멧질베끼 안 헤.

107036 @ 이제는 안 헤도 옛날엔 헤난?

107036 #1 으, 헤난.

107036 @ 그건 어떻 험니까?

107036 #1 어떻 허는 건지 그대로 허난, 시집 강 보난 거 험시난 경 허는 걸로.

107036 @ 새백이?

107036 #1 으, 멧질허기 전이.

107036 @ 믫물국시로 먼저 헤근에.

107036 #1 경험 탁 옷드나시 평 놘똥 또 그걸 또 수정 하민 그걸 더러 먹을 사름은 먹고 안 먹을 사름은 안 먹곡 허난게. 멧질 험 메 출렁.

107036 @ 게민 멧질험 메가 다섯 개다 으섯 개다 허민 다 믫물국시를 다 올려? 다섯 개 여섯 개를?

107036 #1 으. 흔 늬의 찍시 흐나씩.

107036 @ 다 흐나씩예. 문전에도 놓고?

107036 #1 문전에도 놘야지. 이딴 문전 다. 멧질에도 문전에 놓고 제서에도 문

젠에 노난 문전에 다 놓주.

107036 #2 문전이 대장이주.

107036 @ 아. 거난 믱물국시도 다 경 행 다. 그거 많이 해근에 그거 먼저 올려?  
젠 그거 보고 무신?

107036 #1 국멍질

107036 @ 국멍질이엔 곶아? 건 무사 허는 것과?

107036 #1 몰라 무사 허는 건지.

107036 @ 계난 멩질 찰리기도 버친디.

107036 #1 옛날 해난 풍습으로 험실테지.

107036 @ 무사 이 동네만 경 험신고 다른 디는 안 해.

107036 #1 이제는 안 해.

107036 @ 이젠 안 허지 만은 다 안 허지만은 옛날에, 옛날에.

107036 #1 아이고 멩 년 전이도 이 동네 허는 디 멩 밧디 잇어.

107036 @ 음. 국멍질을 먼저 행예.

107036 #1 으.

## 김치

107037 @ 김치 해 보게. 김치.

107037 #1 흐흐, 옛날 김치?

107037 @ 예, 옛날 김치. 김치는 무슨 김치, 무슨 김치 옛날엔 행 먹어났수과?

107037 #1 무슨 무슨 김치, 늣뻘 김치여 배추 김치베긴 안 해나신디.

107037 @ 예.

107038 #1 그때는 어려운 때난이 늣물은 캐여 오믄이 바당물에 강, 영 통이 잇어.

107038 @ 음.

107038 #1 물 들어 왓당 물 싸불민, 물 나가불민 그디 강 몸 죽엇당이 건져 와.

107038 @ 아, 배추를 거기다가.

107038 #1 으. 그런 멩청한 짓을 그디 가민 보말 찌꺼레기여 뭐여 막 부뜰 세계도 아녀고 경행 건져당 또 집이 왕, 그릇 쪽게 들게 힘으로 그거라 몸 더러 죽어불면은. 그때 소금 흐끔씩 허경 물 질어당 낱 절영 내벳당 그냥 그때는 주로 멩첫이 하거든게.

107038 @ 으.

107038 #1 멩첫만 퍼 놓고 고친 쪼그만 놓고 해근에. 이제 김치허렌 허면 그때 거추룩 허면 집이나 밧이나 폴아 낱 허렌 헐 거라.

107038 @ 예, 무신 말이과?

107038 #1 양념이 이제 그추룩 허렌 허민, 옛날 추룩 허렌 허면은.

107038 @ 으.

107038 #1 이제사게 고급으로만 딱 짐치도 해가는 디 옛날에는 잘 허면은 고치  
흐뎀 놓고 췌나 흐뎀 놔근에 허민 그냥 멜컷만 쳐 놔근에 그냥 짐치 담으민 짐치도  
멧 향 답았저, 두 향 답았저, 혼 향 답았저만 해나신디 짐치 요만이 현 통에 하나  
행 자꾸자꾸 행 먹으멍.

107038 @ 하하하.

107038 #1 이제사 짐치 험젠 헐 거라, 그거. 향으로 하나 헛저, 두 개 헛저 해나  
신디. 짐치도 이제 거치 놔물도 막 좋은 놔물거트민 허지만은 퍼데기 반 질러당 현  
거 갓당.

107038 @ 퍼데기 무신 거 현 거?

107038 #1 퍼데기.

107038 @ 예.

107038 #1 속 아니 앓이난 퍼데기. 거 행 헛주 이제 거치 속 팡팡 앓은 걸로.

107038 @ 옛날 엇어지예, 속 앓은 배추가.

107038 #1 하나에나 이시민 해당 풀젠 허주 이녁 먹젠은 안 해여.

107038 @ 아, 이녁 먹는 거는 퍼데기로?

107038 #1 돈 멘들젠.

107039 @ 으. 열무김치도 행 먹어났수과?

107039 #1 열무김치도 마찬가지로. 그때 열무 무시거 촌레 출리제. 이제나 열  
무 잇주. 열무가 어디 이서.

107039 @ 초마기가 열무 아니?

107039 #1 초마기 뜯 나고 열무.

107039 @ 딱난 거?

107039 #1 으. 초마기 임시 갈앙 먹던 거 초마기고. 그때 무수엔 해여, 늑뻘엔  
허주.

107039 @ 예, 늑뻘. 늑뻘 그냥 짝 난 거 어린 때 툇아근에 그걸로 김치허민 열  
무김치?

107039 #1 아니, 그 무수 늑뻘는 이과리 툇지 안 허주. 그냥 내불주. 그 어린 거  
메당이나 허민 무수 짐치여, 열무김치여 해실 겨주. 그뻘 엇어.

107039 @ 초마기영 토난 거군아예.

107039 #1 초마기는 이제 어린 거 혼 목에 이제 메당 짐치허는 것이 초마기 김  
치, 초마기 김치 허주. 그때 그런 짐치가 엇어.

107039 @ 옛날에.

107039 #1 그냥 먹음은 웅장, 먹음은 멜컷, 그거. 그거주.

107040 @ 옛날에도 물김치도 행 먹어났수과?

107040 #1 물김치 행 먹어났주. 물김치 배추.

107040 @ 아.

107040 #1 그런 거, 저런 거 허영. 거 맞은 엇어도.

107040 @ 어.

107040 #1 이제거치 맛은 엇어도 이제 거추룩 맛은 엇어도 다 허는 거난 다 헛지.

107040 @ 물집치에 무신 거 어떻 놉근에 헵니까?

107040 #1 물집치 무시 거 고치나 쪼끔 놓고 거 그레 늑빼나 썰어 놓주 무신 다시다가 잇어? 설탕도 옛날 우리 막 멧 년 뒤인디도 설탕, 설탕 사례 가민 상점에 서 요만헌 봉다리에 얼마씩. 이제거치 삼키로여, 멧키로여 설탕이 엇어났주.

107040 @ 음. 겐 물집치는 이제라도 담강 먹젠 허든 어떻 헵니까?

107040 #1 물집치 무시거게 무수 납죽납죽 썰어 놉근에 그냥 흙치 양념 맥이당 물 놉불민 동드랑이 뜨주게. 저려나민 무수가 안 떠.

107040 @ 아.

107040 #1 그냥 흙치 양념 무치명 물 놉근에 동곳 놓고 양념 그디 놀만이 이년 짐작 대로 노민 돼지.

107040 @ 음. 무수 말고 다른 것도 ㄱ치 놉?

107040 #1 뭐?

107040 @ 물집치 헐 때는 무수도 놓고 배치도 놓고?

107040 #1 거 어린 배추 시민 속 배추 시민 하나씩 노민 좋주 그거 뿐이로. 뽕도 돼고 먹음도 좋고.

107041 @ 음. 동지집치 헵 먹어났지예.

107041 #1 으, 봄 나민, 봄 나민 꺾어당.

107041 @ 무신 거에 동지? 녹물에 동지?

107041 #1 녹물 캐여 가당.

107041 @ 무수에 동지?

107041 #1 배추에 동지도 잇고 무수에 동지는 씨 흐끔이.

107041 @ 아, 그럼 배치 동지로예.

107041 #1 배치 동지 헤 오민 파랑게 양념, 이제는 파랑게 해당 양념 무치민 것이 맛있어.

107041 @ 예.

107041 #1 옛날에는 기자 해당 숲양도 먹고 두리치기 어질영 설러불엇주.

107041 @ 음.

107041 #1 이제는 동지집치 허민 맛있주.

107041 @ 예.

107041 #1 봄 낭.

107042 @ 봄 낭예. 그 다음엔 무우, 늑빼집치?

107042 #1 늑빼집치나 그거나 그자 맛데가리도 엇이 똑똑 썰영 배치 새에 낵. 이제도, 이젠 양념이나 많이 무치난 맛있나. 그때는 양념도 즐바로 허지 안 헌 것에 멜컷만 처 놉부난 검영케.

107042 @ 하하하. 이제처럼 깎두기처럼도 행 먹어난?  
107042 #1 그런 건 몰르크라.  
107042 @ 그냥 배추에다 같이 놔?  
107042 #1 으. 기름이 속에 들어간 거 색은 검시렁 해도 맛은 새콤새콤.  
107042 @ 아.  
107042 #1 오래니까 익엉, 맛 들엉.  
107042 @ 그럼 그냥 넘적넘적하게 썰엉?  
107042 #1 이만씩 썰엉게.  
107042 @ 아, 그만씩 썰엉 배치?  
107042 #1 새에.  
107042 @ 새에 집어 넣어.  
107042 #1 배치 흔 도리 놓고 그거 흔 도리 놔 허민.  
107042 @ 늪빠만 따로 해근에 깎두긴 안 허고? 옛날엔 안 해서예?  
107042 #1 안 해서. 몰란 다른 디, 우린 안 헨.  
107043 @ 음. 과짐치?  
107043 #1 과짐치 뭐라, 예구 과짐치 어디서 그때.  
107043 @ 꽤마농.  
107043 #1 게메, 과짐치가 어디 셔 그때.  
107043 @ 이젠 과짐치 행 먹어도예.  
107043 #1 흐뎡 허민 요만이만 허민 막 캐당. 맛은 잇주게, 어린 때난. 게도 그 때 과짐친 엇어.  
107043 @ 음.  
107043 #1 꽤마농이 별로 엇어신가?  
107043 @ 몰라. 어떻사 헤신디.  
107043 #1 콧데사니 지시엔 헨이.  
107043 @ 으.  
107043 #1 그뎡 콧데사니 헤영.  
107043 @ 으.  
107043 #1 콧데사니 헤영 삼월 나가민 메여당, 흐뎡 요 울안이나 널른 사름 메 당 장에 영 풀민 그거 사당 지시나 허고. 이제는 그냥 밧딜로 멧 천평씩 다 사멍 해도, 옛날엔 경 밧으로 해서. 이추룩 헨 울안이나 요만큼.  
107043 @ 으.  
107043 #1 짐치헨 때도 마농이 하영 놔사 쿠성 맛 좋는디 이런 디 흐뎡 노민 마농은 맛 좋은 중은 알아도 마농이 엇이니까 안 논 거지.  
107044 @ 혹시 꿩마농도 짐치 행 먹읍니까?  
107044 #1 으. 헨 수 시민 건 더 좋주. 달래짐치.  
107044 @ 달래짐치 게난.

107044 #1 옛날에도 밧데 갓당 짐 지멍 말멍 보리밧디 검질 메당이라도 걸 캐영 와, 캐영 오민 기자 톨이.

107044 @ 으.

107044 #1 톨 무청 막 씻은 것에 썩마농을 영영 무청 췌장에 먹으면 그렇게 맛 줄 수가 있어.

107044 @ 솟양?

107044 #1 그냥 생으로. 췌장에 톨 영영 감양 먹으면, 이도 좋고 현 때덜이난 것도 막 맛 준다.

107044 @ 음.

107044 #1 그런 걸로 짐치하고 무시거 헐 내긴 안 나.

107044 @ 음.

107044 #1 췌 그거 캐레 텅기고 캐레 산에 다 가고.

107044 @ 예.

107044 #1 캐레 텅기는 양도 있어.

107044 @ 그냥 검질 메당예?

107044 #1 으, 검질 메당 밧디, 보리밧디 거 허민 먹음직 허민 그것덜 캐영 왕 보곱지에 톨 낱 왔당.

107044 @ 음.

107044 #1 밧디서 점심 먹을 때도 그걸로 헝 먹으면 맛있지.

107044 @ 음.

107044 #1 밧디 벨 반찬덜이 안 간 거.

107044 @ 음.

107044 #1 췌장이나 무시거나.

107044 @ 갓김치? 갓느물김치?

107044 #1 으. 갓느물김치도 마찬가지로. 이제야 갓느물김치 맛있게 허연에 코가 툭툭 터지게 헤영 먹주 옛날 갓느물, 갓김치가 어디 셔?

107045 @ 옛날 갓느물 김치가 엇어났수과?

107045 #1 갓느물은 잇어도 갓은 엇어, 갓김친 엇어.

107045 @ 갓느물은 옛날에도 헝 먹어났수과?

107045 #1 그냥이 배추허는 디 낱이.

107045 @ ㄴ치?

107045 #1 으 ㄴ치 ㄴ근에 죽여가.

107045 @ 따로 그거만 허지는 안 허고.

107045 #1 따로 허민 건 매왕도 못 먹을 거 님아.

107046 @ 아, 새우리?

107046 #1 새우리 이젠 하주 그뻘 하지 안 허주게. 올 안에 쪼끔씩 낱 췌장에라도 썰어 놀 여산허주 이제 거추룩 정 처 같아사 새우리 김치여, 무신 갓 김치여.

107046 @ 예.

107046 #1 허주 그런 거 잊어서.

107047 @ 그런 거 잊어서예. 그럼 옛날에 배추김치는 언제쯤에 보통 담가놔수  
과?

107047 #1 시월. 동짓달, 동짓달 나면은게.

107047 @ 동지달 나민. 겐 아까 바당에 강 숨 죽였당 집이 와근에예. 겐 혜근  
에.

107047 #1 혼 사흘 절여 놔사.

107047 @ 혼 사흘이나 절여? 무사 경 오래 절여?

107047 #1 몰라. 겨민이 김치가 저것이 누렁허여이. 오래민 누렁허잖아.

107047 @ 으.

107047 #1 누렁혜사 김치덜은 현다.

107047 @ 아, 이제는 흐룻밤만 허민.

107047 #1 이제 절이민 널 웹 전이 건져사 뒤 흐끔.

107047 @ 게난

107047 #1 밤에 볶아오민 혼 열두시쯤 건져당 볶아오민 김치 허는 디.

107047 @ 무사 옛날엔 경 오래혜신고?

107047 #1 거 몰라 어둑은 짓이 그겨주게. 이젠 뒤 경 안허주. 이젠 또 김치도  
하영 먹도 안 허여. 중간에가 하영 먹어지주.

107047 @ 예.



## 제2절 어휘

-

### 1. 인체

####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
201002	대가리	대가리, 대맹이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굴
201005	제비초리	생이플랑지, 생이플랭이
201006	머리털	머리터럭
201007	머리카락	머리꺼럭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졸르다
201010	빗[梳]	빗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챙빗	챙빗 쉬챙빗, 니챙빗
201013	뺨다	다우다
201014	비녀	빈네대
201015	고수머리	뽑슬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메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앞갈르는거
201019	이마	이멩이
201020	넓다[廣]	널르다
201021	이마빼기	임뎡이
201022	숨털	간세털
201023	얼굴	양지
201024	낯[面]	놋
201025	웃다[笑]	우스다
201026	그리다[寫]	기리다
201027	세숫대야	시숫사리
201028	씻다[洗]	시치다
201029	거울	멘경, 색경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뺨
201032	뺨따귀	뺨때기

201033	때리다[打]	뜨리다
201034	불	불
201035	불따구니	*
201036	불거리	귀똥치기
201037	광대뼈	불뼈
201038	보조개	조개그릇
201039	주름살	주름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공즈
201042	검은자위	검은공즈
201043	눈꺼풀	눈두께
201044	거적눈	더께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지트다
201047	속눈썹	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콧대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폐랍다
201052	눈곱	눈뭍재기
201053	눈초리	*
201054	사팔눈	사파리
201055	눈웃음	눈우심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직다
201058	콧마루	콧대
201059	세다[強]	노프다
201060	콧구멍	콧고냥
201061	코딱지	코버랭이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씻다
201064	콧수염	콧시염
201065	인중	콧밧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씨다
201068	참말	츄말
201069	거짓말	거줏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답달하다	답도리허다, 답달허다
201072	입술	입바우
201073	헐다[毀]	입안 굿다
201074	입놀림	입늑림
201075	말하다	말근다
201076	입방아	*
201077	허풍	풍, 허풍
201078	뇌다	느다시리다
201079	침[唾]	꿈
201080	삼키다[吞]	삼키다
201081	가래침	개꿈
201082	빨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닐치름
201084	턱받이	턱바지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활르다
201087	헛바늘	셋발
201088	이[齒]	니
201089	앞니	압니
201090	송곳니	걸리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버든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옥니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돋다
201098	옥물다	*
201099	턱	아구턱
201100	턱살	*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시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귓자락
201105	귓볼	귓봉
201106	귓구멍	귓고냥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귓밥
201109	귀이개	*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
201112	구레나룻	녹대시염
201113	목	야게기
201114	굽다[顛]	훑다
201115	모가지	모가지
201116	먹살	모가지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뒷대가리
201119	꼭뒤	*
201120	뒷덜미	뒷야게

#### 상체

201121	어깨	웃독지
201122	어깨뼈	웃독지뼈
201123	어깨죽지	*
201124	겨드랑이	저갱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뚝
201127	새기다[刻]	*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득술
201131	팔꿈치	폴고비
201132	팔목(=손목)	홀목
201133	뼈	빼
201134	뼈다귀	빼다귀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왼손
201137	오른손	노단손
201138	왼손잡이	왼갱이
201139	손등	손등어리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흥글다
201144	거스러미	거심
201145	할퀴다	극주다
201146	손가락	손ㄴ락
201147	엄지손가락	어금손ㄴ락
201148	검지손가락	언주웨기손ㄴ락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ㄴ락
201150	약손가락	노누에기손ㄴ락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ㄴ락
201152	손살	손거림
201153	가슴	가심
201154	뛰다[跳]	튀다
201155	젓가슴	젓가심
201156	명치	오모손이
201157	명자리	*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
201160	젓명얼	젓명얼
201161	짜다[攥]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벳또롱
201167	옆구리	엽갈리
201168	갈비뼈	갈비뼈
201169	등	등어리
201170	밀다[推]	밀리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매기	등다리
201173	가렵다[癢]	ㄴ랍다
201174	긁다[抓]	긁다
201175	결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등물
201177	찬물	석석헌물
201178	등마루	등골

201179 등뼈 등뼈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존등이  
201182 가늘다[細] 그늘다  
201183 엉덩이 엉덩이, 엉치  
201184 살집 \*  
201185 볼기 \*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꼬냥  
201191 더럽다[汚] 덜롭다  
201192 가볍다[輕] 게볍다  
201193 무겁다[重] 베다  
201194 살 \*  
201195 가래뿔 조금폐기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  
201200 무릎 동무릅  
201201 무릎뼈 무릅뼈  
201202 뼈다[髌] 뼈다, 심박허다  
201203 정강이 정갱이  
201204 정강뼈 정갱이뼈  
201205 종아리 종에  
201206 장판지 주술  
201207 오금 오곰  
201208 복사뼈 귀마리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굵다[凶] 구지다  
201212 헛발질 헛치기  
201213 발목 회목

201214	겹질리다	빠다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조글다
201220	간지럼	조금
201221	발가락	발ㄴ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ㄴ락
201221-2	둘째발가락	두번째발ㄴ락
201221-3	가운데발가락	시번째발ㄴ락
201221-4	넷째발가락	니번째발ㄴ락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ㄴ락

201222	발살	발거림
201223	까치눈	*
201224	티눈	퀴눈이
201225	고린내	ㄴ랑내
201226	발톱	발굽
201227	발뒤축	뒤척이
201228	쓸개[膽]	쓸개
201229	허파	복부기
201230	마음	ㅁ음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배설
201232-1	큰창자	대창, 큰창지
201232-2	작은창자	작은배설, 준배설
201233	목숨	멍
201234	빼앗다[脫]	빠다
201235	한숨	한숨

## 2. 육아

###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쁘다
202004	입덧	*
202005	낳다[娩]	나다
202006	태(胎)	애깃방석
202007	땃줄	뱃또롱줄
202008	나이	여녕,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믄이
202011	갓난아이	궂난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두린아으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이
202016	아깝다	아꼘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엿개
202018	엿저지	드살이
201019	품다	쿰다
202020	오줌	오죸
202021	오줌독	오죸항
202022	오줌버캐	오죸정갱이
202023	오줌싸개	오죸쌔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
202026	지린내	찌렁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욕
202029	배넛저고리	봣데저고리, 봣데적삼
202030	기저귀	살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배부레기
202032	포대기	애기이불
202033	보자기	보제기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치네	뚜데기, 지성치메
202038	띠	걸레, 걸렛베
202039	개구멍바지	알튼바지

###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즘메즘메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섬메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
202046	걸음마	걸음발
202047	걸리다	걸리다
202048	곤두박질	광닥시
202049	곤두서다	광닥시허다
202050	가동가동	으까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
202053	목말	정애고개
202054	흥내	승
202055	흥내질하다	승털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시알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부에, 용심
202060	참다[忍]	춤다
202061	심술	심술
202062	밉다[憎]	밉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
202066	딱지치기	빠찌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곱을락
202069	숨다	곱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장난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데썰락
202073	풍계문이	굽질락
202074	줄넘기	베칠락, 베떨락
202075	줄다리기	줄등길락, 베등길락
202076	수수께끼	*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뺨기	땅뺨아먹기
202082	사금파리	사금파리
202083	말놀음질	말탈락
202083-1	생말타기	*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
202085	달음박질	달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
202087	제기차기	쨌끼차다
202088	혜엄치다	히다
202089	웃놀이	넉등배기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토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케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숫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흔지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두지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세지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2 막동                      막지

202093	보리웃	*
202094	줄목	불목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장이	승갱이
202097	싸우다[鬪]	드투다
202098	패싸움	*
202099	모다기령	*
202100	편벽하다	편백들다
202101	팽이치기	도레기돌리기
202102	팽이	도레기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쟁연
202107	가오리연	가게비연, 게우리연
202108	연달	*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머릿대
202108-2	꽂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상대
202108-3	꺾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어질연대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꺾른대

202109	방구멍	*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별이줄	별이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별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별이줄	*
202112-3	꽂숫줄	연의 꽂숫구멍에 꿰어서 꽂숫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별이줄	*
202112-4	활별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별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별이줄	*

202113	얼레	얼레, 걸레
202114	두모얼레	짜얼레

202115	네모얼레	통얼레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글리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그네
202120	밀싯개	*
202121	굴렁쇠	*
202122	구르다[轉]	*
202123	썰매	*
202124	자전거	자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

###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
202129	기지개	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짱허다
202132	놀라다[驚]	추물락허다, 금착허다
202133	졸음	졸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잠
202137	귀잠	짚은잠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줍귀
202141	잠꾸러기	줍푸대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허다
202144	트림	게틀레기
202145	딸꾹질	털국지
202146	채채기	채치기
202147	개치네췌	허쉬나라
202148	방귀	똥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복재기
202151	구린내	구린내
202152	노린내	고꼬랑내
202153	사레들다	스레들다
202154	감기	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죽은마누라
202157	학질	*
202158	천연두	큰마누라
202159	곰보	*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옷	옷
202165	버짐	버줌
202166	마른버짐	군버줌
202167	진버짐	*
202168	주근깨	프리춤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사막
202171	여드름	늦싸움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퍼렇허다
202174	굳은살	멍쿠쟁이
202175	부스럼	허물
202176	종기	허물
202177	습종	*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
202180	다대	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구진물
202183	낫다[癩]	좋다
202184	아물다	새슬메우다
202185	표적	폐적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얹다[痛]	알리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떼기
202190	소경	봉스
202191	칭맹과니	뜬봉스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애꾸눈
202194	사팔뜨기	눈트레기
202195	다래끼	*
202195-1		개씹
202195-2		들럿
202196	언칭이	청보
202197	외언칭이	*
202198	쌍언칭이	쌍얼챙이
202199	귀떡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물레기
202202	말더듬이	*
202203	혀짤배기	세다드레기
202204	입비뚫이	입트레기
202205	구안괘사	풍
202206	가납사니	*
202207	곰배팔이	폴즐레기
202208	곱사등이	등곱새
202209	절뚝발이	발짚룩이
202210	얹은뱅이	얹인배기
202211	문둥이	용다리

###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바지, 아방
203002	어머니	어머니, 어멍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00아버지
203008	아내	00어명
203009	부부	두가시
203010	싫다[厭]	실르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큰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족은말젯아덜
203012-9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심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원딸
203017	의붓딸	다심딸
203018	자식	자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순
203021	어비딸	에비딸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에이딸
203025	어이아들	에이새끼
203026	말이	못이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성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독자아덜
203034	외딸	외동딸
203035	쌍둥이	쌍둥이, 골루기
203036	다르다[異]	뜬나다
203037	같다[如]	가트다
203038	양자	양재
203038-1		양재간다
203038-2		양재들다
203039	처녀	비바리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스주보다
203044	중신	중진
203045	권당	퀸당
203045-1		먼 친척
203045-2		가까운 친척
203046	얕은잔치	얕인잔치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우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아방
203050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어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203054	외할머니	외할머니
203055	삼촌	작은아버지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지바님, 아지방
203057	아주머니	아지방
203058	환갑	육순
203059	늙으신네	늙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쿨롱팔십, 천징다리
203063	병추기	병주시
203064	거동하다	오몽허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지
203067	친손자	친손지
203068	외손자	외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외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외펜
203073	종내기	종내기
203074	시누이	시누이
203075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캐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외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아버지
203092	친어머니	어머니
203093	의붓아버지	다심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심어멍
203095	움딸	*
203096	누구	눅
203097	남[他]	눔

#### 4. 의복

#####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감
204002	끓다	끓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줄어들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명	*
204010	옛새무명	*
204011	생목	지찬미녕
204012	광목	외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소계
204017	풀숨	*
204018	숨틀	소계클
204019	숨틀집	숨텝는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드레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
204024	번데기	번데기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잎
204027	뽕나무	뽕남
204028	산뽕나무	드르뽕남
204029	오디	*
204030	다듬잇돌	홍깃대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듬이마깨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계끔
204035	물거품	물계끔
204036	빨랫돌	서답팡
204037	빨랫방망이	물마께
204038	빨랫바구니	서답구덕
204039	헝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빨레줄
204041	마르다[乾]	들르다
204042	바지랑대	바드랭이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걷다
204045	바래다[褪]	바라다
204046	헝겂	헝벅
204047	찢다[裂]	브리다
204048	나부랭이	*

####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메자락
204054	풀치마	들름치메
204055	옷고름	옷고름
204056	옷깃	깃
204057	옷섧	앞섧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모작단추, 들매기
204060	동정	동정
204061	소매	소미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폭
204066	두루마기	두루막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의

204069	토시	토시
204070	누더기	두더기옷
204071	거지	동냥바치
204072	구두쇠	구두쇠
204073	잠방이	잠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
204075	주머니	찰리
204076	호주머니	보금지
204077	넣다[入]	놓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뒤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보선등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뽀족한 부분	코지

204079	길목버선	질목
204080	버선발	보선발
204081	대님	다님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
204084	겹옷	*
204085	숨옷	소게옷
204086	얹다	얹롭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꺾데기
204091	홀이불	훗이불
204092	겹이불	*
204093	사이	트멍
204094	누비이불	누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부스러미
204097	홀청	이불안

204098	요	요
204099	욏읏	욏안
204100	눗다[臥]	눗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앗다[座]	앗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읏	베갯읏
204107	베갯머리	*
204108	베갯모	베갯모메기
204109	몽침	몽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
204113	병거지	털모즈
204114	밑짚모자	밑짚패랭이
204115	미사리	*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총박이	*
204118	판총박이	*
204119	미투리	*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족신	창신
204123	부르뜨다	*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몽수
204127	부채	선재
204128	미선	미선
204129	부치다[扇]	부끄다

####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짚고리	바농상지
204131	가위	ㄱ새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골미가죽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틀레
204136	실패	실패
204137	바늘	바농
204138	찌르다[刺]	찔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농즐레
204140	바늘귀	바농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집다	줍다
204143	실밥	실밥
204144	접다	줍다
204145	콧치다	*
204146	휘잡치다	감추다
204147	재봉틀	미싱
204148	다리미	다루웨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운디
204151	인두판	운디판
204152	누르다[壓]	눌르다
204153	씨아	*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썰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귀
204153-5	씨아손	손잡이	손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세 \*

## 5. 음식

###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205007	빠다[湯水]	백뜨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팥밥	팻밥
205012	반지기	*
205013	고두밥	*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룽이
205016	눌은밥	누녕이밥
205017	더운밥	더운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과래밥	프레밥
205020	밥보	밥부게, 밥푸대
205021	밥술	*
205022	밥알	밥티
205023	끼니	삼시
205024	늦다[晩]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농	승농
205029	화독내	그끈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낙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팥죽	팥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김치
205050	배추김치	배추김치
205051	무김치	늬뻬김치
205052	열무김치	*



205053	물김치	물김치
205054	나박김치	*
205055	갓김치	갓노물김치
205056	파김치	파김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담다
205060	간장	장물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근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근허다
205069	콩나물	콩주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노물
205071	무나물	무노물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노물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손
205075	꺾다[切]	거끄다
205076	곳[場所]	곳
205077	고비	베염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네기
205079	부추	새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
205083	오이	외
205084	물외	물외
205085	참외	츄외
205086	수세미외	*
205087	말물	초물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간절미

205090	원두막	웻막
205091	갯잎	유잎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푼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치ㄱ루
205095	맵다[辛]	매웁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잎
205100	시들다	유을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흰설기
205110	부스러기	보시레기
205111	송편	곤떡
205112	소[떡소]	숨메
205113	고물	숨메
205114	도래떡	돌레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디
205117	가루	ㄱ루
205118	국수	국시
205119	칼국수	칼국시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205122	물다[淡]	얄롭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지
205127	과줄	*
205128	엿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탁배기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즈울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춘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205140	술독	술황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수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드르싸다
205146	갑시다	곡끼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부침이
205149	산적	적

####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제
205151	부엌문	정제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
205154	불뚝	불뚝
205155	부엌비	정제비차락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야프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숯검뎡이

205160	검댕	숫검댕이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재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두다
205164	부뚜막	*
205165	붓돌	숫덕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동숫
205168	무쇠솔	무쇠숫
205169	끓다[沸]	궤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이
205171	솔귀	*
205172	솔전	숫전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밋창
205175	솔검정	숫검댕이
205176	부삽	불삽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헛일
205179	살강	*
205180	부지깅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도리방석
205182	성냥	불곽
205183	성냥개비	불곽살
205184	성냥갑	불곽
205185	부시	부쇄
205186	부싯돌	부돌
205187	부싯깃	불쩍
205188	부시쌈지	*
205189	부시통	*
205190	등잔	등잔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룽	*
205193	남포등	등핏불
205194	젍싯불	젍싯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숫	숫

205197	검다[黑]	거명허다
205198	숫가마	숫가마
205199	뜬숫	불끈숫
205200	숫검정	*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그끄렁내
205203	불태우다	불케우다
205204	불티	불개미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붕당	*
205210	화룻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추다
205212	화상(火傷)	화상
205213	부손	불수가락
205214	부젓가락	불즈뵈
205215	다리쇠	시발쇄
205216	석쇠	적쇄
205217	물독	물황
205217-1		*
205217-2		*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태우다
205220	용고뚜리	담배초관
205221	담뱃대	담배통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
205226	담배쌈지	담배주머니
205227	재떨이	재따리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늦사발
205233	사발	사기사발
205234	뚜껍	뚜께
205235	접시	젍시
205236	굽달이	눈돋은젍시
205237	대접	낭푼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장물종지
205241	숟가락	수까락
205242	젓가락	저븜
205243	수저통	수꾸락통, 제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정물
205246	도시락	멘또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박세기
205250	박	콧
205251	뒤옹박	*
205252	조롱박	콧박
205253	쪽박	*
205254	양푼	양푼이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조막단지
205257	뚝배기	뚝배기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룻마개
205260	시룻번	*
205261	경그레	바드랭이
205262	함지박	남박세기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차룽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솜대(분죽)	수리대

205269	제주조릿대	*
205270	굳은대	왕대
205271	무른대	죽신대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물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
205278	빼다[拔]	빠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글다
205281	숫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느실다
205283	행주	상삐
205284	번철	빙철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205287	죽젓광이	남술
205288	수세미	수세
205289	떡살	떡본
205290	밀판	안반
205291	밀개	홍깃대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우통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알통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코
205292-4	(반이팽)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등덜팽

205293	빚다	답다
205294	풍로	*
205295	삼발이	시발쉐
205296	달이다	딸리다

## 6. 가옥

###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골목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넓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기와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외거리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밖거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먼문
206016	결채	모거리
206017	짓다[作]	지시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항항뒤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일르다
206024	마구간	말막
206025	변소	통시
206026	부출돌	디들팡
206026-1	부출	*
206027	기척	기적
206028	맞서다[拮]	마주사다
206029	냄새	내음살
206030	맡다[臭]	마트다
206031	울담	울담
206032	울안	울안네



206033	터알	우영팻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릿눌
206036	짚가리	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	
206040	이영	노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여끄다

####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체
206043-1		*
206043-2		*
206044	디딤돌	이웃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상방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
206048	마룻널	마리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장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롭다
206053	구들직장	방지기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미치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안방
206062	방문	지게문
206063	비[帚]	비치락

206064	빗자루[柄]	즈룩
206065	쓸다	썰다
206066	버리다[棄]	데끼다
206067	바람벽	축브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알	*
206075	풀비	풀비치락
206076	찾방	챗방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가냥ㅎ다
206081	안뒤곶	뒷무똥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양철
206084	지붕물매	물매
206085	이다[蓋]	이다
206086	평고대	거오아
206087	처마	집가지
206088	처맛기슭	집귀역
206089	낙숫물	지깃물
206090	댓돌	예잇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춘흑
206093	찰흙	출흑
206094	흙덩이	흑병덩이
206095	새벽	개벽
206096	흙질	흑질
206097	이기다[沓]	뀌다
206098	산자(撒子)	고데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

206101	뿔기둥	*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르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처나반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椽)	테기
206111	인방	*
206112	문설주	문입쟁이
206113	문곶도리	*
206114	문얼굴	*
206115	문틀	문부출
206116	문머리	*
206117	문흙	흙베기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지계문
206120	달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중그다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창꿈
206125	구멍	고냥
206126	미단이	미다지
206127	여단이	*
206128	살문	살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겉창문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돌치기
206133	암톨쩌귀	*
206134	수톨쩌귀	*
206135	문고리	문걸쇄
206136	배목	걸쇄
206137	퀘	퀘

206138	열다[開]	올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쇄
206141	열쇠	열쇄
206142	부수다[碎]	부실루다
206143	서랍	설랍

### 연장

206144	툽	통
206145	양날툽	양날베기
206146	거도	장툽
206147	틀툽	*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자구
206150	옥자귀	극쇄
206151	노루발장도리	마치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빠루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마치
206157	방망이	방맹이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흙베기대패
206160	송곳	장도리
206161	뚫다[鑿]	뚫르다
206162	굽자	굽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수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흑손
206167	쇠흙손	쇄손
206168	나무흙손	*
206169	흙받기	고데판
206170	돌물레	줄호랭이
206171-1		뒤치기

## 7. 생업

### 농업

207001	농사	용스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엎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덜랭이
207006	병작(並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잡대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죽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몽콜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곤게 선 나무	설칫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들벧이뿔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

207009	육보다	속다
207010	겨리	저리
207011	벧밥	벧에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멍에
207014	밭두둑	*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이랑
207017	거웃	파니
207018	극쟁이	팽이
207019	씨레	씨레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밭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밭	씨레 몽둥이에 박힌 뽕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괭이	괭이
207022	곡괭이	목괭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쉐시렁
207025	삽	갈래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망탱이
207034	꽁게	끄슬퀴
207035	남태	남테
207036	돌번지	돌테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
207040	두벌매기	두불
207041	세벌매기	세불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걸라
207043	호미	굴갱이
207044	홍아기	아우개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삿	품

207048	비싸다	빚나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폼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글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즈락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술메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늘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 패기	미베쟁이
207055	새끼	새끼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모작
207058	노	새끼줄
207059	끈	베
207060	참바(바[索])	베
207061	짐바	짐페
207062	질빵	*
207063	잇다[承]	이스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
207076	벼훑이	산뒤클
207077	그네	홀테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207078	타작하다	태작허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진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207083	겨를	저르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어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깨틀레

207085	여물	으물
207086	쭈정이	줄레
207087	꿀	출
207088	꿀밭	출왓
207089	꿀꾼	낫꾼
207090	꿀단	출못
207091	신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구르마
207093	복두	용돏베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덕석

207096	거적	*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ㄱ는체
207099	굵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레미	얼멍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푸끄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솔박’	솔박
207109	풍구	*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제기
207112	되	뒹
207113	관되	관뒹
207114	사삿되	*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207118	고무래	구는데
207119	불당그래	굴목구는데
207120	떡등구미	멕
207121	가마니	가멍이
207122	꿇다[引]	꿇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근다
207125	자루[袋]	찰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계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간세다리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밭
207132	누리다[黃]	누렁허다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ㄴ시락
207135	보리쌀	보리츨
207136	보릿겨	보리채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슬오리
207139	맥주보리	주냉이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낭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감부기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원조
207148	숙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서속
207151	비비다	보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재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침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고고리
207157	볍씨	*
207158	못자리	*
207159	밭벼[山稻]	산뒤
207160	밭벼 이삭	산뒤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뒤밭
207162	밭벼쌀	산뒤츨
207163	밭벼짚	산뒤쩍
207164	맷돌	ㄴ레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ㄴ레착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쪽	웃착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쪽	알착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쪽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쪽 한가운데 박힌 물건	벳또롱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ㄴ레즈락

207165	맷방석	ㄴ렛방석
207166	매함지	ㄴ렛도고리
207167	풀맷돌	풀ㄴ레
207168	풀매	풀ㄴ레
207169	썰기	*
207170	방아	도구방에
207171	쌍방아	두콜방에
207171-1		시콜방에
207171-2		*
207171-3		*
207172	방아확	방에혹
207173	방앗간	방에공장
207174	븨비다	*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돌ㄴ랑
207178	방앗돌	*
207179	연자맷간	돌ㄴ랑
207180	절구	방에혹
207181	절긋공이	마계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뉘	뉘
207184	고르다[擇]	골리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채
207187	콩	통
207188	콩잎	콩잎
207189	기름콩	장콩
207190	콩깍지	콩봉덩이

207191	콩짚	콩대
207192	꼬투리	콩꼬질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비물
207195	뜨겁다	떼불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찌끄레기
207198	완두	푸린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팔	폿
207202	팔알	폿방울
207203	팔밥	폿밥
207204	녹두	눅디
207205	깨(참깨)	퀘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츄지름
207208	깻묵	퀘떡
207209	고소하다	코시롱허다
207210	메밀	모들
207211	메밀밭	모들밭
207212	나깨	느쟁이
207213	메밀껍질	모들채
207214	메밀국수	모들국시
207215	메밀수제비	모들즈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모들칼국시
207217	메밀떡	모들떡
207218	메밀묵	모들묵
207219	무르다[軟]	얄롭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빼때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실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늘빨리

207225-3	마늘중	마늘쫘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
207227	파	꽤마농
207227-1	파밑동	꽤마농뽕리
207228	무	늪삐
207229	무청	늪삐이파리
207230	시래기	*
207231	장다리무	늪삐씨
207232	열무	츄늪물
207233	배추	늪물
207234	고깡이(배추)	늪물속
207235	나물	늪물
207236	채소	송키
207237	겉대	떡잎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대축부룩
207240-1	옥수수	대축
207241	수수	*
207242	쌀수수	*
207243	비목수수	*
207244	사탕수수	사당대축
207245	수수깡	*

## 어업

207246	잠녀(潛女)	즈네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웃	물웃
207249	물안경[水鏡]	안경
207249-1		*
207249-2		*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작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뜰채	*

207256	그물	구물
207257	돛단배	풍선
207258	이물	*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초석
207261	마룻대(돛대)	*
207262	마룻줄(용총줄)	*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내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눅구멍	*
207273	눅줄	*
207274	닷	닷
207275	닷가지	*
207276	닷줄	*
207277	닷돌	*
207278	닷걸이	*
207279	키[舵]	*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터우

기타

207285	이웃	동네
207286	더불다[與]	ㄱ치살다
207287	마을	가름
207288	고을[村]	고을
207289	누리[世]	시상
207290	윗마을	웃동네
207291	옮다[移]	옮다
207292	아랫마을	아랫동네
207293	마을가다	가름돌다
207294	밤마을	밤마실
207295	가게	상점
207296	구멍가게	점빵
207297	다녀오다	갓다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주리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우수리
207302	있다[有]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남제기
207307	흥정	흥성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내다
207310	변리[邊利]	벨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칩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
207315	모루	*
207316	모루채	*
207317	갓양태(양태)	양태
207318	망건	망건
207319	망건골	망건골



207320	탕건	탕근
207321	결다[編]	못다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바치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핑바치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
207330	나누다	갈르다
207331	갖다[持]	앗다

##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서이
208001-4	(4)	너이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답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일흔
208004-7	(80)	오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돼	흔 말
208005-2	(2/두)	두 돼	두 말
208005-3	(3/서, 석)	석 돼	서 말
208005-4	(4/너, 녀)	녀 돼	너 말
208005-5	(5/닷)	닷 돼	닷 말
208005-6	(6/엿)	으섯 돼	웃 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 개	흔두 돼	흔두 말
208006-2	(2-3/두세)	두서너 개	두서너 돼	두서너 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너 개	두서너너 돼	두서너너 말
208006-4	(3-4/서너)	서너니 개	서너니 돼	서너니 말
208006-5	(4-5/네댓)	너댓 개	너댓 돼	너댓 말
208006-6	(5-6/대여섯)	대으섯 개	대으섯 돼	대으섯 말
208006-7	(6-7/예닐곱)	예술곱 개	예술곱 돼	예술곱 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답 개	일고으답 돼	일고으답 말
208006-9	(8-9/여덟아홉)	안다아홉 개	으다아홉 돼	으다아홉 말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라든

단위

208009 뽕 뽕  
 208010 집계뽕 조리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밟다  
 208013 필(무명/명주) 자  
 208014-1

208014-1	무명	마흔두 자
208014-2	명주	*
208014-3	광목	*
208014-4	베	스물두 자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400평  
 208016 못 못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둥 무께미  
 208019-1 보달  
 208020 조짐 못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30
208021-2	조(이삭 있음)	*
208021-3	콩	*
208021-4	밭벼	*
208021-5	꿀	30
208021-6	띠	30
208021-7	각단	*
208021-8	어욱	*

208022 모금 굴레  
 208023 섬 섬

208023-1		15말
208024	덤이	덤
208025	포기	폐기
208026	그루	개
208027	돌이(양태)	도리
208028	마리	므리
208028-1	두[頭]	므리
208028-2		므리
208029	축	*
208030	퀘미	퀘미
208031	쌍(돼지)	자리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컬레(신)	베
208035	바퀴(운동장)	바쿠
208036	못	못
208037	죽	죽

## 9. 민속

###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애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싱할망
209004	깃저고리	봇띠적삼
209005	배넛머리	배안넛머리
209006	돌	돌
209007	새 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서방
209009	가마	가메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딸풀다
209012	장가가다	장개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아덜풀다
209014	함	홍세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새각시상
209018	휘다[樛]	멜라지다
209019	이바지	이버지
209020	부조	부지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예펜사돈
209021-2	바깥사돈	스나이사돈
209022	겹사돈	겹사둔, 부찌사둔
209023	상갓집	영장칩
209024	수의	호상
209025	상복	복옷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제
209028	맡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왕대
209031-2		머구냥
209032	짚동	짚뎡이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
209034	조문하다	고렘가다
209035	뒗자리	산터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쉐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행상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계
209042	상두꾼	행상꾼, 역시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밭
209045	광중	개짱
209046	횡대	개판
209047	호층	호층
209048	무덤	산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봉분싸다
209053	마치다[終]	막치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제월제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계칩
209059	편틀	낭쟁반
209060	퇴물	퇴물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갱
209063	제육	제숙
209064	제편	침떡
209065	인절미	은절미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웃기떡	기름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테우다
209070	뭇	찍시
209071	면례(緬禮)	천리

#### 세시풍속

209072	설날	정월명절
209073	세배	과세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솟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살장귀
209080	뽕과리	쟁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몰래뜸
209085	추석	팔월명질

##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벨롱갱이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판
210008	명두	*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슬다
210012	살(煞)	*
210013	삼살방(三煞方)	*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헛거
210017	어둑서니	지진
210018	무섭다	막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고사
210021	고수레	걸멩
210022	포제	막을제

##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검질
211003	방화(放火)	방애

211004	불다[點火]	부찌다
211005	내[川]	내창
211006	넷가	넷가
211007	물가	*
211008	따르다[從]	따르다
211009	건너다[渡]	넘어가다
211010	낭떠러지	엉덕
211011	다리[橋]	다리
211012	가깝다[近]	보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벌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벌
211015	돌무더기	머들
211016	갈림길	소릿길
211017	묻다[問]	들어보다
211018	비탈길	자우라진길
211019	벼랑길	굴렁길
211020	내리막길	*
211021	오르막길	*
211022	길가	질에염
211023	큰길	한질
211024	분화구	굽부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오르다
211027	기슭	*
211028	산바람	*
211029	산꼬대	노룻
211030	상고대	상강
211031	구렁	구렁챙이
211032	고랑창	고랑창
211033	건너가다	넘어가다
211034	넘어지다	푸더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물통
211037	숯	곶
211038	성(城)	жат



##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갯곶
211041	바닷물	츄물
211042	바닷바람	*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붕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보살밭
211048	자갈	작지
211049	갯가	갯곶
211050	펄	펄
211051	먼바다	펄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dot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
211056	굼뉘	*
211057	물결	*
211058	잔물결	*
211059	무수기	물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9일
211059-2	두무날	두물	10일
211059-3	서무날	서물	11일
211059-4	너무날	너물	12일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13일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14일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15일
211059-8	여덟무날	으덟물	1일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2일
211059-10	열무날	열물	3일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4일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5일
211059-13	(열서무날)	열세	6일
211059-14	아끈췌기	*	7일
211059-15	췌기	*	8일
211059-16	한조금	*	*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밀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썰물	썰물

### 시후

211066	오늘	오널
211067	내일	내일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저낙날
211072	어제	어저께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꼬저께	그직아싯날
211075	새벽[曉]	세백
211076	꼭두새벽	*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빛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파랑허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
211092	달	달
211093	차다[充滿]	*
211094	달무리	달갓
211095	초승달	초싱달
211096	보름달	보름달
211097	그믐달	구믐달
211098	햇무리	*
211099	무지개	황고지
211100	쌍무지개	쌍황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을
211104	겨울	저실
211105	입춘	새철드는날
211106	동지	동짓날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구믐

211110-1	하루	흐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을
211110-4	나흘	나을
211110-5	닷새	닷새
211110-6	엿새	웃새
211110-7	이레	일레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나흘
211112	너더댓새	네닷새
211113	대엿새	대엿새
211114	지나다[過]	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돌
211119	선달	정월
211120	올해	금년
211121	내년	내년, 멩년
211122	내후년	후멩년
211123	작년	넘은해
211124	재작년	*

**날씨**

211125	별	벳
211126	별살	벳살
211127	따스하다	뜨뜻허다
211128	땡별	땡벳
211129	가을별	ㄱ슬벳
211130	양지받이	*
211131	아지랑이	앗인안개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장막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검불리다
211136	그림자	구미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
211137-2	바람아래	*
211138	맞바람	*
211139	바람받이	*
211140	바람살	*
211141	회오리바람	돛갱이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프름
211144	서풍	갈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마
211149-1	봄장마	고사리장마
211149-2	가을장마	ㄱ슬장마
211150	곰팡이	곰생이
211151	소나기	쉐네기
211152	여우비	*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실
211155	시원하다	시원허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뭇	ㄱ뭇
211159	흉년	송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토기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함박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싸레기눈
211170	도둑눈	*
211171	내리다[降]	느리다
211172	희다	하양허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
211181	우박	*

####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조곳
211185	옆	옆
211186	위	우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복다
211189	어둡다[暗]	어둡다
211190	왼쪽	왼쪽
211191	오른쪽	노단쪽
211192	밋	밋
211193	흐르다[流]	흐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베곶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
211198	가[邊]	가
211199	가장자리	*
211200	가운데	가운데
211201	곧다[直]	꾸짝허다

## 12. 동물

###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숫췌
212005	취소	식췌
212006	불까다	불까다
212007	불알	*
212008	황소	왕소
212009	얼룩소	얼루빼기췌
212010	부리망	자갈
212011	쇠고삐	췌석
212012	끌다	이끄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멤췌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룻(1)	금싱	일수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이수
212105-3	사릅(3)	사릅	삼수
212015-4	나릅(4)	나릅	스 수
212015-5	다듭(5)	다듭	다섯 살
212015-6	여듭(6)	여섯 살	여섯 살
212015-7	이릅(7)	일곱 살	일곱 살
212015-8	여듭(8)	여덟 살	여덟 살
212015-9	아듭/구릅(9)	아홉 살	아홉 살
212015-10	열룻/답불(10)	열 살	열 살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췌죽
212018	구유	도고리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암말

212023	수말	숫물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라물
212026	칭총마/총이말	먹총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다
212028	얼룩말	얼룩배기
212029	유마	유매
212030	백마	백마
212031	고라말	고라물
212032	곰배말	곰새물
212033	조랑말	조랑물
212034	달리다[走]	든다
212035	마소	쉐물
212036	글경이	글경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물석
212039	당기다	땡기다
212040	낙인	넥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씨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
212048	비루먹다	*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쾅이	식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수득
212057	떨떠구니	*
212058	산떡	*
212059	닭의어리	득텅에



212060	닭장	독장
212061	달걀	독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자
212061-2	흰자위[卵]	흰자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빙아리	빙에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허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شم씨	일شم씨
212072	생둥이	서투바치
212073	새끼 돼지	새끼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통시
212075	돼지고기	도새기퀘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지랭이
212081-1	둘암소	지지랭이쉐
212081-2	둘암말	지지랭이몰
212081-3	둘암돼지	지지랭이도새기
212081-4	둘암개	지지랭이개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올리

####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취슬다	취싸다
212088	가시	버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
212096	장구벌레	*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훤이	쉬챙빃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
212103	거머리	*
212104	바구미	*
212105	콩바구미	*
212107	땅강아지	*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며느리	군벗버렁이
212110	노래기	*
212111	지네	지냉이
212112	진딧물	*
212113	진딧물내리다	*
212114	하루살이	하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
212116	달팽이	들벙이
212117	민달팽이	옷벗은들벙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왕게염지
212121	불개미	*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소금바치말축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극췌기

212126	귀뚜라미	공중이
212127	풍뎅이	*
212128	장수풍뎅이	*
212129	무당벌레	*
212130	쇠똥구리	*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날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잠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잠
212141	장수잠자리	*
212141-1		*
212142	매미	잠
212143	매미허물	*
212144	말매미(왕매미)	*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
212146	소금쟁이	*
212147	방개	*
212148	반딧불이	불란지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청벌
212151	꿀	청
212152	땅벌	*
212153	말벌	말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드기
212155-1		서미역
212155-2		부그리
212156	송충이	소낭버렁이
212157	개구리	가게비
212158	올챙이	쟁베리

212159	맹꽁이	멕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께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헤치
212161-2	뱀허물	베염홀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헤치
212163	도마뱀	장칼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독새베염

### 들짐승

212166	여우	*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송애기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갸다	갈그다
212173	쥐구멍	중이고냥
212174	박쥐	*
212175	다람쥐	*
212176	오소리	오루
212176-1		오루고냥
212177	지달(이)	지다리
212178	지달피	*
212179	멧돼지	산도새기
212180	원숭이	잔나비
212181	원숭이띠	잔나비헤치
212182	호랑이	범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헤치
212184	꼬리	꼴랭이

###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꿩지	꿩랭이
212187	깃[羽]	털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득가슴
212190	참새	참새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소로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메기
212198	딱따구리	*
212199	빼꾸기	빼꾸기
212200	종달새	*
212201	올빼미	*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독새기
212206	꺼병이	꿩빙에기
212207	두루미	*
212208	기러기	*
212209	갈매기	*

####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등	*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돌보말, 코토데기
212214	밤고등	먹보말
212215	팽이고등	수두리보말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메옹이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뿔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쟁이
212227-1		*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
212228-2		*
212229	전복갑	*
212230	오분자기	오분재기
212231	게	쟁이
212232	마위게	돌강이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참게
212236	꽃게	꽃게
212237	소라게	게틀레기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아강발
212240	갯강구	*
212241	말미잘	*
212242	성게	퀴
212243	말뚱성게	숨
212244	군소	*
212245	새우	*
212246	불가사리	*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몽게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닷고기
212255	맑다[淸]	붉다

212256	흐리다[濁]	어둑다
212257	잘다[細]	족다
212258	썩다[腐]	석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배타다
212261	생선(生鮮)	생선
212262	미끼	니껍
212263	갯지렁이	게스리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숫대	춤대
212266	만들다[造]	멘들다
212267	낙숫줄	정술, 주낙술
212268	붕돌	뽕뜰
212269	참대	춤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낙배
212273	지느러미	늘개
212274	아가미	어우생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
212279	베도라치	보들락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코생이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랭놀래기	어랭이
212286	실놀래기	실어랭이
212287	옥돔	오토미
212288	흑돔	*
212289	돌돔	*
212290	감성돔	*
212291	벙에돔	*
212292	황돔	*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어
212299-1		*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괘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
212307	독가시치	*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팽이상어	*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
212320	돌고래	곰세기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
212323	흑산호	*



### 13. 식물

#### 풀

213001	가라지	ㄱ라지
213002	갈대	꺄대
213003	억새	어옥
213004	새풀	미뻬쟁이
213005	화승(火繩)	화심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휘차다
213009	빨기	뻥이
213010	사초	*
213011	천일사초	자오락
213012	김의털	쉐터럭
213013	쇠무릎	돌모작풀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밋붉은 제완지
213016	조개풀	*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모작풀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고냉이웨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쉐비눔
213028	개비름	개비눔
213029	참비름	츄비눔
213030	땅빈대	*
213031	애기땅빈대	딸감낭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베체기

213035	쭈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속떡
213038	토키풀	고름풀
213039	개자리	개자리풀
213040	냉이	난생이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룻	물룻
213043	여뀌	여뀌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퀴	소랭이
213046	췌기풀	진낭
213047	수크령	글리역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진쿨
213050	병풀	벌레기풀
213051	깨풀	복쿨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푸께
213054	땅파리	하늘푸께
213055	피막이풀	빈네풀
213056	도깨비바늘	가메기 바늘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시풀
213059	왕모시풀	모시풀
213060	천남성	천남성
213061	맥문동	맥문동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브께기
213064	차풀	자굴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물오동낭
213067	하늘타리	하늘레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두루에기
213069	부처손	*
213070	방가지똥	*
213071	닭의장풀	고낭귀

213072	배풍등	*
213073	취	꼭
213074	취덩굴	꼭줄
213075	취뿌리	꼭불리
213076	댕댕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생이족박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고냉이정당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눈벨레기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운동
213085	멀꿀	멀리줄
213086	천문동	천문동
213087	계요등	떡정당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
213090	수영(승아)	개생계
213091	애기수영	생계
213092	싸리	*
213093	땀싸리	*
213094	명아주	제낭
213095	갓	갓늬물
213096	달래	평마농
213097	씀마귀	ㄱ롬풀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구리대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익모초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신사라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반치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물망쉬
213116	싱경이	물늣

###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
213119	채송화	채송화
213120	민들레	민들레
213121	봉선화	봉선화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독고달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쭉부쟁이	들국화
213133	수국	*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물마농꽃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빨리
--------	----	----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줄기
213144	가지	가지
213145	잎	섰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하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섯
213151	솔가리	솔섯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멜감	지들커
213154	마디다	므디다
213155	갈퀴	긱쟁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돛박낭
213160	붉다[赤]	별경허다
213161	멀구슬나무	믈쿠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
213164	아카시아	아까시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나무
213166	음나무	음낭
213167	삼나무	숙데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벗나무
213170	왕벗나무	왕벗나무
213171	사옥	사오기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낭
213173	주목	노가리낭
213174	종려나무	*
213175	윤노리나무	윤누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미깡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유자낭
213184	비자나무	비자낭
213185	치자나무	치자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
213188	조롱나무	*
213189	배롱나무	배롱낭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
213192	팡팡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종낭
213195	마가목	마깨낭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굽낭
213199	향나무	상낭
213200	웃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
213205	돈나무	*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귀똥나무	개팡낭
213208	섬귀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꿇가시낭
213217	털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구낭
213220	좀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북당낭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림폐기
213227	천선과나무	가마귀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범주리가시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
213234	떡갈나무	츠낭
213235	상수리나무	*
213236	참나무	츄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제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
213242	모람	*
213243	누리장나무	*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숨비기낭
213246	붉나무	*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실과
213250	껍질	거죽

213251	깎다	까끄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딸기
213254	뱀딸기	계엄지탈
213255	명석딸기	보리탈
213256	복분자딸기	복분자
213257	줄딸기	한탈
213258	산딸기	탈
213259	가시딸기	가시탈
213260	검은딸기	검은탈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츄멸위
213264	개머루	고냉이 멸위
213265	까마귀머루	*
213266	산머루	*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
213270	다래	드래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블레낭
213273	보리수	블레
213274	보리장나무	밋블레
213275	앵두나무	앵도낭
213276	앵두	앵도
213277	매실	매실, 드르복송개
213278	매화나무	매실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탱자
213282	탱자나무	탱자낭
213283	감	감
213284	떨다[柿]	쪼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실
213287	풋감	풀감



213288	청미래덩굴	맹게낭
213289	맹감	맹게
213290	찔레나무	솔레비낭
213291	영실	솔레비
213292	사과나무	*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조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붓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개낭
213303	복숭아	복숭개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

####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
213310	미역쇠	메역새
213311	김	김
213312	파래	프레
213313	툇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층이	지층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몹
213321	청각	전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